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A STUDY ON ALTERNATIVES FOR NEXT GENERATION THROUGH VITALIZING
FAMILY WORSHIP: THE CASE OF DAEGIL CHURCH**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한 다음세대 대안: 대길교회를 중심으로

A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Eun Jick Cha (차 은 직)

Lynchburg, Virginia

May 2020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READER

Dr. Yunseop Kim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BSTRACT

A STUDY ON ALTERNATIVES FOR NEXT GENERATION THROUGH VITALIZING FAMILY WORSHIP: THE CASE OF DAEGIL CHURCH

Eun Jick Cha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This thesis aims to highlight the necessity of family worship for the succession of the next generation's faith by studying the effect of the revitalization of family worship on the transmission of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in the past has grown so rapidly that it is hard to find in the history of churches around the world.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various forms of worship and training programs, in the 21st century, Korean churches are experiencing a slowdown in church growth along with the stagnation of Sunday School. There may be various causes, but one of the causes is the negligence of family worship, which can be seen as the basis for teaching and transmitting the Word in the home.

This researcher analyzes and synthesizes programs for revitalization of family worship and family worship conducted by churches including one church centering on Daegil Church, as well as conducting family worship for the transmission of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It focused on providing family worship.

This study aims to inform the Korean churches of the need and effective family worship and suggests what directly affects the transmission of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through family worship.

Abstract length: 205 words

ABSTRACT

초록

A STUDY ON ALTERNATIVES FOR NEXT GENERATION THROUGH VITALIZING FAMILY WORSHIP: THE CASE OF DAEGIL CHURCH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한 다음세대 대안: 대길교회를 중심으로

Eun Jick Cha(차은직)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본 논문은 가정 예배의 활성화를 통하여 그로 인한 다음세대의 신앙 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다음세대들의 신앙 계승을 위해 가정 예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한국 교회의 성장은 세계 교회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양한 예배 형식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침체와 함께 교회 성장은 둔화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정 안에서 말씀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가정 예배의 소홀함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자는 대길교회를 중심으로 1개 교회를 포함하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 예배와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다음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 가정 예배를 시행하는 것에 분석 종합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가정 예배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교회에는 효과적인 가정 예배와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며, 가정예배를 통하여 다음세대 신앙 전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 길이 : 139 word

ACKNOWLEDGEMENT

감사의 글

저의 모든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처럼 논문을 마치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환경들 또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티끌만큼도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진리를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 결과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유정 교수님과 김윤섭 교수님, 행정 담당으로 섬겨주신 최영식 목사님, 김낙중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학자의 깊이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를 주신 영적인 아버지 박현식 원로 목사님, 따뜻한 격려와 사려 깊은 배려로 응원해 주신 백훈기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과 논문에 협조해 주신 대길교회 부교역자 여러분, 당신들은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부족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섬겨 주시고, 설문 조사에도 응답해 주신 대길교회 당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위해 든든한 고목과 같이 후원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양가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아빠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었던 든직한 첫째 윤, 함께 레고 놀이 할 날을 위해 논문 마치기까지 참고 기다려 준 둘째 유겸, 마냥 사랑스럽기만 한 귀염둥이 막내 유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란다.

그리고, 훗날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다 주고 싶을 정도로 헌신과 사랑으로 함께 해 준 내 소중한 갈비뼈, 아내 윤미영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감사의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iv
초록	
TABLES	xii
사진	
TABLES	xii
표	
SUMMARY	xiv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 장: 서론	
1. Purpose of the Study and Statement of the Problem.....	1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2. Scope and Limitations.....	4
범위와 한계	
3. Biblical, Theological Basis	4
성경적, 신학적 근거	
4. Method of the Study.....	5
연구 방법론	
5. Review of Literature	6
문헌 검토	
CHAPTER 2: The Rationale for Family Worship	9
제 2 장: 가정 예배의 이론적 근거	
1. General Definition of Family	9
가정의 일반적 정의	
2. Understanding of Family Worship.....	15
가정 예배에 대한 이해	

1) Definition of Worship	15
예배의 정의	
2) Definition of Family Worship.....	17
가정 예배의 정의	
3) Bible of Family Worship.....	24
성경에 나타난 가정 예배	
(1) Family Worship in the Old Testament	24
구약의 가정 예배	
(2) Family Worship in the New Testament.....	30
신약의 가정 예배	
(3) Family Worship in the History of Church.....	32
교회사의 가정 예배	
3. Sub-conclusion.....	39
소결론	
CHAPTER 3: Vitalizing Family Worship.....	40
제 3 장: 가정 예배 활성화	
1. Korean Church Family Worship Situation.....	40
한국 교회 가정 예배 상황	
2. Why Family Worship did not Settle?	44
가정 예배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	
1) Parental Role and Loss of Function.....	44
부모 역할과 기능 상실	
2) Ways to Restore Parental Roles	49
부모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1) Parents Must First Become Worshipers	49
부모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2) Parents Should be Teachers of the Faith	55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3) You have to Communicate with Your Children.....	64
자녀와 소통해야 한다	

3. Plan for Implementing Family Worship	68
가정 예배 시행을 위한 방안	
1) Parents' Mission is Important	68
부모의 사명이 중요하다	
2) The Three Elements that Make Up Family Worship	71
가정 예배를 구성하는 3 요소	
(1) Bible	72
성경	
(2) Praise	77
찬양	
(3) Prayer.....	78
기도	
4. Model of Family Worship - Havruta	83
가정 예배의 모델 - 하브루타	
1) Havruta	83
하브루타	
2) Havruta in the Bible.....	86
성경 속의 하브루타	
3) Havruta at Family	88
가정에서의 하브루타	
5. The Impact of Family Worship on the Next Generation	93
가정 예배가 다음세대에 미치는 영향	
1) Next Generation.....	93
다음세대	
2) Why Family Worship for the Next Generation?.....	95
다음세대에게 왜 가정 예배인가?	
(1) Biblical Command to Continue Godly Descendants.....	97
경건한 후손을 이어가라는 성경적 명령	
(2) Practical Difficulties of Church Sunday School.....	99
교회 주일학교의 현실적 어려움	

(3) Effects of Family Worship	105
가정 예배를 통한 효과	
(i) Building Children's Faith	105
자녀들의 믿음 세우기	
(ii)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106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iii)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Family.....	107
자녀와 가족과의 관계	
(iv)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Church	107
자녀와 교회와의 관계	
(v)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the Community	108
자녀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4) Methods and Contents of Family Worship.....	110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내용	
(i) Various Models	110
다양한 모델	
(ii) Guide	111
인도자	
(iii) Time	111
시간	
(iv) Count	112
횟수	
(v) Place	112
장소	
(vi) Disturbing Factor.....	113
방해 요소	
(vii) Things to Prepare for Family Worship.....	114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할 것들	
6. Sub-conclusion.....	116
소결론	

CHAPTER 4: Questionnaire Survey Research for Family Worship	117
제 4 장: 가정 예배 활성화에 대한 설문 연구	
1. Purpose and Procedure of the Survey	117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Purpose of the Survey	117
설문의 목적	
2) Research Subjects	117
연구 대상	
3) Survey Procedures and Methods	118
설문 절차와 방법	
2. Analysis of Reliability.....	119
신뢰도 분석	
3. Analysis of Survey Result.....	120
설문 결과 분석	
1) Demographic Analysis.....	120
인구 사회학적 분석	
(1) A, B Church Analysis.....	120
A, B 교회 분석	
(2) A, B Church and Gender Analysis	132
A, B 교회와 성별 분석	
2) Analysis of Faith	136
신앙에 대한 분석	
3) Analysis of Family Worship Ministry.....	137
가정 예배 사역에 대한 분석	
4) Analysis by the Use of Cross Analysis Function.....	142
교차 분석 기능 활용 분석	
(1) Relationship According to Age Category	143
연령 구분에 따른 관계성	
(2) Relationship According to Education Category.....	145
교육 구분에 따른 관계성	

4. Sub-conclusion.....	147
소결론	
CHAPTER 5: Examples of Churches Conducting Family worship	149
제 5 장: 가정 예배 시행하는 교회의 사례	
1. Family Worship Situation in Traditional Church.....	149
전통 교회에서의 가정 예배 상황	
2. Ministries for Vitalizing Family Worship at Daegil Church	150
대길교회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한 사역들	
1) Men's Cell Unity	152
남성 셀(Cell) 단합회	
2) Cell Parenting Seminar	153
셀(Cell) 양육 세미나	
3) Child Education Seminar	156
자녀 교육 세미나	
4) Mother Wise	157
마더 와이즈	
5) Teacher Academy	160
교사 아카데미	
6) Young Dads Cell Meeting	160
젊은 아빠들 셀(Cell) 모임	
7) Special Parenting Class.....	162
특별 양육 강좌	
8) Whole Generation Worship	163
온세대 예배	
9) Sunday School Lesson Textbook Integration	164
주일학교 공과 교재 통합	
10) Bible Integration for All Generations	165
온세대 말씀 통합	
11) Children's Sunday-Inviting Parents Worship	167
꽃주일-부모 초청 예배	

12) Vitalizing Family Worship	168
가정 예배 활성화	
3. Family Worship School	169
가정 예배 학교(와와캠프!(Wa Wa Camp)-아빠와 엄마와 함께 캠프 가요!)	
4. Sub-conclusion	173
소결론	
CHAPTER 6: Conclusion	174
제 6 장: 결론	
Appendix A	177
부록 A	
Appendix B	179
부록 B	
Appendix C	181
부록 C	
Appendix D	185
부록 D	
Bibliography	190
참고자료	
IRB Approval	198
IRB 승인	

TABLES
사진

사진 1. 주보에 첨부된 가정 예배 순서지 ①166

사진 2. 주보에 첨부된 가정 예배 순서지 ②166

사진 3. 주보에 첨부된 가정 예배 순서지 ③167

사진 4. 가정 예배 모습.....168

TABLES

표

그림 1. 논문 설계 모형도.....	118
표 2. 설문 문항 구성	118
표 3. 신뢰도 분석.....	119
표 4. 다중대체 설문 응답 값	119
표 5. 인구사회학적 영역	120
표 6.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구원관.....	122
표 7. 생활 속에서의 신앙 생활	123
표 8.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의 영향력	124
표 9. 가정 예배 실천과 그에 대한 이유	124
표 10. 가정 예배 활성화로 인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	126
표 11. 가정 예배 드리는 형식.....	127
표 12. 가정 예배에 대한 교회의 지원과 가족의 행복감.....	128
표 13. 교회 구분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	130
표 14. 의사결정에 따른 신앙의 영향력 여부가 가정 예배 필요성에 대한 생각 여부	131
표 15. 가정 예배 드리는 그룹 여부가 가정 예배 필요성에 대한 생각 여부.....	131
표 16. 교회에서의 직분과 자녀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 양육 장소 여부	132
표 17. 성경을 읽는 횟수	133
표 18. 가정 예배 생각에 대한 여부	133
표 19.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134

표 20. 교회가 가정 예배에 대처하는 방안.....	135
표 21. 기도를 하는 횟수.....	136
표 22.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의 영향력 여부.....	136
표 23. 가정 예배 시행 여부.....	137
표 24. 가정 예배에 대한 생각 여부.....	138
표 25. 가정 예배가 자녀들 신앙 전수에 대한 생각 여부.....	139
표 26. 가정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진행 방법.....	139
표 27. 교회가 가정 예배에 대처하는 방안.....	140
표 28. 행복한 가정을 위해 중요한 것.....	141
표 29. 신앙 전수를 위한 가정 예배 필요성.....	142
표 30. 연령 구분에 따른 교회 예배나 모임 참석 횟수 관계성.....	143
표 31. 연령 구분에 따른 성경을 읽는 횟수 관계성.....	144
표 32. 연령 구분에 따른 기도하는 횟수 관계성.....	144
표 33. 교육 구분에 따른 신앙 생활 년수 관계성.....	145
표 34. 교육 구분에 따른 교회에서의 직분 관계성.....	146
표 35. 교육 구분에 따른 가정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면 더 은혜로울 것인가에 대한 관계성.....	147
표 36. 양육 1단계.....	154
표 37. 양육 2단계.....	155
표 38. 마더 와이즈(Mother Wise) 자유.....	157
표 39. 마더 와이즈(Mother Wise) 지혜.....	158
표 40. 마더 와이즈(Mother Wise) 회복.....	159
표 41. 젊은 아빠들 셀(Cell) 모임(풍성한 삶의 기초).....	161

표 42. 성경 파노라마 교재	162
표 43. 가정 예배 학교	170
표 44. 와와 캠프(Wa Wa Camp) 첫째 날 일정 개요	171
표 45. 와와 캠프(Wa Wa Camp) 둘째 날 일정 개요	171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This thesis deals with family worship that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for shaping spiritual life of the next generation. As gospel having been spread, Korean churches have experienced substantial revival through dedications and efforts of ministers and believers. However, despite of growth in numbers through God's grace, it can be said that Korean churches have failed in succeeding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In spite of emerging issues in spiritual life and character of believers' children, the reality is that today's believers tend to delegate spiritual education to the teachers of Sunday schools, and when presenting plans and visions for Sunday school revival, they merely emphasize dedications and growth of Sunday school teachers.

Yet, it is by no means adequate for the next generations to be spiritually nurtured merely through Sunday school which accounts for just 1 hour of per week, 168 hours. Considering the lost 167 hours, it is no exaggeration to state that spiritual discipline is not found in families or from parents who have been tied to rapid-changing world. Comparing with social issues emerged by exceeding eager for children's education, parental role as Christians and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are substantially rare. This means that the main structure for Christian family is collapsing.

God created family as the foundation of society for humans to live in. Humans as creations cannot live apart from family and healthy society cannot be established without healthy

family. Humans experience God's orderly manner of creation and live-in love and happiness as communities based on spiritual discipline through families. In other words, God created families to be the first places that humans are nurtured and disciplined.

Family worships conducted in these valuable families are the best institutions for spiritual education and faith succession. In this regard, the researcher emphasizes parental missions that were entrusted by God for shaping spiritual life of the next generation and presents family worship as a plan for succeeding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which had been merely delegated to Sunday schools in churches. Additionally, the researcher proposes family worship through havruta (הַבְּרִיחָה) among various models of family worship. Havruta is a biblical family worship of which its historical and biblical origin is found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era. Still today, Jewish people talk, question, and discuss about a subject in families. Even Jesus and his disciples conducted havruta. Family worship through havruta is still relevant today in succeeding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even after 3400 years of its initiation. Family worship through havruta is not conducted by one-way delivery but through convers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parents and children which is edifying to succeed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Worship being collapsed from families means that godly identity as people of God is being lost. Worship needs to be revived starting from and in families. Parents should be able to succeed their faith through the Word of God. Succession of faith should be practiced through family worship and this will have profound effect in spiritual formation of the next generation.

In this regard, the researcher proposes plans for vitalizing family worship through theories on family worship. This thesis has its purpose on re-acknowledging the need for family

worship vitalization in every church in Korea, and hence, presenting family worship as a tool for establishing faith of the next generation.

CHAPTER 2

THEORETICAL BASIS FOR FAMILY WORSHIP

In chapter 2, the researcher examined general definition of family, understanding family worship, and family worship in the Bible and in church history.

Family is the ideal locus for humans to experience happiness for the first time and feel secured. God is pleased with worship in families which is His creation. One of the ways one can have one's family structur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God is through family worship which was commanded through the Bible. Through family worship, one can find God's plan and purpose for one's family; share individually given visions; and growth together as parents and children.

However, Christian families conducting family worships are rarely found in recent days. Families that conduct family worship every week or even every month are hard to find these days. Initiation of family worship in the Bible can be found in the Old Testament where Adam and Eve share their relationship with God by having conversations with Him in the garden of Eden (Genesis 2:8-25). Adam and Eve offered pleasing worship to God through being complete by each other and being united in bodies.

Cain and Abel learned worship from their youth by their parents through observing them having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Genesis 4:3-4). Noah conducted family worship not only inside the ark but also when coming out of it (Genesis 7:17-8:20). Abraham built an altar after arriving in Canaan with the hope of God's promise (Genesis 12:1-7). Isaac, Abraham's son, resembled his father in worshiping God by building an altar at Beersheba (Genesis 35:2-7).

Family worship conducted in Moses' family can also be found in Deuteronomy 6:4-9. Moses, who strived to accomplish God's command given to Abraham, systemized the Law that was given to him at Mount Sinai. Joshua declared that he will not stop worshipping God in his family (Joshua 24:15). David and his son, Solomon, humbly worshiped God who was their master in their houses even though they were in King's positions where they could rule the whole world (Samuel 20:6, Psalms 78:4-8).

Family worship is also found in Job's confession who experienced numerous hardships in his life (Job 1:1-5). Family worship in the New Testament can be found in the book of Acts. In Acts 2:45-47, family was where the notion of sanctuary had been re-established. Pious Cornelius' family worship is also mentioned (Acts 10: 2-31). Lydia, a dealer in purple cloth, and her family members were baptized after receiving the Word of God and declared their faith (Acts 16:14-15). It is obvious through 1 Timothy 5:8 how family worship played its vital role in spiritual life in the New Testament era: "If anyone does not provide for his relatives, and especially for his immediate family, he has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an unbeliever." (NIV)

In the Early Church days, all the family members being involved in family worship was a naturally expected daily routine.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tate that they started and ended a day with family worship. In the early morning, they started a day with scripture reading and singing hymns, and before they went to bed, they ended with the same routines as morning worship.

In the Reformation era, as typography had been developed, each house could own a Bible. Reformation was not only in the doctrine but also in worship. Parents were re-identified as priests in families. Denomination of the Presbyterians and the Baptists, through Westminster

Catechism in 1547 and the 2nd London Catechism in 1689, announced that family worship should be practiced. This meant that it was an important duty of the pastors and presbyterians to check on each house whether family worship and education through the scripture and Christian doctrines were being practiced.

In conclusion, family worship is Christians' duty and privilege as God's people who have been saved. Family worship is not a mere philosophy that was emerged by a timely trend. It is an utterly biblical way given to the next generation for them to be spiritually nurtured.

CHAPTER 3

VITALIZATION OF FAMILY WORSHIP

In chapter 3, the researcher examined the status and situations of family worship in Korean churches. The researcher searched for reasons why family worship was not being settled well which was due to loss of parental role and mission, and thereby, examined plans to restore parental roles. For this, the researcher suggests plans for practicing family worship and havruta as a family worship model. Hence, there will be investigations in influence of family worship to the next generation.

From the early stages of Korean Churches, family worship was at the center of spiritual lives. However, there were lacks in education venues and teachers. Family worship could not be systematically settled. Additionally, it was a time when Confucian traditions were overflowing and this made it difficult for family worships to be conducted. Ever since, Christianity in Korea came to focus mainly on evangelism and missions.

Today,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tate that family worship is almost nonexistent in Korean churches. Compared to numerous active small groups in Korean churches and its emphasis on it, interests and concerns for family worship is substantially insufficient. Today in COVID-19 pandemic crisis, proper operation of worship services in Korean churches became increasingly difficult. Studies concerning this situation are being poured out arguing that family worship will be the only alternative.

However, family worship is not an alternative just for COVID-19 pandemic. When examining the Bible, God has never placed family worship at the remote region. God had his people to achieve the promised Word, succeed faith, and walk in faith through families. Family

worship is a proper duty and privilege as God's people. God entrusted roles and missions to Christian parents. First, parents are to raise their children as the generation of faith. God gave parents the mission to have their children grow as Christians and live as witnesses (Matthew 28:18-20). In other words, parents are children's spiritual models, and hence, becoming mature teachers of faith is their primary role.

First principle for the parents to recover their role entrusted from God is to love God. It is not adequate merely by hearing and memorizing the Word of God in the head. Parents should carve in their hearts the Word of God. This is God's command on spiritual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to be disciplined and this principle transcends all eras. Parents should live as worshipers who experience and grow to know God deeply. Parents of faith are to present their lives to their children as models of what it means to live by the Word; not merely stopping at teaching and delivering the contents of the Bible.

Another parental role that God entrusted is to be teachers of faith to children. They should be able to tell their children about God's attributes. They are to teach how humans are sinners and that sin is a severe issue. Children are to be parents' first disciples. Parents are to nurture their children to walk in the way of Jesus Christ and resemble His life.

Additionally, parents should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At the same time, there are elements that are to be care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There may be negative effects when communicating merely through lecture, criticism, judging, command, analysis, comparison, or threat. Parents should communicate through active listening and by presenting positive alternatives. Sharing bedtime stories before going to bed is effective and beneficial in various facets regarding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Parents' mission is a vital element in planning to practice family worship. Christian parents are to nurture their children to be a generation of faith. Succession of faith should flow down from parents to childre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next generation's faith entrusted by God is initially parents' responsibility before it becomes ministers' or Sunday school teachers. Parents should conduct family worship remembering that it is their primary mission.

Family worship is composed of following three elements: The Word, singing praises, and prayer. Reading the Word and learning about God through family worship becomes a precious moment in one's whole life. Singing praises becomes an additional mean to teach children about God. Prayer is a graceful and pious way to approach God.

The researcher presents havruta as a model for family worship. Havruta is a traditional Jewish education system which is conducted through having respectful conversations with each other about a subject. One of the big pros of havruta is that it helps its participants to have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mutual questions, answers, and active learning attitudes.

Havruta is easily found in the Bible. God, the creator, communicated with humans through His Word and Jesus did not cease to have conversations with His people. Jesus who was incarnated in human form delivered the truth of the gospel to people through havuta.

Paul shared the gospel through having conversations and arguments with numerous people during his travel in Athens, Corinth, and etc. He defended himself at the trial before Felix, Festus, and Agrippa II.

Just as the Jewish children learn through conversations with adults about their ancestors' wisdom and grow in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biblical life, family worship through

havruta will not only enhanc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ut also aid in succession of faith, shaping character, and learning ability.

The Bible shows God's intention in faith to be succeeded to the next generation. The generation growing to be a pious offspring is a biblical command (Isaiah 59:21). Children who grew up in daily confession, God being their family's master, and in acknowledgement of God's guidance naturally come to revere God. Henceforth, children learn to pray and come to cognize the priorities in life through family worship. Through these practices, they experience God's grace and grow to be God's people.

There are difficulties in realities of Sunday school. The Sunday school system does contribute substantially to growth of Korean churches, but at the same time, it laid a misunderstanding of the notion that Sunday school is the only spiritual education site. Additionally, in reality, Sunday school is regarded as a summative activity among ministries.

As far as the influence of family worship, it builds up children's faith and shapes a deep bond in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haracteristic as a community is established; sense of belonging to churches is enhanced; and sense of duty and responsibility as Christians to the society is strengthened.

Regarding methods for practicing family worship, family worship should be revised, supplemented, and applied according to each family, situation, and culture. Parents or fathers should be leading family worship, yet sometimes for educational purposes, worship leading could be handed over to children. Family worship should be conducted at a regular place and time when all the family members can gather altogether and is critical that it is practiced regularly and thoroughly. Family worship will be more graceful and fruitful if it is conducted in a

designated place where there is least distraction and make it a time for spiritual discipline and character shaping, not a mere cursory time.

CHAPTER 4

STUDY ON SURVEY FOR VITALIZATION OF FAMILY WORSHIP

This survey has its purpose on identifying how participants are in cognition of the significance of family worship and of the effect of family worship to succeeding faith to children. The participated church has been accomplishing vitalization of family worship and been developing it as one of main ministries in the church. This church and the church that the researcher is serving at responded to the survey: two churches in total.

The researcher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d compared churches A and B through research model. Samples for this study, 50 people, were randomly extracted from members of churches A and B.

The survey is consisted with 27 questions in total. There were each 25 minutes of direct meetings and the participants were notified of the purpose and process of this survey. They filled out the printed survey documents themselves anonymously. Online survey was also conducted through emails and messenger and consents of the survey were received from the participants after senior pastors of two churches each presented the contents of the survey.

Considering thoughts of churches, A and B on family worship, church A responded as following: “definitely necessary” accounted for 20.0% and “necessary” 72.0%. As for church B, “definitely necessary” accounted for 36.0% and “necessary” 62.0%. Thus, churches A and B showed that both churches were acknowledging the need for family worship.

Regarding reasons for practicing family worship, church A and B each responded as following: response of “succession of faith” for church A accounted for 90% and, for same response, church B accounted for 80.5%. Succession of faith accounted for a big portion.

For reasons not practicing family worship, church A's response of "members not cooperating" accounted for 46.0%, and for same response, 53.0% of church B responded.

On response to the question on succession of faith to children through family worship vitalization, church A responded as following: "definitely necessary" 36.0% and "necessary" 58.0%; and for same question, church B responded: "definitely necessary" 42.0%, "necessary" 56.0%. Both churches responded that family worship is needed for succession of faith.

On response to the question on where spiritual discipline for faith succession should take place, 86.0% of church A and 90.0% of church B responded, "in family." Family accounted for most of the portion for this question. This showed that spiritual discipline and faith succession should take place in families.

On response to the question about necessary elements for family worship vitalization, church A and B each responded, "practitioners' determination and practice" 38.0% and 56.0%; and "education and promotion from the church" 62.0% and 36.0%. Additional response was received from church B: "timely consideration" 4.0%. Church A's rate on "education and promotion from the church" was 62.0% which surpassed that of church B' by 26.0%. Church B's rate on "practitioners' determination and practice" was 56.0% which surpassed that of church A's by 18.0%.

On response to the question about having conversation with children in family worship, 80.0% of church A responded that they were having conversation, and for church B on same question, 96.0%. From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rather than through traditional form of worship, it is better to conduct family worship through conversations with children and through actual lives.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family worship has substantial influence on succession of faith to children. Family should be the venue for establishing children's faith, their spiritual discipline, and succession of faith through family worship. Family worship will be more developed through reading the Word together, learning about God, sharing mutual prayer requests, sharing lives, blessing conversation, and having conversations, not through mere cursory worship.

CHAPTER 5

CASE STUDY ON THE CHURCH THAT CONDUCTED FAMILY WORSHIP

When family worship is vitalized, children can grow in faith and one's family becomes prestigious. Nevertheless, many local churches in Korea are losing family worship and the mission entrusted to parents from God is becoming nominal. Churches are mostly operated by adult centered programs and succeeding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is at stake.

In this regard, the researcher attempted various applications for vitalizing family worship in the church that he is serving at; Daegil church. There were concerns on family worship being imprinted as just another program when emphasizing it to the church members due to the lack of acknowledgement of its significance and delivery of that significance. Thus, it was difficult to apply family worship right away. Hence, the researcher planned to start with small numbers gradually by planting change and challenge. Surely, this application in ministry could not have been possible if it were not for the support from Hyunsik Park, retired senior pastor of Daegil church who sympathized in the need in family worship vitaliz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and cooperation of fellow ministers who gathered their minds in unity. This kind of consideration for an associate pastor is rare in mega or mid-sized Korean churches. It is a special case where it is only possible when the senior pastor's philosophy meets the vision. Thanks to this consideration, the researcher could apply the significance of family worship for the next generation to educations and small group ministry of the church, continuously for a long period of time. Chapter 5 will present practical ways to conduct family worship in the church based on the research conducted in this thesis.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is case study could not easily be established as a general standard for the whole Korean church. Researchers and Applications

conducted from ministers who have their expertise in family worship will surely present more beneficial effect.

The researcher attempts to present a model for churches that intend to practice family worship through introducing case study on transitions and applications that were conducted while he served as a director for cell ministry and education department in Daegil church from 2011.

First, the researcher had the male church members to share missions and visions that were specifically entrusted to men through Male Cell Unity Gathering. Compliance rate was positive because there not many events just for men in the past. Through Cell Nurturing Seminar, Bible lectures were taught. Grace and dedication in lives through the Word, agonies, and prayer requests were shared. In Children Education Seminar, lectures on nurturing children were given from invited speakers. Main focus of these lectures was on succeeding faith through parents.

Mother Wise is a program that provides vitality and recovery to women and mothers. It also provides ways to nurture children. Through Teacher Academy, admonition was given so that the teachers recognize how spiritual discipline should be initiated from families, and thereby, practice family worship themselves. Male church members in 30's and 40's experienced recovery through Young Daddy Cell Gathering. There were consolations for dads who had not time to rest even in weekends due to work and infant care. They were recovered through sharing lives, encouragements, and the Word.

Special Nurturing Lectures were conducted during summer and winter breaks when cell ministry also went into breaks. It was initially designed for spiritual growth for parents, but henceforth, children started to participate and learned about the Bible together with their parents.

Intergenerational Worship was designed so that all the family members could worship together. All the textbooks for Sunday schools were unified; from infant group all the way up to adult group. Common Bible passages were designated, and thereby, Q.T. (Quiet Time) as well as Sunday worships had unified and designated passages. Through Flower Sunday Worship Services, parents were invited to each department's Sunday school worship services that their children were attending, and they prayed blessings for their children. There have been continuous admonitions and challenges of conducting family worship in these services.

Additionally, the researcher is preparing to execute Family Worship School. This a four - week course school that deals with theories of family worship, parental mission and role, ways to conduct family worship, and forms of family worship. For the final week, parents and children will participate in a two-day camp and spend time together. This camp will be composed of community training, mutual letter writing, and practicing family worship. This will lead to having hope and anticipation on family worship.

In conclusion, family worship vitalization requires lengthy endurance. Thorough love and endurance are to be poured on to succession of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Family worship is the alternative for the next generation.

CHAPTER 6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significance of family worship was presented by examining biblical, theological, and historical meanings of family worship. Observations were presented on how families could experience happiness in the gospel and the next generation possess hope through family worship and succession of faith.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more settled family worship was in one's family, the more that family would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family worship and this gave substantial effect on succeeding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To state one element that was to be desired, it is the practice of family worship. Despite of parents' vivid assurance in their salvation as Christians and their cognition on significance of family worship, there were still many families that did not actually practice family worship.

To vitalize family worship for succession of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parental education and promotion of family worship is to be continuously conducted and parents should be determined to practice family worship. When family worship is vitalized, children will grow in faith. When parents recover the parental mission, children will not leave from God and grow as healthy Christians. It is necessary that children learn about God through family worship and are raised up to be people who have no lack to live as Christians in the world. For this, churches should promote and educate family worship and prepare the ground for parents to practice family worship.

Most explicit result shown from the survey of this thesis was that the necessity of family worship and spiritual discipline of children are addressed and practiced from families. It was observed that the method of conducting family worship was not merely through teaching by rote

or traditional worship formats but through having conversations and sharing lif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hen family worship becomes vitalized through determination for applying these kinds of important principles of family worship, the next generation will succeed faith.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attempted to bring out changes through applying various programs to vitalize family worship for the next generation in a traditional Korean church environment. For this, the researcher extracted survey participants randomly from members of the church that he is serving at. The researcher anticipates that this study will aid churches that are striving for succeeding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Yet,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A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 designated church, it is hard to state that it has its representativeness for the whole church of Korea, and hence, it is difficult to be applied to each different denomination and local church. In this regard, the researcher anticipates the further studies on ‘the Reality of Havruta Family Worship,’ ‘Cooperation between Families and Sunday School,’ or ‘Transition to Faith Succession System that Ties Ministry Structure with Parents,’ will continue and contribute to recovering succession of faith in Korean churches.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본 논문은 다음세대들의 신앙 형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정 예배에 관한 논문이다.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 전파되면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 대한민국에는 큰 부흥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귀한 은혜였다. 그러나 세계가 놀랍도록 양적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유입된 지 100 년을 보내면서 정작 신앙의 후손을 세우기 위한 다음세대를 향한 신앙 전수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가정의 자녀교육과 사회화 기능이 약화 되었으며, 과열된 입시경쟁 체제 아래에서 다음세대 자녀의 신앙과 인성교육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¹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에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다음세대들에 대한 신앙 양육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현실이며, 주일학교를 위한 부흥과 성장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할 때에는 첫 번째로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과 성장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회 주일학교는 1 주일 168 시간중 고작 1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으로서 다음세대들에게 신앙 양육을 충분히 하였다고 말하기에는 어불성설이다. 잃어버린 167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시각에 মে여버린 부모들로 인해 가정에서의 신앙 양육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녀를 위한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 역할과 다음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것은 기독교 가정의 뼈대가 무너지는 것이다. 신형섭은 2019 년 통합적 가정 사역을 위한 간담회에서 티모시 폴 존스(Timothy Paul Jones)가 조사한 설문 가운데, 2007 년 기독교 부모 4 만 명을 대

1) 신용주, 김혜수, 「다음세대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2017, 3.

상으로 자녀들과의 신앙적 대화를 조사한 결과 약 79%의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대화가 없거나 가끔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와 함께, 한국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청소년 복음화율은 미전도종족의 수준인 3.8%로 보고 되었다는 한국 갤럽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기도 하였다.² 다음세대가 머지않아 미전도종족 또는 타민족이라고 불리워지게 될 것이라 할 만큼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상황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은 루이스 부시(Luis Bush)도 한국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신앙 전수의 부재를 안타까움으로 표하기도 하였다.³

이와 같이, 다음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의 소홀함과 실패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을 교회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각종 미디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이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해 현대 사회의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로 가정을 허락하셨다. 피조물인 인간들은 그 가정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도 없으며, 건강한 가정이 없는 세상에서는 건강한 사회가 형성될 수도 없다. 인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경험하게 되며, 인격 공동체로서 신앙교육을 기본으로 사랑과 행복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최초로 양육되는 장소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 소중한 가정에서의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야말로 다음세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기관인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세대들의 신앙 형성을 위해서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강조하고 교회 주일학교에만 내던져진 다음세대들을 위한 신앙 전수의 방법으로 가정 예배를 제안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교회들은 급성장하였음에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성장과 변영, 변화라는 그늘 아래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를 소홀히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에 대한 소홀함이며, 창조 질서에 어긋난 행위에 따른 결과물인 것이다.

2) Gospel Today 홈페이지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yno=5401>, 2020년 11월 9일 접속.

3) 국민일보 홈페이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36978>, 2020년 11월 9일 접속.

인간은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가정 예배는 그 자체로 신앙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가정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예배 행위와 예배의 삶에 대하여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당연하다.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정에서부터 예배는 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이 말씀으로 신앙 전수를 하여야 한다. 사회적 변화와 시간적 부족함으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는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로 인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신앙의 계승은 단절되어 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함으로써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신앙 전수를 실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다음세대들의 신앙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본다.

가정 예배의 다양한 모델 중 하브루타를 통한 가정 예배의 모습을 피력하고자 한다. 하브루타는 구약이나 신약시대에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성경적인 가정 예배이다.⁵ 현재도 유대인들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서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며 대화한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하브루타를 하였듯이 하브루타를 통한 가정 예배는 3,400 년이 흘러 현재까지 다음세대들의 신앙을 전수해주는 예배이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하브루타는 토라와 탈무드의 본문 연구를 구조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이것은 가정에서도 동일한 힘을 발휘하게 한다.⁶ 가정 예배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일방적인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의 함께 하브루타를 통한 대화와 소통으로 드러지는 가정 예배는 다음세대들의 신앙 전수에 다양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4) 지원규, 「가정 예배 정착을 위한 가정 예배 훈련에 관한 연구」, (리버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2.

5) 김지숙, 「하브루타(*Havruta*)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교육과 가정회복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6.

6) 전성수, 「자녀교육 혁명 하브루타」, 두란노, 2012, 159.

이에 연구자는 가정 예배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다음세대들의 신앙을 위한 가정 예배 활성화를 제시한다. 성경에 나타난 가정 예배를 알아보고 한국 교회 가정 예배 상황과 한국 교회에서 가정 예배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 예배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가정 예배 모델 중 하브루타를 소개하려 한다. 그리하여 가정 예배가 다음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연구자가 대길교회에서 시행한 다음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가정 예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들마다 다음세대의 신앙은 가정 예배가 활성화 되어야 함에 다시 한 번 인식하여 다음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에 가정 예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범위는 지역 교회에 속한 기독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에 대한 시행과 가정 예배가 다음세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다. 본 연구자는 각종 서적과 정기 간행물들과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며, 그동안 대길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연구하여서 가정 예배를 통한 다음세대의 신앙 전승을 분석하며 그로 인한 다음세대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가정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다음세대 신앙 계승에 올바른 것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이 정하는 한계이다.

3. 성경적, 신학적 근거

가정 예배에 대한 것을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어떻게 시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일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구약에서의 성경적인 근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

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
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4-9)로 삼았다. 이는 출애
굽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면서 광야생활에서,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에서도 신앙을 어떻게 전승해야 하며, 이것이 기독교인이 선택해야 하는 가장 바른 길임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신학적인 근거를 교회론에 두었는데, 이는 신약에서의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었기에
각 가정을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가정에서 드러지는 예배로 인
하여 신앙이 전수되며 양육이 이뤄지는 것이 21 세기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다음세대를 위한 모
델임을 제시하려고 한다.

4. 연구 방법론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대길교회에 조직되어 있는 소그룹(small group)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가
정 예배에 대한 설문 조사를 분석하여 보다 향상된 가정 예배를 제시하고, 앞으로 가정 예배를 운영
하기 원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운영 방안을 실제적으로 다룰 것이다.

1 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을 다룰 것이다. 2 장에서는 가정, 가정 예배에
대한 사전적 정의, 성경에서의 근거, 역사적인 배경들을 연구할 것이다. 3 장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다양한 사례를 연구할 것이며, 특별히 유대인들의 학습 교육의 비밀이
담겨있는 하브루타를 활용한 가정 예배를 제시하고자 한다. 4 장에서는 대길교회에서의 가정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행될 설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5 장에서는 4 장을 근거로 가정 예
배를 통한 다음세대들에게 신앙 전수가 되는 모델을 제시할 것이며, 각 교회와 가정에서의 활용 방안
도 나올 것이다.

5. 문헌 검토

본 연구자는 연구를 위한 문헌을 2 가지로 진행할 것이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에 대한 현 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문헌들이며, 두 번째는 가정 예배에 대한 문헌들과 가정 예배로 인한 신앙 전수를 연구한 문헌들이다.

첫 번째 분류의 시작은 조엘 비키(Joel R. Beeke)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⁷과 가렛 레이드(Garnett Reid)의 「D6 언약도」⁸에서는 언약 안에서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성도들의 책임에 대한 개혁주의 원리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신학적 뿌리들을 살펴보게 된다.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양육은 부모들의 지식과 경험들로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양육해야 함을 설명하고자 한다.

현용수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쉼마 1-3」⁹은, 수평적인 복음전파에 대한 당위성에 밀려버린 수직적 지상명령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된다. 이웃과 민족을 위한 선교적 차원에서의 복음 전파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들에게 명령하신 ‘쉼마’(שְׁמָרָה)에 대한 중요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박상진 외 4명 저자의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¹⁰에서는,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교회들은 다음세대가 위기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음식, 놀이 문화 등으로만 대안책을 내어 놓는 현실이다. 단순히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고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임시 방책일 뿐이다. 다음세대들의 위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의 문제이며 기독 신앙을 전수하고 뿌리내리는 신앙의 근본적인 핵심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재정립을 통해 어떠한 교육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가게 된다.

7) Joel R. Beeke,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조계광 역, 서울: 지평서원, 2012.

8) Garnett Reid, 「D6 언약도」, 황 스테반 역, 서울: D6 Korea House, 2018.

9)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쉼마 1-3」, 도서출판 쉼마, 2009.

10) 박상진 외 4인,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신용주, 김혜수의 「다음세대를 위한 부모교육」¹¹에서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녀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할 및 부모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프로그램을 알아보며, 그로 인한 자녀들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따른 효과적인 부모 역할들에 대해 알아본다.

김광덕의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¹²와 신형섭의 「가정 예배 건축학」¹³, 론 헌터 주니어(Ron Hunter Jr)의 「D6 DNA」¹⁴에서는, 가정 예배에 대한 당위성과 가정 예배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본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정 예배의 모습들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왜 가정 예배가 안겨다 주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다. 다시금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중요성과 다양한 모델들을 발견하게 된다.

에버하르트 플라테(Eberhard Platte)의 「거룩한 부담, 자녀양육」¹⁵, 도널드 휘트니(Donald S. Whitney)의 「오늘부터, 가정 예배」¹⁶에서는, 성경 속의 가정 예배와 교회 역사 속에서의 가정 예배를 찾아볼 수 있다.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자 노력한 다양한 인물들과 가정들의 사례들을 발견하게 된다.

제임스 W. 알렉산더(James W. Alexander)의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¹⁷에서는 가정 예배가 개인과 가정, 교회와 이웃, 국가와 후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찾아봄으로 인해, 가정 예배가 단순히 한 가정만의 행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민족들에게 끼치게 되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알려주고자 한다.

엘리 홀저(Elie Holzer)와 오릿 켄트(Orit Kent)의 「하브루타란 무엇인가」¹⁸에서는 유대인 교육의

11) 신용주, 김혜수, 「다음세대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2017.

12)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KMC, 2009.

13)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14) Ron Hunter Jr, 「D6 DNA」, 박금주, 김치남 역, 서울: D6 Korea House, 2017.

15) Eberhard Platte, 「거룩한 부담, 자녀양육」, 강미경 역, 아가페북스, 2012.

16)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가정 예배」, 윤종석 역,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7.

17) James W. Alexander,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9.

18) Elie Holzer, Orit Kent,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이은혜 역, D6 Korea House, 2018.

핵심인 하브루타 학습법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며, 다음세대들의 신앙 전수에 하브루타 학습법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된다.

또한, 전성수, 양동일의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¹⁹, 에니타 다이아먼트(Anita Diamant)와 카렌 쿠슈너(Karen Kushner)의 「유대인의 자녀 양육법」²⁰, 전성수의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²¹에서 제시하는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에 유대인들에게 숨겨진 비법을 알아보게 되며,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신앙 전수에 실패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정체성도 알려주고자 한다.

그 외에도 본 주제와 관련된 성경 신명기 6 장 4-9 절 외에, 창세기 1 장 28 절, 창세기 2 장 22-24 절, 창세기 8 장 20 절, 여호수아 24 장 15 절, 욥기 1 장 5 절, 시편 78 편 1-8 절, 시편 127 편 1-5 절, 시편 128 편 1-6 절, 시편 133 편 1-3 절, 잠언 1 장 7-8 절, 잠언 22 장 6 절, 누가복음 1 장 5-6 절, 누가복음 10 장 38-42 절, 요한복음 4 장 23 절, 사도행전 10 장 1-2 절, 사도행전 18 장 8 절, 에베소서 6 장 1-4 절, 디모데전서 5 장 8 절, 디모데후서 1 장 3-5 절, 디모데후서 3 장 14-17 절 등을 참고하였다.

19) 전성수, 양동일,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라이온북스, 2014.

20) Anita Diamant, Karen Kushner, 「유대인의 자녀 양육법」, 도서출판 동연, 2018.

21) 전성수,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위즈덤하우스, 2012.

제 2 장

가정 예배의 이론적 근거

1. 가정의 일반적 정의

가정은,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 단위이다. 가정은 관계의 시작을 알려주며 처음 행복을 맛보며 인간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가정은 인간이 쉼을 누리는 공간이며, 재충전하여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회복의 공간이기도 하다.

가정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으로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공간이다. 부모는 자녀가 가정에서 최초로 만나게 되는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으로, 양육 행동, 참여, 성격 특성, 가치관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발달과 사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²²

이광주는 “가정은 사회조직의 가장 원초적 집단으로서 한 개인이 자라서 그 인격이 형성되는 보금자리이며, 인간이 임하는 최초의 사회 환경이며, 사회의 영원한 학교이다. 가족은 가정에서 안식 할 수 있고, 인간 생활에 새로운 역동성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인간 인격의 상호 의존 관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²³라고 한다. 자녀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들을 통하여 생존에 필요한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먹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성품, 태도, 가치관, 생활 규범 등을 배우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닌 광범위하였으며 영향력은 크고 장기적이다. 그래서 오스카 포이히트(Oscar Feucht)는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교육 기관이요 인격적 요람이며, 잠재적인 가장 위대한 교사이고, 선교 기관이며 문화의 교환 장이고, 악에 대한 장벽이며, 교회의 방파제”라고 말한다.²⁴ 자녀들의 신

22) 신용주, 김혜수, 「다음세대를 위한 부모교육」, 20.

23) 이광주, “가정 사역에 있어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 38 집, 2000, 20.

24) Oscar E. Feucht ed. by Roy B. Zuck & Gen A. Gets, “The Christian Family in Today’s World,” *Adult Education in the Church*, 248. 이정관, “현대 가정의 변화가 가정에서의 청소년 기독교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안”, 「신학과 실천」,

체적, 인격적, 사회적인 부분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발달에는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가정에서부터였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자녀들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삶도 불투명해진다.

가정이란, 집 ‘가’(家), 뜰 ‘정’(庭)으로, 즉 집 안에 있는 뜰, 집 안에 있는 정원이란 뜻이다.²⁵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 물을 주고 풀을 뽑고 거름을 주듯이, 사랑과 관심이 없이 방치된다면 꽃과 나무는 말라 죽게 되며 아름다운 정원도 곧 불품없는 공간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인크리스 매더(Increase Mather)는 “가정은 교회와 사회를 위한 육아원이다. 가정을 파괴하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한다.²⁶

연구자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에 이혼한 부모에게 쫓겨나 듯 가출한 학생을 당시 신혼 초였던 연구자의 가정에서 그 학생이 결혼할 때까지 양육했던 적이 있다. 연구자의 가정을 통해서 그 학생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여주고 싶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면서 받았을 학생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은 귀하게 잘 성장해 주었으며, 연구자와 함께 단기 선교로 다녀왔었던 인도 벵갈루루(Bangalore, India)의 이영미 선교사²⁷와 함께 2년간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인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신실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현재 호주 브리즈번(Brisbane, Australia)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있다.

가정은 모든 인간의 생활과 역사의 기본단위이다.²⁸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창 1:26-28). 에덴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다. 가정의 기원은 교회보다 앞선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이상적이며 구체적인 최소 단위이다.

제 27 호, 2011, 289 에서 재인용.

25) 박도훈, “예배를 통한 가정의 회복”, 『활천』, 774 권, 5 호, 2018, 65.

26) Increase Mather, *A Call from Heaven to the Present and Succeeding Generation* (Boston: John Foster, 1679), 91. Joel R. Beeke,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265 에서 재인용.

27) 인도 레디언트 라이프 <http://cafe.daum.net/india971/S3K/1>, 2020년 11월 6일 접속.

28)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78.

가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강조하는 부분들 중 사도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3-5)고 말한다.

이에 관해 김홍전은 “가정은 혈통의 관계로 이어지고, 또 사랑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성은 부부를 근간으로 한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와 부모 자식의 관계가 각각 혹은 합쳐서 가정이라는 말로 표시됩니다.”²⁹라고 강조한다. 장화선은 “기독교 가정은 창조 질서 뿐만 아니라 구속 질서에 속한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사랑의 공동체인 동시에 신앙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보살피는 것이다.”³⁰라고 한다. 주선애는 “기독교 가정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 가족 모두가 그의 자녀로서 그의 뜻에 복종하며 그를 섬기는 혈연(血緣)공동체를 의미한다.”³¹라고 말한다.

기독교 가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가정이다.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가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본질에 대해서 양창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믿음에 기반한 가정,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하여 부부관계와 부모 및 자녀 됨, 모든 가족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적합한 가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견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상호 간에 존중하는 가정이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명령을 부여 받은 가정공동체로서 ‘청지기’와 ‘제자’ 직분을 통해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가정이다.”³²

29) 김홍전, 「혼인, 가정과 교회」, 성약출판사, 1994, 82.

30) 장화선, “가정 세움을 위한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성경과 신학」, 2014, 302.

31) 주선애, “가정 예배는 어떻게”, 「새가정」, 통권 245 호, 1976, 43.

32) 양창국, 「개혁 신학의 관점에서 본 가정사역에 관한 연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학위 논문, 2017), 90.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 중 최고는 가정이라고 보았으며,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은 크리스천이 생활하는 학교이고,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모든 세대의 보육실이고, 인생 대학이며, 자녀들의 훈련 장소인 것이다.³³ 래리 크리스텐슨(Larry Christenson)은 성경적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정은 인간의 편리와 보다 나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단순한 사회적인 기관이 아니다. 가정은 생산적인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신적이며 사회적인 집단이다. 가정은 모든 집단보다 우선적으로 제정되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도적으로 설립하셨을 때,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제도적인 기구로서 국가도 가정이 처음 생겼을 때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은 가장 근본적이며 최초의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어느 기간 혹은 어느 장소에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 인류의, 전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제정되었고 현재와 미래의 전 인류에게 허락된 기관이다.³⁴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정의는 자녀들이나 손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나 조부모로 구성된 삼 세 대이다.³⁵ 부모와 한 명 이상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설계하셨다. 그 이상적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게 하셨고,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도 본인들의 부모들에게 교육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셨다.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성한 기관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해 나가는 도구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방편으로써 신중하게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한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와 첨단 기술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³⁷

매스턴(T. B. Maston)은 가정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 제도이며, 한 문화의 상태를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지표(barometer)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문화 그 자

33) 김득룡, "가정예배의 원리와 실제", 「상담과 선교」, 36 권, 2002년, 28.

34) Larry Christenson, 「크리스천의 가정 생활」, 김용순 역, 서울: 보이스사, 1982, 24.

35) Ron Hunter Jr, 「D6 DNA」, 128.

36) 엄승용, 「가정사역의 성경적 기초」, (풀리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7.

37)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가정 예배」, 12.

체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것이 되어가기 때문이란 것이다.³⁸ 대한민국도 급속한 산업화의 발전과 함께 가치관과 관계성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폐단 중에서 가정 붕괴 현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부모들은 일터에서, 자녀들은 과중한 학업으로 인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대화의 단절을 비롯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최소한의 사회적 울타리가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의 탈선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를 ‘가정교육’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³⁹ 부모의 권위와 함께 가정의 역할과 사명은 붕괴되어 가고 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각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종교단체에서 가족 회복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는 것만 보아도 가족 해체가 안겨다 주는 사회적 심각성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자가 논문을 연구할 시기에는, 중국 우한(武漢, Wūhàn)시에서 발행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⁴⁰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Pandemic)⁴¹ 현상에 이른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일명 ‘사회적 거리 두기’⁴²가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캠페인으로 인해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단절감을 경험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사회적 구성원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게 되었지만, 가족 구성원과의 시간은 예전보

38) T. B.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76.

39) Eberhard Platte, 「거룩한 부담, 자녀양육」, 12.

40)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2020년 6월 24일 접속.

41)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2020년 6월 24일 접속.

42)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2020년 6월 24일 접속.

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음을 말해준다.⁴³

그러나,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가정 모임이라면, 제 아무리 가정에서의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지는 못한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인도할 성경적 원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⁴⁴

존 바우링(John Bowring)은 “행복한 가정은 일찍 맛보는 천국과 같다”고 율게 말했다.⁴⁵ 하나님께서 가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맡겨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다(창 1:28).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의 문화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 땅에 세우시고 세상 앞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구원과 심판의 도전을 제시하려는 뜻에 있으며, 또한 그러한 일을 역사상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그런 가정 안에서 기름을 받게 하시려는 뜻에 있다.⁴⁶

리차드 헤스(Richard S. Hess)와 다니엘 케롤(M. Daniel Carroll Rodas)은 “성경은 거대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인간에 대한 언급이 곧 가족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성경에서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 할 때에도 그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것이었으며, 가족은 공동체의 기초로써 개인의 존재 근거이며 또한 인간이 세우는 모든 계획은 가족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더욱 인간다워지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더 다가가는 것은 가정이 올바르게 설 때에만 가능하다.”⁴⁷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거룩한 사랑과 진리를 서로 나누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공동으로 지키고 그것을 더 깨달아 후대에 전승해 가는 이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⁴⁸

43) 세계일보 홈페이지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12507844?OutUrl=daum.>, 2020년 6월 23일 접속.

44) Richard S. Hess, M. Daniel Carroll R, 「성경 속의 가정」, 차명호 역,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14, 35.

45) Clift Richards, Lloyd Hildebrand, 「자녀의 미래를 여는 기도」, 정진우 역, 도서출판 NCD, 2011, 20.

46) 김홍전, 「혼인, 가정과 교회」, 109.

47) Richard S. Hess, M. Daniel Carroll R, 「성경 속의 가정」, 37.

48) 김홍전, 「혼인, 가정과 교회」, 120-21.

2. 가정 예배에 대한 이해

1) 예배의 정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 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시 132:7)라며 시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 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를 받고자 하심이며,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창 2:15, 4:3-5, 시 96:8-9).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롬 12:1-2).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예배를 소홀이 여겨서도 안되는 것이다.

정장복은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 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응답하는 만남의 현장”이라고 정의한다.⁴⁹

새성경사전에서는, “예배는 성경적인 의미로서 본질적인 개념은 섬김이다. 히브리어 ‘아보다’(עָבַד)와 헬리어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는 원래 종이나 고용인의 수고를 의미하였다. 이 경배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경건한 두려움과 흠모의 경외와 경탄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⁵⁰라고 말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외함을 높여 드리는 표현인 것이다.

예배라는 용어는 구약에서는 ‘아바드’(עָבַד)라는 단어와 ‘샤하아’(שָׁחָה)라는 단어가 있다. ‘아바드’라는 말은 봉사와 섬김이라는 의미로, ‘샤하아’라는 말은 굴복하는 것이나 엎드리는 것으로 숭배와 순종, 봉사의 종교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⁵¹

49)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18-9.

50) New Bible Dictionary, 「새성경사전」, 김의원,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1273.

51)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성도의 신앙생활」, 서울: 도서출판 교회갱신연구소, 2012, 114.

신약에서의 예배는 ‘프로스퀴네오’(προσκυνέω)라는 말과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라는 단어로 말한다. ‘프로스퀴네오’는 종이 주인에게 절하다, 엎드리다의 존경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태복음 4 장 10 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용하신 단어이기도 하다. 이것은,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는 마귀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동일한 단어로 응수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사용하신 단어이다.⁵² ‘라트레이아’는 종이 상전을 섬겨야 하는 신분을 보여줄 때 사용한 단어로써 종교적 섬김으로서의 경의를 표하는 의미이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경배 만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예배의 한자어 의미는 ‘예를 다해 절함’(禮拜)이다.⁵³ 영어권에서의 예배는 ‘Worship’이라는 단어로써 ‘가치’(worth)와 ‘신분’(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앵글로색슨어의 위스사이프(weorthscipe)에서 유래한 말로서 복합명사에 해당된다.⁵⁴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의미로서, 최고의 가치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경배를 전제한 행위로 표현하였다.⁵⁵

시편 29 편 2 절에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예배는 연약한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과 모든 찬사를 높여드리는 경건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는 행위인 것이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4 장 24 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격을 규정해 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Spirit)을

52)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마태복음 제 1-11a 장)」, 서울: 제자원, 2012, 246.

53) 박진숙,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교육적 방안”, 「성경과 신학」, 68 권, 2013, 8.

54)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05.

55)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성도의 신앙생활」, 115.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를 이룰 수 있을 때 생긴다는 것이다.⁵⁶ 형식에 매이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치장하지 않은 채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허락 받았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2) 가정 예배의 정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소원이 예배를 받으심이다.⁵⁷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명령하신 가정 예배이다.⁵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가정 예배이다. 가정의 신앙적 공통분모인 그리스도를 통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또한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교육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적 원동력의 근원이자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중요한 만남의 시간이다.⁵⁹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 중 하나이다. 가정은 그 처음 시작부터 예배를 목표로 하여 세워진 거룩한 기관이다.⁶⁰

또한 가정이라는 성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때는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시간이며, 자녀 양육의 중심지(center)이다.⁶¹ 매일 아침마다 혹은 매일 밤마다 할머니, 할아버

56)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요한복음 제 1-6 장)」, 서울: 제자원, 2012, 334.

57) 김광덕, 「숨겨진 보좌: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29.

58)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12.

59) 정준,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한 신앙의 질적 성장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12.

60) 백성재, “가정 예배를 통한 기독교 교육의 가치실현을 위한 연구”, 「신학지평」, 제 23 집 2 호, 2010, 231-2.

61)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쉼마 1」, 2009, 122-4.

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앙모한다는 것은 실로 기독교 감화의 근본이다.⁶² 호레스 부쉬넬(Horace Bushnell)은 “가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깃드는 곳이며 신앙적 부모나 자녀 사이의 관계와 분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의 은총의 매개”라 하였다.⁶³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며,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들을 공유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해 가는 시간들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고전 12:3) 가족들의 믿음은,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서 더욱 견고해진다.

출애굽기 20 장 5-6 절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 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와 신명기 7 장 9 절에서 “그러나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세대를 위한 어떠한 계획과 마음을 갖고 있으신지를 알 수 있다. 동일하게 부모들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 다음세대에 대한 시각을 하나님처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천대에 이르도록 갖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부모들은 가정을 세워야 한다. 가정에서 언약의 씨앗은 시작되어야 한다. 언약 공동체인 가정의 회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전도서 11 장 1 절에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처럼,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정착하고,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부모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는 많은 세월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낭비가 아니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섬김과 사랑으로 인한 대가를 맞보

62)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45.

63) Horace Bushnell, *Christian Nurture*, (Grand Rapid: Baker Book House, 1979), 335. 지원규, “가정 예배 정착을 위한 가정 예배 훈련에 관한 연구: 논산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리버티대학교, 2020, 19에서 재인용.

게 될 것이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자녀 세대들은 큰 어려움과 문제없이 온전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다. 여전히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염려를,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마가복음 10 장 14-15 절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라는 말씀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어린 아이들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가 넘쳐나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과 은혜만이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뢰함과 순수한 믿음만을 놓지 않으면 된다. 설령 자녀들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뜻에 따라 정해진 때에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으며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⁶⁴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고 순종적인 자녀, 곧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없다.⁶⁵ 부모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자녀들도 동일한 죄인들이다. 이기적이고, 폭언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타인에게 배려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애쓴다. 죄성에 물들어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에베소서 2 장 20-22 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하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corner stone)이 되어 주셨다.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64) Joel R. Beeke,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102.

65) Ibid., 26.

때 모퉁이돌을 먼저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돌을 좌우로 또한 위로 쌓음으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⁶⁶ 예수님께서 그 집의 기초와 기준이 되셨다는 말씀이다.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기초와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비롯해 교회 내 많은 성도들은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은혜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 기독교 가정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매일, 매주가 아닌 한 달에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발견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이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기독교 가정들은 가정 예배조차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로 영적 고갈상태에 빠져 비기독교 가정들처럼 살아가고 있다.⁶⁷

하나님께서서는 가정에서 신앙 전승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부모를 통하여 다음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가족내의 머리 역할을 해야 하는 아버지가 예배를 주관하지 않으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문화를 낫설게만 여기고 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함께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실천하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조엘 비키(Joel R. Beeke)는 가정 문제의 핵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 붕괴 현상은 가정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의 반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가정은 예배를 위해 세워진 영적 기관이었기 때문에 가정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은 영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예배를 위해 세워진 기관이므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정 예배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⁶⁸

메튜 헨리(Matthew Henry)는 “인간의 본성은 가정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

66)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성도의 신앙생활」, 171.

67) 전한중, “기독교 가정의 영적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기독교 교육연구」, 1993, 195.

68) Joel R. Beeke, 「가정 예배」, 김준범 역, 고려서원, 2012, 10.

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정은 교회로 세워진다. 사실, 잘 지어진 건물에 모여 위엄 있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이전에는 가정이 바로 교회였다.”⁶⁹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통해 가족들의 신앙과 교회의 영광과 축복이 증거가 되어 복음이 확장된다고 한다.

가정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바이트’(בית),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오이코스’(οἶκος)라는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한 집안에 함께 살아가는 무리와 친족들을 나타내었다. 건물(막 2:14, 행 7:47), 구약시대의 성전(요 2:16), 가정(눅 2:4, 10:5, 행 16:15, 딤후전 3:4), 민족과 나라(마 10:6, 행 3:36)등 광범위한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가정이다. 이는 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1 세기의 로마 헬레니즘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사회 단위로서 교회의 성장과 안정에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⁷⁰

제이 아담스 (Jay E. Adams)는 “가정은 교회나 국가보다 먼저 제정된 가장 근본적인 신적 기관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하였다.⁷¹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가정이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편 127 편 1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신다. 단순히 실제 건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성경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 가시기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신형섭은 가정 예배를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합당이 응답하는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가정 예배다. 가능하면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중 일부만 함께 모일 수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 세대

69) Matthew Henry,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이영자 역,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15, 16.

70) New Bible Dictionary, 「새성경사전」, 44.

71) Jay E. Adams, *Christian Living in the Home* (Grand Rapids: Baker, 1976), 44. 이향숙, “가정 예배가 가족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심리상담」, 제 1 권, 2009, 158 에서 재인용.

만 혹은 자녀 세대만 모여서 드려도 가정 예배는 가능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공동체에 혹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으며 지금은 어떻게 주고 계시며 앞으로는 언약대로 어떻게 주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응답하는 사건’이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모두 사건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경험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한 것을 반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반추의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발견된 의미와 개념이 장기 기억으로 남아 비로소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 공동체와 가족 구성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에 대한 응답으로써의 사건이 되려면 가정 예배 안에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신 것을 반추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⁷²

가정 예배는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가족들이 준수해야 할 가정의 의무이다.⁷³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을 통하여 볼 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자격이기도 하다.

출애굽기 10장 3절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목적도 바로 내 백성이 예배하게 하라는 명령이었다.

가렛 레이드(Garnett Reid)는 당신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가정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의 가정에서 영적인 일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라. 영적인 훈련을 집에서 실천하라. 기도, 말씀묵상, 찬양, 섬김, 간증 등 모든 영적인 훈련을 가능한 기쁨으로 하라. “예배는 인간의 일상적인 즐거움이다”는 A. W. Tozer(토저)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상적인 즐거움으로 삼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들을 하고 과거의 귀한 전통이 당신의 가정에 살아있게 하라. 하나님을 추상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라. 그분을 늘 있는 식탁에서 만나 뵈고 슬플 때에 만나 뵈며 자녀들의 미소에서

72)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95-6.

73) James W. Alexander,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11.

만나보라. 그분은 그곳에 계실 것이다.⁷⁴

가정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였으며,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은혜를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경험하고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한다.

김득룡에 따르면 “가정 예배는 가족들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한 표현이다. 또한 가정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족 서로간의 용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가족의 결속을 통해 새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⁷⁵ 가정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며 온 가족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⁷⁶ 김광덕은 가정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정은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기관이다. 부모는 최고의 교사이고 목회자이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회자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하였다. 자녀는 부모의 희망이고, 교회의 미래이고, 민족과 나라의 기둥이고, 세계와 만민과 열방을 구원해야 할 선교의 보금자리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가정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⁷⁷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신앙의 경건 훈련이나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는 어려운 일이 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을 통해 교회가 형성되었기에 가정에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

74) Garnett Reid, 「D6 언약도」, 141.

75) 김득룡, 「현대 교회 예배학신강」,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85, 374.

76) 구재익, “기독교가정교육 실제로서의 가정 예배”, 「신학지평」, 제 28 집, 2015, 154

77)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07.

리는 것은 현대 큰 예배당이 있음에도 필요하다.⁷⁸ 가정 예배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며, 인생 최고의 축제이다. 가정 예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못자리이고, 발전소이고, 훈련소이고, 엄마의 자궁이다.⁷⁹

3) 성경에 나타난 가정 예배

(1) 구약의 가정 예배

성경에서는 가정 예배를 가르쳐주는 명확한 말씀은 없다. 그러나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신앙 양육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모든 가족들에게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구약에서의 가정은 경건 훈련의 장이며, 작은 천국 모형이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예배이다.

가정 예배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드린 예배임을 보게 된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인류의 최초 거주지로 허락하신 곳이다(창 2:8).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었으며, 가정을 주셨다. 에덴은 사람의 거주지였을 뿐 아니라,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시며 관계를 나누는 곳이었다(창 2:8-25). 그리고 사람에게는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창 2:15). 창세기 2 장 15 절의 ‘경작하며’는 히브리어 ‘아바드’(עבד)이며 군림하는 것 만을 뜻하지 않고 힘써 봉사하며 일하는 것까지 지킨다는 의미 외에도 ‘일하다’(창 30:26), ‘봉사하다’(창 29:25), ‘다스리다’(신 28:39), ‘힘쓰다’(신 5:13)를 의미하며, ‘지키다’는 히브리어 ‘샤마르’(שמר)로서 ‘살피다’(욥 13:27), ‘보존하다’(시 86:2), ‘주관하다’(왕하 22:14) 등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⁸⁰ 이 단어들은 레위인의 봉사에 사용되는 문맥들이 존재하고 성스러운 봉사를 지지하며 에덴 동산은 성스러운

78) 김호경, 「목회비전과 가정예배를 연계한 신앙교육」,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46.

79)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15.

80)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창세기 제 1-11 장)」, 서울: 제자원, 2011, 198.

장소로 묘사되고 있는 다른 증거들도 있으므로, 성스러운 공간을 지키는 것임을 알려준다.⁸¹ 아담과 하와는 이 성스러운 에덴이라는 가정에 그 어떤 불순물이나 악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행복한 장소이기 때문이다.⁸² 이 최초의 가정에서 서로로 인해 온전함과 한 몸을 이루며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볼 수 있다(창 4:3-4). 이것은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통해 보고 배운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자와 매일 교제를 나누는 축복과 죄 없는 세상의 행복에 대해, 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⁸³ 이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언약 공동체(covenant community)로서의 가정을 보여주신 것이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계획성과 책임을 말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며 우리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와 얼굴을 마주하는 모임으로 부르시는 언약에 근거하신다.⁸⁴

노아의 시대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지으며 살던 시대였다(창 6:5-12, 마 24:37, 뱀전 3:19-20).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는(창 6:9) 노아 자신과 그의 가족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거하였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보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의 모습이 있었기에 방주 안에서의 삶은 안정될 수 있었다. 방주 안에서의 가정 예배인 것이다(창 7:17-8:19). 이후 방주에서 나온 후에도 노아의 가정 예배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변함없이 시행되었다(창 8:20).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

81) John H. Walton, 「NIV 적용주석, 창세기」, 김일우, 전광규 역,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246.

82) 이강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행복한 가정 세우기」, 도서출판 예수가족, 2008, 30.

83) Eberhard Platte, 「거룩한 부담, 자녀양육」, 29.

84)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SFC 출판부, 2007, 21.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며 제사를 드렸다(창 12:1-7).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창 13:4)며 여호와와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곳도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가정 예배를 드렸다. 창세기 15 장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확립된 경위, 그 언약과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자녀 양육과 언약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⁸⁵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자신의 노쇠함을 잘 알고 있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도 웃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진송하러 나가게 되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9)고 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11 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찾기 힘든 시대였으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다.⁸⁶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처음으로 선민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므로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계승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세대 간 신앙 전수를 위한 수평적 복음 전달자로 세워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이선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신앙을 대물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신앙 전승의 첫 걸음이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경우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원대한 청사진을 보여 주셨다”⁸⁷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결국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희

85) Joel R. Beeke,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23.

86)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가정 예배」, 20.

87) 이선재, 「신앙 전승을 위해 기획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연구: 동신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53.

생과 참된 예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⁸⁸ 아브라함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며 확인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드린 예배는 그들이 지치지 않고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⁸⁹

아브라함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자녀 이삭에게도 이어짐을 볼 수 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범죄케 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확증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의 성장한 가정에서 경험한 예배의 모습을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된다(창 26:25). 이삭의 아들 야곱도 뻘엘에서 가족이 함께 제단을 쌓으며 뻘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창 35:2-7). 이삭과 야곱은 본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을 재건하였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제사장으로 불렸는데 그들은 가정 제사(예배)의 집례자였다.⁹⁰ 에디스 A. 딘(Edith Alderman Deen)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사상은 족장들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를 거쳐 왕조시대에 이르는 동안 줄곧 계속 계승되었다”고 강조했다.⁹¹

신명기 6 장 4-7 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가정에서 드러진 예배도 발견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전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묘사를 동원하여 알려주고 있다. 모세가 그의 가정에서 초년 만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애굽 궁전에서 계속 하나님의 교훈에 깊이 영향 받은 것을 보면 그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었다.⁹²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을 이루고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체계화하였다. 신명기 6 장 6-9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구약 시대의 가정들이 가졌던 주요 관심은 다음세대가 하나님과

88) Oswald Chambers,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스테반 황 역, 토기장이, 2009, 35

89) 정준,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한 신앙의 질적 성장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22.

90)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03.

91) Edith Deen, 「성서적 가정관」, 도한호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52.

92) Leon J. Wood, 「이스라엘의 역사」, 김의원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150.

의 언약적인 관계에 충실하도록 양육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경건한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중대한 도전을 제시한다.⁹³

헤스(Hess)와 다니엘 케롤(Carroll)은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정 예배의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명기는 성경에서 자녀 교육의 지침을 중심 주제로 삼은 유일한 책이다(신 4:9; 6:7, 20-25; 11:19; 31:13 등). 가르침의 주체는 부모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했다. 신명기의 목적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세대’에 대한 것이다. 신명기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백성들 그리고 너희 조상들, 너희, 너희 자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한다(신 1:35, 38-39; 4:9, 25; 5:2-3, 29; 6:2-3; 7:9; 8:1, 16; 9:5; 10:11, 15; 11:2, 7, 19, 21; 29:10, 14-15, 22, 29).

그러면서 각 세대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즉 ‘어제’의 세대는 시련을 당했지만(신 1:39; 4:1-9, 15-20), ‘내일’의 세대는 ‘오늘’의 가르침에 따라 불순종의 길(신 4:25-28) 또는 순종의 길(신 4:29-31, 39-40; 5:32-33)을 가게 된다는 것이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백성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신다. 신명기는 미래의 세대가 누릴 삶의 모습이 현재 세대의 삶의 모습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한다(신 6:1-3).”⁹⁴

여호수아는 앞선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 오기까지의 시간들을 보내며, 크고 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수 24:15)라고 다짐을 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였다. 이 결단은 여호수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나안 입성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전적 헌신하겠다는 선포하였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 족속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위대한 행위들에 대해 들려 주었다.

왕정 시대에서도 가정에서 드린 제사의 모습은 발견된다. 다윗도 자신의 아버지 이새와 본인의 가

93) Garnett Reid, 「D6 언약도」, 47-8.

94) Richard S. Hess, M. Daniel Carroll R, 「성경 속의 가정」, 48-9.

족을 축복하는 것을 실천하였다(삼상 20:6, 삼하 6:18-20). 다윗과 솔로몬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겸손한 자세로 본인의 가정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왕상 20:6, 시 78:4-8, 잠 4:3-4). 이 믿음은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인생의 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가정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욥 1:1)였던 욥의 신앙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하였는데 각각 잔치 후 하나님에게 욥되지 하지 않기 위해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다(욥 1:5). 이는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함이며, 아버지 욥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되심을 증거하였다. 루이스 J. 셰릴(Lewis J. Sherrill)은 이 시기에 종교 예식(ritual)이 히브리 가정에서 행해졌다고 주장하는데, 각종 절기, 안식일 만찬, 할례, 성인식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한다.⁹⁵

시편과 잠언에서도 구약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며 말씀 안에서 양육하였는 것을 보여 준다. 시편 78 편은 자녀들에게 언약의 유산을 가르치도록 의도된 시이다.⁹⁶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시 78:4-6).

그 외에도 시편 44 편 1 절, 시편 48 편 12-14 절, 시편 71 편 17-18 절, 시편 90 편 16-17 절을 통하여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며 하나님의 경외함을 높이며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갔으나 60 여년간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었다. 누구보다 바쁘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조용

95) Lewis Joseph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44), 18-28. 박진숙,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교육적 방안”, 『성경과 신학』, 68 권, 2013, 11에서 재인용.

96) Garnett Reid, 「D6 언약도」, 107.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써 노력하였다(단 6:10-28).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고 말라기 4장 6 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도 가정에서 아비와 아들의 수직적인 신앙의 연속성을 강조하시며 세대 간을 넘어서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전수되기를 말씀하셨다.⁹⁷

(2) 신약의 가정 예배

신약성경시대(A.D. 55년)부터 기독교가 로마제국으로부터 예배의 자유를 쟁취하기까지(A.D. 313년) 가정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한 모임의 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교육의 1차적인 현상이었다.⁹⁸ 신약은 다른 사명들과 동일하게 구약의 사명들을 계승하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가정에 대한 교육을 계승한다.

사도행전 2장 46-47 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전해주고 있다. 이것은 유대교의 그늘인 ‘성전’을 벗어나 ‘집’을 새로운 성전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빵을 떼는’ 성찬 행위와 신앙공동체의 친교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가정이 새로운 성전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이다.⁹⁹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새로운 계약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임(ἐκκλησία, ecclesia)으로서의 새로운 공동체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는데 주로 가정에서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다.¹⁰⁰

97)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쉼 2」, 도서출판 쉼, 2009, 51.

98) 김경례, “기독교 가정교육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지평」, 제 23 집, 2 호, 2010, 200.

99) 박상진 외 4 인,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67.

100) 이광주, “가정 사역에 있어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31.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행 10:2; 24-25, 31).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정교회의 일원이었음을 보게 된다(롬 16:5).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서 온 집안 가족들은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행 16:14-15).

또한, 바울도 교훈하기를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중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에베소서 5장 25-27 절의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 절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이다. 물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할 수 가 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는 규칙과 형식을 동반할 때에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에게서 신앙이 전승된다면 자녀 양육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¹⁰¹

또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는 말씀을 통해, 신약시대의 가정 예배 중요도가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핵심의 위치를 차지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가정 예배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 번 가정 예배의 중요도를 실감할 수 있다(행 1:13-14, 16:25, 갈 4:12, 딤후 1:3).

101)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가정 예배」, 31.

(3) 교회사의 가정 예배

대한민국의 기독교에도 성경의 순수성을 그대로 전승하며 뿌리 내리기보다는 온갖 토속적인 종교와 기복적인 신앙으로 형성되어서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 왜곡되어 있다. 그러나 1세기 성도들에게서 보이는 가정 예배는 성경적 신앙 계승을 위하여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풍습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상의 하루였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예배가 머리에 떠 오르면 시행에 옮긴 것이 아니다. 본인들의 기분에 맞춰 시행하거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명절이나 기념일에만 가정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다. 그들은 오전이나 오후, 식사 시간에 잠시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 아침에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였으며,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 아침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였다.

4세기 초에는 성 크리소스톰(St. John Chrysostom)은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위한 바른 길에 관하여”(On the Right Way for Parents to Bring up Their Children)라는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 주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 하였으며, 15세기에는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⁰²

가정 예배가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첫걸음이자 핵심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초대교회 학자 라이먼 콜먼(Lyman Coleman)은 초대교회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아침 일찍 가족이 모여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읽은 다음,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 기도할 때는 간밤에 무사히 지켜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나게 하신 좋으신 전능자에게 감사를 드렸다. 아울러 하루의 위험과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본분에 충실하게 하시며, 매사에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합당하게 행할 능력을 주시도록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다.……저녁에도 가족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모여 아침과 똑 같은 방식으로 예

102) John H. Westerhoff III, 「기독교 신앙과 자녀 양육」, 이숙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07-11.

배했다. 한 가지 차이라면 하루를 시작할 때는 편의상 시간 제약이 따랐으나 저녁에는 예배가 상당히 길어졌다는 것이다.¹⁰³

초대교회는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 300여 년 동안 핍박과 환란 중에서도 토굴과 감옥에서 카타콤(Catacomb)의 지하 무덤에서 기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았다.¹⁰⁴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그들이 드린 가정 예배는 하루에 세 번씩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회가 외형적으로 확장됨과 함께 가정에서 시행하던 기도회보다는 수도원 중심의 기도회가 교회사에 나타난 기도회의 근간을 이룬다.¹⁰⁵ 서방교회의 수도원의 시조는 베네딕투스(Benedictus)와 동방교회 기도회의 대표격인 콘스탄티노폴리스(Constantinopolis) 기도회가 있었으나 동서방교회의 이 전통은 오히려 폐단이 되어 일반 교인들은 이런 기도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가정기도회도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고 말았다.¹⁰⁶ 중세 교회사의 가정 예배는 마치 암흑시대와도 같았다. 중세 교회사의 가정 예배 상황에 대해 케리 피텍(Kerry Pateck)은 말한다:

성경적인 형태의 가정 예배는 중세시대에는 무시되어 왔지만 고립된 ‘기독교 왕국’인 발더교도들에게는 은밀하게 지속되었다. 그들은 지도자를 ‘목사와 가장’이라고 불렀고, 교리 문답에는 ‘가정 준칙(Household Duties)’이라는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답은 사실상 보헤미안 형제단의 교리문답과 동일한데, 그 연대가 1467년에서 1521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이 문서의 기본 내용이 루터(Martin Luther)의 소교리문답(1531년)의 모델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이 교리문답에도 부록으로 ‘가정 준칙’이 포함되었다.¹⁰⁷

종교개혁의 시기에는 글자가 활자로 인쇄됨으로 인해, 각 가정에는 성경책을 갖게 되었다.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것은 교리 개혁 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루터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가정 예배는 시작되어야 하며, 가정 예배를 인도할 책임이 아버

103) Lyman Coleman, *The Antiquities of the Christian Church* (Andover and New York: Gould, Newman & Saxton, 1841), 376-77.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가정 예배”, 36-7에서 재인용.

104)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04-5.

105) 유혜무 외 6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생명의 양식, 2018, 24.

106) *Ibids.*, 24.

107) Kerry Pateck, 「아버지는 가정 목회자」, 김시완, 윤혜란 역,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19.

지들에게 있음을 인식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두었다. 오늘날에도 경건하고 독실한 가정은 누구나 자녀에게……경건한 삶을 가르친다. 따라서 그런 집은 사실상 학교이자 교회이고, 가장은 자기 집의 주교이자 제사장이다.”¹⁰⁸라며 부모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부모들로 인해 자녀들에게 신앙과 기도의 중요성을 쉽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각 가정마다 성경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으며, 1529년에는 자녀들을 위한 소교리문답서(小敎理問答書)와 성인들의 세례 교육을 위한 대교리문답서(大敎理問答書)를 작성하였다.

존 칼빈(John Calvin)은 “바울은 빌레몬의 식구들을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 식구들을 아주 잘 다스려서 그 가정이 교회와 같게 되며,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이 그의 아내를 것처럼 칭찬하는 것을 볼 때, 그녀 역시 그와 같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¹⁰⁹라고 말하면서 부모의 신앙적 책임을 강조하며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며 경건한 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다.¹¹⁰

존 낙스(John Knox)는 1556년 스코틀랜드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쓴 편지에서 낙스는 가정예배에 대해서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로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각자의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그러므로 그대들은 읽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갖도록 참여시켜야 합니다. 집집마다 적어도 하루 한 번씩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¹¹¹

유럽의 북서쪽에 위치한 나라인 스코틀랜드(Scotland)는 가정 예배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로서 이미 1647년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에서는 ‘가정 예배 규칙서’를 발간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은

108) Martin Luther, “Lectures on Genesis: Chapters 21-25,” *Luther’s Works*, ed.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MO: Concordia, 1964), 384.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가정 예배」, 39에서 재인용.

109) John Calvin, 「칼빈 성경 주석 10 (히브리서·베드로전서·베드로후서·골로새서·빌레몬서)」, 존 칼빈 성경 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연구원, 2012, 622.

110)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33.

111) John Knox, “A Letter of Wholesome Counsel, Addressed to His Brethren in Scotland, 1556” *The Works of John Knox* (Edinburgh: Banner of Truth, 2014), 4:137.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가정 예배」, 39에서 재인용.

다음과 같다:

가족의 통상적인 의무는 한자리에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 할 때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회와 국가와 가족을 위하여 간구한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문답식 공부를 한다.

또한 온 가족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다함께 대화를 나누며 가정은 가족 중에서 권면할 자를 권면하고 훈계해야 할 자를 훈계한다. 가정은 예배에 불참하는 식구가 없도록 감독하며 예배 순서를 인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리고 목사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나태한 신자들을 지도하고 나약한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생각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나약한 신자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익히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영을 분발시키기를 게을리 해선 안된다. 기도의 영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간절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게 하며, 가족을 위하여 중보하게 해준다.

우리는 무신론자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생업이나 그 외의 사유 때문에 가정 예배를 뒤로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드려야 한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공훈과 징계에 대하여 감사하자. 이로 인하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감사하다.¹¹²⁾

핵심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목사와 장로는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권면을 해야 하며, 각 가정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다음으로는 당회가 책망을 하고, 이후에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찬 정지로 시벌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1647년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과 1689년 제2차 런던 신앙고백을 통하여 각각 장로교와 침례교에서는 교리 진술로 가정 예배를 실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목사와 장로들이 각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할 때에,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며, 성경 말씀을 비롯한 기독교 교리 교육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던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가장 훌륭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든 장로교회의 공통된 교리 표준인데, 하지(A. A. Hodge)는 이 부분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12) James W. Alexander,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20-1.

“집회에서 드리는 공중예배 이외에 각 개인의 비밀히 단독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각 가정이 사사로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필수적인 의무이다. 은밀한 예배를 우리 주께서는 아주 분명히 명령하셨다(마 6:6, 엡 6:18). 이 의무를 이행할 때에 모두 단독으로 기도와 성경 읽기와 거룩한 명상과 진지한 자기반성에 시간의 얼마만큼을 드려야 한다. 이 의무를 양심적으로 다하는 데서 얻는 이점은 충분히 행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가정마다 행해야 하는 가정 예배는 보통 조석으로 드리되, 기도와 성경 읽기와 찬송가로 구성된다. 이 예배는 가장이 인도하되, 가족이 전부 참석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무도 필요 없이 어느 부분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기도와 찬송에 엄숙히 참석해야 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들은 아이들과 하인들에게 종교의 원칙들을 가르치도록 주의하라.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적당한 기회를 이용하라. 그러나 공중예배가 있는 후 안식일 저녁을 이 목적에 충당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일에 불필요한 사적 방문을 하는 것에 우리는 강하게 반대한다. 꼭 필요하거나 자선을 위한 것이 아니면 외인을 가정에 들여놓는 것이나, 그 밖에 일을 해서 위에서 말한 중요하고 필요한 의무를 방해하는 것에 우리는 강하게 반대한다.”¹¹³

영국의 청교도들은, “남편의 책임은 가정을 신앙적으로 이끌고,……원칙적으로 하루 두 번씩 매일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범사에 늘 절도 있고 경건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편은 기꺼이 시간을 들여, 자신이 가르쳐야 할 신앙을 먼저 배워야 한다”라는 가정 예배 모범을 중시하였다고 패커(J. I. Packer)는 전하고 있다.¹¹⁴

청교도들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 중에 가장 필수적인 제도로 여겼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려고 노력했고 거룩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생각했다.¹¹⁵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루어지는 성경 봉독과 찬양, 기도가 있는 가정 예배를 일상 생활에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필수요소로 여기면서 가정 예배에 대해 강력하게 강조하기로 유명하였다. 청교도들의 가정 예배 모습에 대해서 김광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청교도들은 하루의 일과를 통해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공적 예배를 드렸다. 개인과 가족 모두가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한 가정 예배를 드렸다. 맑고 신선한 공기, 따뜻한 햇살, 지난 밤의 평안한 휴식을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 드린 것이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저녁에 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청교도들은 전문적이든 비전문적이든 간에 그들의 모든 직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관찰로 귀결 되

113) Archibald. A. Hodge,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김중률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366.

114) J. I. Packer,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IL: Crossway, 1990), 270.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가정 예배」, 42에서 재인용.

115)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44.

어진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다.”¹¹⁶

잉글랜드의 청교도 설교자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가정 예배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난한 가정을 위한 교리서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교사와 청자(聽者)가 8 일동안 나눈 대화 형식 체이며, 짧은 교리서, 다양한 기도문과 주일에 부를 시편과 찬송을 담고 있다.¹¹⁷

“당신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라고 외쳤던¹¹⁸ 잉글랜드의 장로교 목사 메튜 헨리는 “가정이 주님의 집에 되면 그 때문에라도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매일의 말씀 묵상은 하루 중 가장 달콤한 즐거움이 되고, 가정 예배는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위안이 될 것이다. ……가정 속의 교회야말로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물이고 유산이다.”¹¹⁹라고 전하였다. “당신의 가정은 참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인가?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그 분을 위해 쓰임 받고 있는가? 천국의 아버지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될 것이다. 모든 근심을 던져 버리라.”¹²⁰라는 질문과 권면도 하였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침 예배는 특별히 찬양의 시간과, 그날에 필요한 힘 주실 것과, 하루 동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으로 삼고, 저녁 예배에는 감사와 회개, 그리고 밤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하였다.¹²¹ 청교도의 전통에 따라 아침과 저녁 기도회를 강조하면서 가정 기도회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그는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며 교회 개혁에는 가정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¹²²

116) Ibid., 145.

117) Richard Baxter, *The Poor Man's Family Book*, W. Orme, ed., *The Practical Works of Richard Baxter: with a Life of the Author and a Critical Examination of His Writings*, Vol 1 (London: James Duncan, 1830), 559-560, 유희무 외 6 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32 에서 재인용.

118) Matthew Henry, *The Complete Works of the Rev. Matthew Henry* (Grand Rapids, MI: Baker, 1979), 1:258.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가정 예배」, 44 에서 재인용.

119) Ibid.

120) Matthew Henry,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161.

121)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89.

122) Matthew Henry, *The Complete Works of the Rev. Matthew Henry*, 260.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가정 예배」, 44 에서 재인용.

미국 장로교 목사 알렉산더(J. W. Alexander)는 가정에서의 기도회를 시행하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각인시켰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가정 예배모범을 따라 개혁교회는 하루 두 차례의 가정기도회를 경건 생활의 기초로 보았다고 강조한다.¹²³ 렌츠(Richards E. Lentz)는 가정 예배란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선하심을 집합적으로 다시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족 공동체의 거룩한 대면(또는 만남)이라고 하였다.¹²⁴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하루를 개인 기도로 시작한 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겨울이면 촛불을 밝혀 가며 하였으며,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해 특별히 아침 예배 때마다 자녀들의 나이에 맞는 질문으로 성경 퀴즈를 내기도 하였다.¹²⁵ 찰스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은 가정 예배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건한 자녀를 기르고 싶습니까? 우리가 흠으로 돌아간 뒤에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 예배로 함께 모여 힘써 훈련시키십시오.”¹²⁶ “가정 예배를 통해 안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하겠다. 가정 예배는 경건의 도구이다”라고 하였다.¹²⁷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라고 말했다.¹²⁸ 청교도는 가정 예배를 가족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로 생각했다.

123) 유혜무 외 6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33.

124) Richards E. Lentz, “*Christian Worship by Families*” (St. Louis: Berhany, 1957), 8. 구재익, “기독교가정교육 실제로서의 가정 예배”, 「신학지평」, 제 28 집, 2015, 153-4 에서 재인용.

125) George M. Marsden, 「조나단 에드워즈 평전」, 한동수 역, 부흥과개혁사, 2006, 321.

126) C. H. Spurgeon, “A Pastoral Visit,” *Metropolitan Tabernacle Pulpit*, vol. 54 (London: Passmore and Alabaster, 1908; rept. TX; Pilgrim, 1978), 362-3.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가정 예배」, 51 에서 재인용.

127)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42.

128) Thomas Watson, *The Beatitudes* (1660;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1) 235. Joel R. Beeke,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257 에서 재인용.

3. 소결론

본 장에서는 가정과 가정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 장의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가정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살펴 보았다. 교회사 가운데서도 가정 예배는 신앙 생활의 기초이며 필수인 것임을 발견하였다. 가정 예배는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등장한 하나의 철학도 아니며, 한 시대를 유행하는 트렌드(trend)도 아니다. 지극히 성경적이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 양육서의 해답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기관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전수되며 믿음의 명문 자녀들이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제 3 장

가정 예배 활성화

1. 한국 교회 가정 예배 상황

한국 교회 초기에는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성경잡지’라는 책이 1918 년에 발간될 때에 발간호 제 1 권 1 호의 첫 페이지부터 가정 예배에 대한 설교문이 실릴 정도였다. 그 설교문의 내용은 “家庭禮拜(가정 예배)는 道德根本(도덕근본) 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一種特色(일종특색)으로 修身齊家(수신제가)의 요소로다”¹²⁹라고 하였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를 신앙이 형성되며 믿음이 성장 할 때 주 중요한 장소로 여겨왔음을 알 수 있다.

온누리 신문과 CGN TV(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공동기획으로 발표한 칼럼에서 한국 교회 가정 예배 역사에 대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회 가정 예배는 복음이 전해짐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79 년 만주일대 한인촌 일대에서는 성경을 사교파는 매서인들과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은 한인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 1884 년에는 만주의 압록강 연안에 있던 28 개 한인촌에서 세례교인 100 명, 세례 받기를 희망하는 남자 600 명 등 수천 명의 성도들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한다. 예배당과 예배 형식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선교사의 집 사랑방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 마포 삼열 선교사도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독려하려고 가정 예배 순서지 등을 제공했다. 신앙의 선배들도 독려했다. 1918 년 창간한 기독교 월간 <성경잡지> 창간호에서는 ‘재산 유무, 지위 고하 막론하고 가정 예배에 단결하라’며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무려 10 페이지나 게재했다. 1933 년 창간된 <감리회보> 7 월호에는 ‘가정은 공동숙박소 아니다’를 제목으로 가정 예배의 의미를 설명하고, 실제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이 실렸다. “아버지 된 사람은 흔히 여행하는 일이 많고, 집에 있다고 하여도 아침 일찍이 나가기도 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므로 가정 예배 인도자로는 부적당하다. 가정 예배는 주부가 인도할 것을 권한다. 또한 자녀들이 잘 부를 수 있는 찬송을 택하여 부르고, 기도할 때에는 어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되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할 것이며 어떤 때는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자.”¹³⁰

129) 고사죽(高師竹), “가정 예배”, 성경잡지 제 1 권 1 호(조선야소교서회, 1918), 1.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34 에서 재인용.

130) 온누리 신문 홈페이지 http://news.onnuri.org/m/board/board_view.php?Mode=I&BoardID=12&BoardSeqNo=16445&FileSeqNo=&FileNm=&ViewType=T&page=1&search_what=&keyword=&pagesize=undefined&SortOrder=Asc&mnuBookNumber=0. 2020 년 11 월 8 일 접속.

한국 교회의 신앙의 뿌리에는 가정 예배가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예배로 믿음을 전 수하며 신앙 성장에 힘써 왔다. 그러나 초기 한국 교회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회학교의 조직적인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조직적으로 교훈 할 교회 교육시설이 미비된 점과 성경 외에는 교재가 없었다는 점과 가르칠 수 있는 훈련 받은 지도자가 전무하였다.¹³¹ 1930년부터 해방까지의 형편은 교육에 대한 교재와 시설, 지도자의 부족이었으며, 해방 이후(1945년 이후)부터는 한국 교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옴과 함께 주일학교(Sunday School)를 교회학교(Church School)로 명명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일 한 시간만 교육하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한 주일 7일의 밤과 낮 전부가 교육시간이라는 뜻에서 바꾸어 놓은 이름이었다.¹³² 그러나 이것 또한 교육을 위한 인재와 시설, 교재들이 부족함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유입될 때에는 유교적 전통이 팽배한 시대에 사회와 가정은 교회를 반인륜적 집단으로 여겼기에 교회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베푸는 일은 생각조차 어려운 일이었다.¹³³ 당연히 교회는 가정을 소홀하게 여길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후 복음 전파를 외칠 때에는 이웃 전도와 세계 선교만 구호가 되었을 뿐 가정은 소외되어 버린 것이다.

김광덕은 교회에서 가정 예배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존 웨슬리(John Wesley) 어머니의 예를 들며 말하기를 “19 명의 자녀를 낳아 3 명을 목사로 세우고 특히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Susanna Wesley)는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 교육목사에게 회신하기를 ‘이렇게 좋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면 당신이나 내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무엇이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 죄와 벌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해보시오’라고 하였다.¹³⁴ 그리고, 수산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은 자녀들과 개별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경건한 습관을 가졌

131)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80.

132) Ibid., 183.

133) 박상진 외 4 인,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68.

134)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32.

기에 영국 전체의 영적인 부흥의 불씨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클리프 트 리처드(Cliff Richard)와 로이드 힐드브랜드(Lloyd Hildebrand)는 주장한다.¹³⁵

디모데전서 5 장 8 절에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한다. 복음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면 나의 가족에게 먼저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간수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처럼(행 16:28-34)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야 하며,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정 예배 상황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마다 구역 예배, 소그룹(small group) 예배, 셀(cell) 예배를 강조하는 것에 비하면 가정 예배에 대한 관심은 부족할 뿐이다. 특별히 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하향 추세이며 내적으로는 신앙적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앙적 쇠퇴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신앙을 가진 부모세대로부터 믿음을 전수받는 다음세대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이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현용수는 “한국 교회도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들처럼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자녀와 민족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증거다.”¹³⁶라며 신약의 기독교 교육에 허점이 있음을 반증하며 다음의 내용을 예로 들고 있다:

21 세기 교회성장연구원(원장 김홍기)에 의하면, 한국 교회 성장률은 60 년대는 207%, 70 년대는 125%, 80 년대는 25%, 90 년대는 8%미만으로 그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2006 년 5 월 25 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05 인구 주택 총 조사 접수 집계 결과(인구 부문)’에는 기독교인이 862 만 명으로 지난 10 년 동안 338 만명(36%)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이 유년 주일학교 증가율도 매년 줄고 있다. 예장 통합의 교회학교 학생수 만도 최근 6 년간 15 만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장 통합 통계위원회가 86 차 총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 년 10 월~1999 년 8 월 교회학교 학생수의 경우 유치부는 109,755 명이었으나 1999~2000 년 80,252 명, 2000~2001 년 78,642 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중·고등부의 경우 1998~1999 년에 238,030 명이던 학생수가 2001 년의 경우 197,871 명으로 20% 가량 줄었으며, 6 년 전의 264,467 명에 비해서는 30%인 7 만 명 가량이 줄어드는 등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5) Cliff Richards, Lloyd Hildebrand, 「자녀의 미래를 여는 기도」, 15.

136)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쉼마 1」, 47.

다.……미국에 있는 동포 교회들의 경우도 2 세 종교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동포 2 세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70%가 교회를 떠나고 대학을 졸업하면 90%가 교회를 떠난다. 그야말로 ‘침묵의 탈출(the Silent Exodus)’이다.……이것은 교회 교육과 가정교육이 90% 이상 실패했다는 증거다.¹³⁷

성인 중심의 신앙생활이 주된 사역으로 정착된 한국 교회의 현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정 예배가 처음부터 자리 잡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 급변하는 현대 생활권에서 시간을 내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유로운 시골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야 하며, 진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가정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의 경건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세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회복해야 하는 사명임을 인식해야 한다.

2020 년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에서의 예배는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 방역 지침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1-3 단계까지의 방역 수칙을 매일마다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¹³⁸ 그로 인해 각 교회 건물에 모여서 드리던 현장 예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감염 확산에 따라 소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때로는 비대면(非對面, Non-face-to-face)으로 미디어를 통한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몇 주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번의 계절이 바뀌게 되면서, 약 1 여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백신이 생산되려면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의학계의 가설들이 나오게 되자,¹³⁹ 각 교계와 연구기관, 목회자 등은 오직 가정 예배만이 대안이라며 붓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가정 예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대안이 아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변방으로 두신 적은 한번도 없으셨다. 가정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신앙을

137) Ibid., 46-7.

138)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2020 년 10 월 8 일 접속.

139)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026000700640>., 2020 년 11 월 9 일 접속.

계승하고,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셨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한 의무이자 축복의 자리이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제정하신 부부 관계와 가정의 원래 목적을 이루는 제도이다.¹⁴⁰ 특별히 신앙과 삶의 분리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 예배는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은혜의 수단(a means of grace)으로 기능할 수 있다.¹⁴¹ 그러하기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엡 5:17)라는 가르침에 따라 주께서 정하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

에스더 4 장 14 절에서,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한국 교회 각 성도들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을 위한 신앙이 계승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졌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대처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달랐을 것이다. 비록 교회 건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가정 예배로 일상화된 신앙 생활을 지켜 온 성도들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기쁨의 웃음을 지으며 에스더 4 장 14 절의 말씀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고백할 것이다. 각 가정 예배 마다 다시금 회복되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 생활이 성장하는 것은 방법과 문화와 시간 등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문제이다.

2. 가정 예배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

1) 부모 역할과 기능 상실

부모 역할(parenting)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

140) 유헤무 외 6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37.

141) Ibid., 92.

다. 부모는 자녀를 출산 한 후, 자녀의 정서와 성장, 교육, 인간 관계 등 모든 성장 발달과 사회적 관계 등을 필요로 하는 양육 과정들을 향상시켜 가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부모역할이다. 부모는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무성을 지닌다.

폴 트립(Paul David Tripp)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모의 역할에 엄청난 가치를 두신다. 양육은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지속적으로,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¹⁴²라고 말한다.

조엘 비키(Joel R. Beeke)는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임을 인용하며 제안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의 부모, 인간들의 죄악을 위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며 대리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부모,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충실해야 함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책임과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모의 모습을 이행하여야 된다”¹⁴³라고 말한다.

르매어(Lemaire)는 구약의 교육에서 첫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을 꼽으면서 자녀 양육의 1 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¹⁴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다. 가정에서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변하지 않는 창조 질서이다.¹⁴⁵ 그러하기에 가장의 책임은 자신의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이자 특권이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의 대접이 아니다. 부모, 특히 가장들의 역할 상실로 인해 오늘날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지 못하며 아버지의 부족한 사랑으로 인해 영적인 고아들로

142) Paul David Tripp, 「완벽한 부모는 없다」, 김윤희 역, 생명의 말씀사, 2019, 38.

143) Joel R. Beeke,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109-22.

144) Andre Lemaire, 'Educatio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Doubleday, 1992), p. 306. 김상훈, “성경에서 보는 가정 예배”, 「상답과 선교」, 36 권, 2002, 15 에서 재인용.

145) James W. Alexander,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40.

되어 버렸다.¹⁴⁶

가장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마 1:24-25, 눅 1:6, 행 16:31-34),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다스려야 한다(롬 5:1, 롬 12:18, 고후 5:18-19, 살전 5:12-13).¹⁴⁷ 가장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부모에게 주어진 것은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것이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마크 홀맨(Mark A. Holmen)은, “부모는 매일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준다. 자녀들은 부모 된 우리를 주시하며 배우고 닮아간다. 문제는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승하고 있느냐’이다.”¹⁴⁸라며 부모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않은 채, 자신만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화가 미칠 것에 두려워하기도 하였다(고전 9:16).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경건한 자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라 엘로힘’(רהג אלוהים)은 ‘하나님의 씨’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씨, 즉 경건한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것이었다.¹⁴⁹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음세대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할 수 있도록 증인 된 삶을 살도록 부모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마 28:18-20). 즉,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모델이요, 신앙의 교사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첫 번째 역할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부모가 가장으로서, 가장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가

146) Wolfgang Jimjon, 「가정 교회」, 황진기 역, 국제제자훈련원, 2013, 375-6.

147) 정명자,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아버지 역할”, 「광신논단」, 11 권, 2002, 448.

148) Mark A. Holmen,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김진선 역, 도서출판 토기장이, 2018, 61-2.

149)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스바냐·학개·말라기)」, 서울: 제자원, 2012, 451.

정의 가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며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만으로 그 어떤 위대한 위인보다도 큰 영향력을 가족들에게 끼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 장 13-16 절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말씀하듯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모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 조엘 비키(Joel R. Beek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나는 이전에는 마가복음 10 장이 유아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어머니들이 갓난아이를 예수님의 품에 안겨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들을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는 여성형이 아니라 남성형이다. 즉 언약의 자손을 양육하는 의무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똑같이 해당된다. 둘째, ‘어린아이’로 번역된 헬라어(파이다, παιδία)는 갓난아이에서부터 십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갈 4:1,2 참고). 즉 예수님 당시의 부모들은 모든 연령층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¹⁵⁰

그러하기에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을 가정의 가장이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맡긴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다.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남녀 두 사람이 합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지위는 영적 문제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의무인 것이다.¹⁵¹ 그 가장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승되고 믿음의 견고하게 세워지는 참된 신앙 양육이란 것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생물학적 부모는 살아 있을지 몰라도 신앙인으로서의 부모는 죽었다고 할 수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150) Joel R. Beeke,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92.

151) James W. Alexander,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45.

백홍영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신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부재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만들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교육을 시킴으로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¹⁵²

부모는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동자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¹⁵³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비롯해 삶의 풍요와 안락함만을 물려주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 가치관을 향해 달려가는 왜곡된 부모의 모습일 뿐이다.

목회와 일터의 현장에서 실패와 아픔을 겪을 수는 있다. 시간이 지난 후 삶의 선택과 노력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가정에서만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 전승의 후회와 아픔, 실패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신앙의 참된 진리는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 세상 재물 이전에 하나님이 우선임을 가정 예배를 통해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 자녀들의 학업 성적과 성공 여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홍성범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단순히 자녀들의 생계를 위하여 물질적 필요를 채워 주는 공급자(provider)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기술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교육자(educator)였다”라고 말한다.¹⁵⁴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다음세대들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 주일학교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정에서의 부모로 인한 신앙

152) 백홍영, “교육으로 만나는 목회: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 부모교육의 실제 01 가정예배가 살아야 한다!”, 「교육교회」, 제 430 권, 2014, 49.

153) Ron Hunter Jr, 「D6 DNA」, 박금주, 김치남 역, 48.

154) 홍성범, 「신앙전승운동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익산모산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42.

교육의 부재인 것이다. 가정에서의 교육에 대해 정명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정에서의 교육이라 하면 신앙교육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담당하고 가정에서는 도덕적인 태도나 버릇을 가르치고 학교 교육의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가정은 구약시대부터 가정에서의 교육은 신앙교육이 목적이며 내용이 되고 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가정과 사회의 교육 목적이 신앙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¹⁵⁵

가정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동체¹⁵⁶이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양육(Parenting, 養育)을 하는 것이지 사육(breeding, 飼育)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의 영혼은 건강한 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세상적 철학과 기준에 의한 잔소리를 늘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훈계를 하여야 한다. 가족 내 기도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가져야 한다. 세상의 복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한 축복 기도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성경적이며 건강한 가정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¹⁵⁷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제일 크고 첫 번째로 보여주는 사랑은 바로 가정 예배인 것이다.

2) 부모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1) 부모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의 부모세대를 통하여 믿음의 다음세대들을 세워 가셨다. 즉, 성경은 부모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의 세대가 바로 서는 것이 축복의 다음세대가 그들에게 허락되는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¹⁵⁸

155) 정명자,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아버지 역할”, 427.

156) 오인숙,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규장, 2010, 23.

157) 이향숙, “가정 예배가 가족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심리상담」, 제 1 권, 2009, 173.

158)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36.

신명기 6 장은 ‘쉐마’(שמע, 들으라)로 유명한 성경 말씀이다. 메튜 헨리에 의하면 ‘쉐마’는 신앙과 복종의 첫째 되는 원리를 포괄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 한다.¹⁵⁹ 특별히 신명기 6 장 4-7 절까지의 말씀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에서 여러 가지 진리를 발견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교육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명시해 주는 것이다.¹⁶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세대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부탁이나 제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세대를 제자 삼고자 하시는 신앙교육에 대한 명령이며, 시대를 초월한 교훈과 원칙이다.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롬 5:12)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롬 3:23). 죄인들인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뿐이다(롬 6:23).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들에게는 행복과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소멸해 주셨으며(사 53:5-6, 엡 1:7),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롬 5:10, 17-19). 죽음의 사슬에서 끊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벧전 2:24).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요 1:12).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자가 지녀야 할 근원적인 믿음과 자세가 이것이다. 이러한 바탕이 부모들의 삶과 신앙에 기본이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

159) Matthew Henry, 「성서주석 시리즈 (신명기)」, 박근용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9, 98.

160) 김만형, 「SS 혁신 보고서」, 서울: 규장문화사, 1998, 110.

다.

웨버(Webber)는 “오늘날 교회에 편만해 있는 암세포가 있는데, 그것은 곧 예배를 이해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¹⁶¹ 예배는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만족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주일날에 드러지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의무감에 그쳐서도 안된다. 인간들이 섬기며 예배를 드릴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여야 한다(출 24:1-8).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야 한다(요 4:23-24). 예배는 단순히 영적인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롬 8:14-16, 고전 12:3)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녀임을 고백해야 한다.¹⁶²

부모의 변화 없이는 자녀의 변화는 없고, 부모의 은혜가 없이는 자녀들에게 전해 줄 은혜는 없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림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 예배로의 은혜가 이어짐은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예배 습관이 형성되기만 하면 매주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양육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공적 양육의 현상이 되는 것이다.¹⁶³ 박상진은 가정 예배를 통한 하나님 경외에 대한 교육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녀가 여호와 경외를 배울 수 있는 장은 가정 예배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가르치는 교육의 산실이다.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한다. 기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 한다. 가정 예배가 이런 여호와 경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의 장인 것이다. 여호와 경외는 강의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경외를 경험함으로써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 가정 예배는 여호와 경외에 관해 (about)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이다……가정 예배는 하나님

161) Webber, Robert E. 1982.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김만형, 「SS 혁신 보고서」, 서울: 규장문화사, 1998, 110에서 재인용.

162) Paul David Tripp, 「완벽한 부모는 없다」, 김윤희 역, 생명의 말씀사, 2019, 76.

163) 이유정, 「성령의 지배를 받는 40일 예배훈련」, 도서출판 좋은나라, 2016, 17.

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다.”¹⁶⁴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도 자녀들이 참여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가족 중 어떤 한 사람이 참여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다.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가정 예배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은 나아가 주일날 교회 출석과 주일 예배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가정을 세우는 데에는 가정을 인도하고 다스릴 한 사람과 그 인도를 받을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할 뿐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만 있어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¹⁶⁵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하셨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녀들의 믿음과 인생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라는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부모로서 나아가야 한다.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라면 이제 삶 속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예배의 정신은 교회 건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2 장 1 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의 모든 부분들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참된 제사이다. 생활 속의 예배를 위해서는 성도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롬 12:2),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 된다는 것이다.¹⁶⁶ 부모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최악의 풍조가 아닌 하

164) 박상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18, 49-50.

165) Joel R. Beeke, 「가정 예배」, 61.

166)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성도의 신앙생활」, 121.

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종교 개혁 시대에 루터나 칼빈 같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온 자들이 외친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과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삶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

부모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 부모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믿음의 예배자로 세울 수는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을 것이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을 할 리가 없다. 믿음의 부모는 성경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델(model)이 되어야 한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신형섭은 카라 포웰(Kara E. Powell)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삶에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신앙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영적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이며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다. 그녀는 자신의 책 *The Sticky Faith Guide for Your Family* 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삶의 성장 주기(예를 들어, 사춘기,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졸업과 대학 진학 등)를 거치면서 신앙을 떠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장할 수 있게 부모가 도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포웰의 책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가 가장 좋은 견고한 신앙의 모델이 되라.
2. 자녀의 실수를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라.
3. 가정에서 경험하는 따뜻한 관계는 자녀 신앙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
4.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눈높이를 낮추고 그들에게 주목하라.
5. 가정 예배와 거룩한 대화는 자녀들로 자신이 신앙 공동체에 속했음을 알게 한다.
6. 신앙의 조부모세대는 자녀 세대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7. 부모는 다른 무엇보다 자녀 세대와 신앙에 대하여 대화하라.
8. 휴가 기간을 자녀들과 의미 있는 신앙 여행으로 만들라.
9. 가정 안에서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명을 실천하는 현장을 제공하라.
10.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자녀들이 신앙적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가정에서 도우라.¹⁶⁷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본인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본(本, example)을 보이셨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눅 11:1),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요 13:12-20),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요 18:1-11),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히 5:8-9), 모든 삶에서 제자들이 따를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셨

167) Kara E. Powell and Chap Clark, *Sticky Faith: Everyday Ideas to Build Lasting Faith in Your Kids* (Grand Rapids: Zondervan, 2011), 22.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80에서 재인용.

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경건의 본보기로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먹고 잠자며 살아가기에 혹이나 자녀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거나 마음의 상처가 될까 봐 노심초사 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조엘 비키(Joel R. Beek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은 완벽한 부모, 즉 ‘미안하다’라는 말을 단 한번도 하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신들을 무조건 사랑하며, 아내와 남편으로서 사랑으로 굳게 결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그들은 부모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엄마와 아빠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분들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분들이 가진 유일한 소원이다. 나는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모두 진실이고 사실이다. 나도 부모님을 닮고 싶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경건의 본은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삶이 참된 기쁨과 목적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확신을 불러 일으키며,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를 일깨워 준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경, 믿음, 기도, 가족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판단한다. 그들은 우리가 가족 예배를 진정으로 소중히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지 의무감에서 행하는지를 곁에서 지켜본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지, 또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핀다.”¹⁶⁸

부모가 가정 예배를 잘 인도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부모의 입에서 늘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이웃을 헐뜯고,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을 비난하고, 교만, 탐욕, 거짓말, 속임수 등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

고린도후서 5 장 15-16 절에서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어야 한다. 우리들도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3 장 15 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

168) Joel R. Beeke,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136.

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선언하듯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삶의 모습은 그 자녀들에게 어느덧 중요한 결정과 여정의 자리마다 선명한 인생 교과서요, 세상을 보는 강력한 렌즈가 된다.¹⁶⁹ 존 스토틀(John Robert Walmsley Stott)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빈약할수록 우리 제자도는 빈약할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풍성할수록 우리 제자도도 풍성할 것이다.”¹⁷⁰라고 하였다. 부모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닦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엡 4:13). 예수님께서서 우리들의 본이 되신 것처럼, 믿음의 부모가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다.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 편히 쉼을 누릴 수 있으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면서도 교육의 장소도 된다. 그 교육은 부모들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향한 부모들의 믿음과 신앙 생활이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그대로 전달된다.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 형성과 양육이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하기에 부모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과 함께 하는 가정 예배는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의 현상이 될 것이다.

(2)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오스머(Richard Osmer)는 “부모는 가정에서 교사로서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모는 그날과 연도의 복음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예식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의도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는 그들이 믿는 가치를 가르칠 수 있으며,

169) 신형섭, “가정 예배 세우기 2 단계: 가정 예배 기둥 세우기”, 『교육교회』, 458 권, 2016, 32.

170) John Robert Walmsley Stott, 『제자도』, 김명희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59.

가정생활의 지속적인 주고받음의 한 부분으로서 실천신학적 사고를 장려할 수 있다.”고 진술한다.¹⁷¹

자녀들은 부모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시편 127 편 3 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하듯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맡겨 주신 기업이며,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이다. 현용수는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선물, a gift of the Lord)’(시 127:3)이란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자녀의 근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창 17:7). 하나님의 선물(gift)이라고도 번역된 이 기업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나할라(nachalah)’인데, 이에는 ‘재산(property)’, ‘소유(possession)’, ‘유산(inheritance)’이란 뜻이 있다. 동사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산을 할당해 주다(portion or share)’란 뜻이 있다.¹⁷² 따라서 이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산을 부모에게 할당한 몫’이란 뜻이다.

둘째, 자녀는 여호와와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다. 시편 127 편 3 절에 나타난 ‘선물(기업, gift)’이란 단어를 히브리적 사고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산(a heritage from the Lord)’이라고 생각한다.¹⁷³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잘 보살피고 훈련시켜 장성한 사람으로 길러 내게 하시기 위함이다.¹⁷⁴ 자녀들에 대한 신앙 양육은 부모에게 엄숙하고 거룩한 사명이다. 현용수는 다 음세대들을 위한 신앙 전수를 위해 신명기 6 장 4-9 절의 ‘쉐마’를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하며, “쉐마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자녀교육”이라고 말한다.¹⁷⁵ 유대인들의 신앙고백인 ‘쉐마’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쉐마’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르치시는 신앙 계승의 방법이다.¹⁷⁶ 모세는 7 절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말을 조심스

171) Richard Osmer, *A Reachablr Soirit: Recovering the Teaching Office in the Church*,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230-1. 나삼진, “교육공동체로서의 가정과 그 교육적 역할 증진 방안”, 『복음과 교육』, 제 2 집, 2005, 196-7 에서 재인용.

172) Brown, Driver and Briggs, *Gesenius Hebrew-English Lexicon*, AMG Publishers, 1979. 635.

173)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 3」, 도서출판 쉐마, 2009, 100-1.

174) Joel R. Beeke,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40.

175)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 1」, 57.

176) 방미석, 「부모와 자녀간의 신앙 계승을 위한 효과적인 사역 방법」, (침례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97.

럽고 세심하게 돌에 새기면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 말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묘사한다.¹⁷⁷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기 위해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였으며, 만약 자녀들이 이 계명을 새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상속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¹⁷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자신, 그 대상에 대한 부모의 태도, 신앙 교육에 대한 명령, 교육에 대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신앙교육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¹⁷⁹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용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쉐마의 내용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즉 자녀에게 율법(말씀)을 가르쳐 ‘율법(말씀) 맡은 자’로 키우는 노하우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말씀의 제자 삼는 방법이다. 따라서 쉐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말씀의 제자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쉐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약의 지상명령을 더 구체화한 내용이다. 즉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구약의 지상명령이다.”¹⁸⁰

오인숙은, “쉐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내 이웃이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적인 책임을 수반한다.”고 한다.¹⁸¹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먼저 믿음의 세대로 세우신 다음,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이며 스승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비롯하여 교회사 전반을 보아도 부모의 믿음과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가정 예배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전수되었음을 볼 수 있다.

박상진은 다음세대를 위한 성경적 신앙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적 신앙교육에 ‘여경지근’의 원리는 다름이 아닌 잠언 1장 7절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뜻한다. 이 원리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177) Garnett Reid, 「D6 언약도」, 52.

178) Timothy Paul Jones,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 업선문, 박정민 역, 생명의 말씀사, 2014, 79.

179) 나삼진, “교육공동체로서의 가정과 그 교육적 역할 증진 방안”, 「복음과 교육」, 제 2 집, 2005, 194.

180)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 2」, 211.

181) 오인숙,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23.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는 경청할 줄 알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녀는 경청의 능력이 생긴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이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벧후 1:4), 그분의 성품을 닮게 된다. 넷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 다섯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는 ‘지혜’(wisdom)는 단지 지식이나 정보를 더 습득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 지혜는 모든 지식의 샘과 같아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수 많은 지식을 얻게 한다. 더 많은 지식을 쌓기보다 먼저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¹⁸²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 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인간들의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 것에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가 살아가는 삶이며, 존재방식이다. 특별히 김홍전은 죄 문제에 대한 자녀들의 징계도 부모의 책임에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는 잘 배우고 자라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바로잡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가정에서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이는 교회에서는 대체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그 터에서 징계하는 일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결코 가정만큼 이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도의 전달을 하기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가정만큼 이상적으로 소위 훈육(discipline)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느슨한 점, 방만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교회가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중요한 핵들로서, 그 핵들이 모여 가지고 거룩한 교회를 형성하는데, 교회의 목사나 혹은 교역자들이나 장로나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후생(後生)들에게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은 가정이 맡아서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는 거룩한 사랑의 정화를 가정이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¹⁸³

훈계와 책망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서 갖게 되는 은혜에 의한 회개를 촉발하는 것이지, 결코 책망하는 사람의 권위와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¹⁸⁴ 자녀들의 죄에 대한 가르침은 일반적인

182) 박상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 서울: 두란노, 2010, 19-35.

183) 김홍전, 「혼인, 가정과 교회」, 101-2.

184) 장대선, 「교회를 세우는 가정 예배」, 고백과 문답, 2017, 63.

한계와 책망과는 근본적으로 구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만이 갈 수 있는 천국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속죄함과 부활, 거듭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라고 알려주신 도덕법도 가르쳐 주어야 하며, 복음을 우리들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에는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하는 것이다. 신앙 유산을 전수하지 않은 결과는 다른 세대의 출현이었다. 이 말씀처럼 부모의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 주일학교의 비극인 것이다.

솔로몬의 잠언 중 이러한 말씀이 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폄오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잠 4:4-9). 솔로몬이 지혜의 왕(왕상 4:30)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지식적인 가르침으로만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성경으로 익혀온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적 가치관을 잘 표현해 줄 것이다.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의 토대 위에 형성되는 신앙과 성품, 삶의 모든 행위들을 지도하며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성경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열어주어야 한다.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해 주고, 자녀들의 성장과 발전에는 무관심

하거나 중립을 지켜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가정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지켜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명령해야 한다.

디모데에게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본 세상과 삶에 대한 의미들은 디모데에게 참된 교과서가 되어 준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도록 부모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자녀들에게 외적인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는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며, 진정한 복종의 태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¹⁸⁵

가정 예배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잔소리만 들리게 하는 신앙 교사만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녀들의 첫 번째 교사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첫 번째 제자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닮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한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양육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을 에브하르트 플라테(Eberhard Platte)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래 서구 문화권에서는 가정교육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였습니다. 루터나 근대 교육학의 선구자인 체코의 코메니우스 등이 학교 제도 분야에 쏟아 부은 노력을 헤아려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가정교육의 임무를 국가에 떠넘겨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세대는 더 이상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인본주의, 계몽주의, 가치의 상대화, 무가치주의의 세계관을 삶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구 기독교 사회가 몰락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의 도덕적·윤리적·문화적·종교적 타락의 근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¹⁸⁶

기독교연합신문이 주최하고, 사랑의 교회가 공동주관한 중·고등학교 종교의식 조사 결과 발표 세미

185) Joel R. Beeke,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182.

186) Eberhard Platte, 「거룩한 부담, 자녀양육」, 14-5.

나에서 “한국교회 10년을 준비한다: 미래 교회의 희망, 청소년”이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천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2014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조성돈 교수의 “청소년, 그들의 신앙과 세계”라는 주제 발표에 따르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가 47.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외에 교회친구/선후배 12.0%, 목사님/전도사님 11.9%, 아버지 9.8%, 학교친구/선후배 5.3%, 교회학교 선생님은 2.8%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신앙생활을 이루는 것은 제도적 영향력보다도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 의한 것이란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가정의 신앙생활, 특히 부모에 의해서 전수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⁷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에서 주최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에서 오정호 목사의 “인재양성 미래 전략: 교회가 키워야 할 미래형 인재”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담임교역자, 부교역자,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등 교회학교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중점 과제’를 설문조사하였는데(2017년, 총 9,827명), 담임교역자, 부교역자,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모두가 가정 연계 교육 강화가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교육 강화, 전문적인 사역자 확보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¹⁸⁸ 이것은 교회 교육 현장에서도 이미 가정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나 조직, 물질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는 약속도 주셨다.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 새로운 세대의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삶을 전달하는 것(life transfer)과 관계된다.¹⁸⁹ 부모는 자녀들에게 삶과 신앙, 모든 부분에 경건을 훈련시켜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모범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통과 환란이

187) 조성돈(2014). 청소년, 그들의 신앙과 세계. 기독교연합신문 창간 26주년 기념 2014 중고등학생종교의식 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한국교회 10년을 준비한다 미래 교회의 희망, 청소년”, 7-8, 6월 30일, 서울: 사랑의 교회.

188) 오정호(2017). 인재양성 미래 전략: 교회가 키워야 할 미래형 인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 161, 8월 17일, 서울: 사랑의 교회.

189) Wolfgang Jimjon, 「가정 교회」, 366.

있을 때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히 4:16)를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감사와 행복이 있을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고후 5:7-9)을 보여 주어야 한다.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모의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자녀들의 경건은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루터는 학교와 교회의 교사가 맡을 수 없는 부분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담당해야 된다고 강조함으로 부모들에게는 통치자, 감독, 목사, 설교자, 교장 교사 등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다고 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다.¹⁹⁰

그러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교사가 되려고는 하지 않은 채, 다른 성도들에게는 리더가 되려고 하고, 주일학교에서는 교사로서 섬기려고 한다. 자녀들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서 자녀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기도를 하는 그 영광스런 기쁨을 다른 이들이 맛보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다(시 127:3).

일반적으로 ‘상속’(相續, **Inheritance**)이라고 하면 부모가 죽은 다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성경에서의 상속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룩한 경영을 부모에게 맡기신다는 의미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후사로 세워 신앙 계승을 전수해야 한다. 미국 남침례신학교 디모테 폴 존스(**Timothy Paul Jones**) 교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사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부모들이 가정을 신앙의 훈련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전쟁 같은 삶 속의 벙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간과하는 것은 자녀를 준비 없이 전쟁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성경과 2,000년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 부모의 책임이 단순히 자녀를 교회학교에 잘 보내는 것으로 마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믿음의 부모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리더로서 자녀의 삶의 주기(**life of passage**)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을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¹⁹¹

190)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88, 167-8.

191) Randy Stinson and Timothy P. Jones, *Trained in the Fear of God: Family Ministry in Theological, Histor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Kregel Academic & Professional, 2011, 14-5.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40. 재인용.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한다. 찰스 핫지(Charles Hodges)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예를 들면서 “기독교는 유일한 참 종교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유익한 교육 수단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일 수 밖에 없다. 주님이 규정하고 공급하신 것을 교훈과 훈련의 모든 과정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그분의 권위가 자녀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¹⁹² 제임스 알렉산더(James W. Alexander)도 가정 예배를 통한 자녀 양육에 대해 이렇게 충고한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려면 가정 예배가 필요하다. 당신이 해야 할 의무는 이제 진리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들을 다루기가 쉬울지는 모른다. 그들은 부모의 말에 공손히 순종하고 곁에 앉아 기도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식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가정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들은 금방 세상 길로 나아가고 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가족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 사랑하는 자녀가 흡니와 비느하스처럼 타락하지 않게 하려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¹⁹³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신체적, 감성적, 그리고 지성과 영성 등 모든 부분에서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부모의 책임은 끊임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협력자나 조력자가 되어서도 안된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위탁을 받은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거룩함이 권위를 받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¹⁹⁴

내 자녀의 믿음에는 부모가 교사로 세워진 것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창세기의 다양한 가정 예

192) Charles Hodge,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London: Banner of Truth, 1964), 360. Joel R. Beeke,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128-9. 재인용.

193) James W. Alexander,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175-6.

194) *Ibid.*, 35.

배의 현장도,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도,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과 청교도의 예배도 이러한 부모의 회심과 가정의 신앙 교사로서의 자아정체성과 실천의 걸음이 그 합당한 터가 되어 가정 예배는 그 위에 세워져 왔다.¹⁹⁵ 히브리 민족은 남다른 수난의 역사 가운데 국가와 국토를 잃고 노마드(nomade)적 삶을 살았으면서도 역사 속에서 히브리 민족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가정의 종교교육의 틀 위에서 그들의 신분을 계속 확인하고, 유지해 왔기 때문이었다.¹⁹⁶

믿음의 부모세대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신앙의 스승으로 함께 자녀들과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인간들에게 보금자리로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교육의 장소로도 허락하셨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시간과 정열을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규칙이나 행동 습관 등을 일방적인 주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신앙의 모델을 제공해주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삶을 부모가 모델이 되어 주는 것이다. 가정 예배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현장이며 이 교육 현장을 통해 부모는 신앙을 가르치고 자녀는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즉, 신앙이 전수되는 통로가 되어 준다.¹⁹⁷

(3) 자녀와 소통해야 한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으로 온전히 계승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신뢰, 친밀감이라는 수평적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자녀들의 연령이나 문화, 학습 능력 등에 따른 것을 고려하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이란 원래 ‘공유, 공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원은 라틴어 ‘Communis’인데 ‘나누다’,

195) 신형섭, “가정 예배 세우기 1 단계: 가정 예배 터 닦기”, 『교육교회』, 457 권, 2016, 33-4.

196) 김경례, “기독교 가정교육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1.

197) 유희무 외 6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82.

‘고유하다’, ‘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사소통은 서로가 대화를 통해 영향을 주고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고 나아가 사람이나 동물 등의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해 서로 메시지와 정보를 전하고 수신하면서 서로의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¹⁹⁸

아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라고 말한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인격적인 소통에는 역시 대화이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사랑과 진중한 태도로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부모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교육은 내용을 떠나 본질적으로 상호적 대화 성격을 지녀야 한다.¹⁹⁹ 일방적 대화가 아닌 상호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 형성과 교육 전달은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족들은 대부분이 분주하게 살아간다. 맞벌이 부부로 인해 부모들은 일터에서 바쁘다.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설정해 놓은 매일의 계획표 대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부모들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얼굴만 보고 형식적 인사만 나누고 지나칠 때도 있다. 서로의 바쁨으로 인해 식탁에서 앉아있는 시간도 다를 정도이다. 서로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다고 해도, 부모와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최빈치는 30분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행정안전부에서도 통계치를 발표하였다.²⁰⁰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와의 이상적인 대화 시간의 최빈치는 1시간 정도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볼 때 대체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²⁰¹ 그러다 보니 현대의 가족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간의

198)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上」, 서울: 세영사, 1976, 18-26.

199) 박상진 외 4인,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91.

200) 행정안전부 온나라정책연구 프리즘(PRISM)

http://www.prism.go.kr/homepage/many/retrieveManyDetail.do;jsessionid=08C5FEFAF37958B3949A4EB643E83889.node02?research_id=1371000-201400166. 2020년 10월 7일 접속.

201) 구현정,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가정 내 대화법”, 「국립국어원」, 2014, 109.

대화는 피상적인 대화만 오고 갈 뿐 깊은 대화를 나누지를 못하는 상태이다.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정작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인 것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에는, 급변하는 사회, 개인별 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관계 단절, 세대간 소통 방식의 단절 등 다양한 것들이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가정에 담을 쌓게 해서 안 된다. 부모와 자녀간에 소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론 헌터 주니어(Ron Hunter Jr)는 부모와 자녀의 소통에 대한 단계를 3 가지 원리로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고 있다:

모래성,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의 개념으로 비교해 준다. 1 단계는, 모래성으로서 기본적인 대화 수준의 단계이다. 간단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단계이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하루는 기분이 어떠니?”, “오늘 중요한 일은 무엇이니?” 등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주고 받는 수준으로 하면 된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로 만족하는 것이다. 서로간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유발할 상황이 없다.

2 단계는, 스노클링 단계로서 좀더 깊은 대화의 수준을 나누게 된다. 작은 갈등이 유발할 수도 있다. 자녀의 모든 인생 가치관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와 감정들에 대해 자녀 스스로가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일방적 감정이 아닌,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다.

3 단계는, 스쿠버 다이빙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간의 서로의 속마음을 허물없이 나누며 깊은 대화의 관계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의견에 대한 갈등과 충돌 상황은 빈번할 수도 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들에 대해 부모의 조언과 감정, 의사 전달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행동으로 자녀들이 반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가치관 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와 소통은 필수적임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²⁰²

부모와 자녀들간의 의사 소통 이후의 영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난다. 그러하기에 가정 예배는 부모들의 일방적 권위를 내세워서 인도하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되며, 자녀들에게 훈계 또는 잔소리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에베소서 6 장 4 절에서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신다. 부모가 사랑과 인내의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들이 고민

202) Ron Hunter Jr, 「D6 DNA」, 197.

하고 있는 문제들과 아픔들, 그리고 행복에 대한 문제들을 부모 앞에서는 어려움 없이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기만 하여도 그것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통만 되어도 부모의 권위와 존경은 자녀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과 소통을 한다는 목적으로, 소통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주의해야 한다. 훈계나 비난, 판단, 명령, 분석, 비교, 위협, 거짓말, 욕설과 비속어 등으로 소통을 나눈다면 오히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부정적인 효과들만 낳게 된다. 부모는 적극적인 경청과 의견 수용, 유머 사용, 긍정적인 대안 제시의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 특별히 잠자리에서 가지는 소통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주는 효과가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잠들기 전,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는 친밀감을 높여 줄 뿐 아니라 자녀의 마음 상태나 숨겨진 스트레스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²⁰³ 이것은 부모들이 알지 못하였던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위로해 주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된다. 특별한 하루를 ‘감사의 날’, ‘축복의 날’, ‘위로의 날’ 등의 제목을 붙여서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되 그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달지 말고, 감사와 축복과 위로의 말들을 주고 받는 것도 소통의 큰 기쁨이 된다.

가정 예배 시간에 가지는 축복의 시간은, 주일 예배시간에 교회에서 하는 축도와는 다를 것이며, 다만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에게 복을 대신 빌어주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함으로 가정에서 가족 간의 참된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이다.²⁰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더욱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시 1:1-3) 부모들은 자녀들의 지혜로운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정원사는 자신의 시간에 따라 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꽃 피는 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인내한다. 어떤 꽃은 봄에, 어떤 꽃은 여름에, 어떤 꽃은 가을에, 어떤 꽃은 겨울에 핀다는 사실을 알기에, 꽃이 피는 시기를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²⁰⁵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따른 부모들의 이해와 용납으로 함께 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정

203) 박상진 외 4인,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93.

204) 주준태 외 6인, 「야곱의 식탁」, 도서출판 생명의 양식, 2018, 29.

205)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51.

예배 참석에 대해 강요나 압박을 주는 대신에 자녀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과 인내로 지켜보아야 한다.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것처럼 사랑과 용납으로 자녀들과 함께 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들을 존경과 감사함으로 함께 할 것이다(눅 15:11-32).

자녀와의 소통은, 문제를 찾으려 하고 정답을 알려주고자 소통을 하면 안된다. 자녀들의 전달하는 대화에 함께 공감할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먼저 무시하거나, 훈계로 다가서서는 안된다. 자녀들도 하나의 귀한 인격체들이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도 언어의 폭력, 감정의 폭력, 무표정의 폭력 등을 행사할 때가 많다. 이것은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자녀들의 성장기에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된다. 때로는 소통하자 마자 참된 해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끝까지 자녀들을 배려해 주면서, 그들의 하는 얘기를 경청하며 공감해 주며 인격적인 관계의 존중됨을 보여주며 소통을 나누어야 한다. 부모의 의지와 성격은 자녀의 의지와 성격의 틀이 된다.²⁰⁶ 부모의 인내와 섬김, 성격과 습관 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인격에도 보이지 않게 형성되어 간다. 자녀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과는 달리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진실함 대신에 불신과 원망, 지루함과 회피하고자 하는 효과만 남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3. 가정 예배 시행을 위한 방안

1) 부모의 사명이 중요하다.

가정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들일수록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남편들이 가정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들어 한다. 한국인들의 1 주일의 근로시간은 오래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²⁰⁷ 대부분의 남편들은 과도한 직장 업무로 인해 이른 시간에 가정으로 귀가하지 못한다.

206) Horace Bushnell, *Christian Nurture*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9), 29. 박상진 외 4 인,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94 에서 재인용.

207)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14_OECD., 2020년 10월 1일

더군다나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가 함께 일찍 귀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루 종일 근로에 지친 남편들은 집으로 퇴근하게 되면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 그 상황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 먼저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본 연구자가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30, 40 대 남성들과 소그룹 모임을 함께 하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솔직한 마음들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 시간에 어떤 남성 성도는 일터에서 업무를 마친 후 피곤해서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귀가하고 싶었지만, 귀가 후 가정 예배를 인도하며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과 피로감에 집 앞 놀이터에서 자녀들이 잠잘 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가정으로 들어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침실에 들어갈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부모가 되는 것보다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놓쳐버린 채 부모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어떤 부모들은 교회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면죄부를 가지려고 한다. 자녀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에게 주신 것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 원인자는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의 주체와 책임자는 인간이다.²⁰⁸

기독교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여야 한다. 신앙 전승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부모세대에서 가진 믿음을 자녀에게 계승해 주는 교육과 훈련은 어느 한 순간이나 특정한 시기에만 시행하고 그칠 것은 아니다. 가정은 자녀의 영적 훈련을 위한 중요한 장소이고, 모든 부모는 자녀의 신앙과 영적 훈련을 위해 부단히 관여할 책임이 있다.²⁰⁹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훈련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은 제자훈련의 최적의 장소이고 가족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최상의 도구다.²¹⁰

접속.

208) 유혜무 외 6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48.

209) Timothy Paul Jones,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 46

210) Ibid., 73.

가정 예배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현실적인 사회적, 시간적 문제들은 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 어려움의 문제들은 각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훈련 프로그램들이나 교육, 자료 등을 통하여 인도하면 된다. 부모로서의 사명감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신앙적 양육과 성품과 가치관 등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세워질 것을 기대해야 한다.

김제희는 “결국 세대 간 신앙 전승의 핵심에는 부모가 서 있다. 이 때문에 부모가 먼저 ‘가정이 교회다’라는 자기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세우신 언약 공동체가 ‘가정’인 것을 인식함으로써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사명’을 확인해야 한다.”²¹¹라며 부모의 사명에 대해 말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공동체이다. 가장 기본조직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가정이 성소가 되며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다. 부모도 원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인지라 힘들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의 순간들을 비롯하여 부모들이 간직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정 예배 시간에 먼저 가족들에게 나누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이 시간을 통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부모의 신앙을 배우게 되며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가지게 된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가정 예배가 다음세대의 신앙에 진정한 핵심 요소가 된다.

자녀들은 부모의 욕심과 대리 만족 등을 위해 키우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시 127:3-5). 자녀들의 영성을 비롯해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에 바로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다음세대의 신앙의 책임은 교회의 교역자, 교사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 주셨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이며 제일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211) 김제희, 「세대 간 신앙 전승 경험 네러티브를 통한 교회로서의 가정 선교 모델 연구」,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실천신학 박사학위 논문, 2018), 73.

2) 가정 예배를 구성하는 3 요소

피터슨(Peterson)은 예배의 중심 개념을 경의(敬意)의 표시(homage), 섬김의 예(service), 경외(敬畏)의 마음(reverence)으로 보았다.²¹²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것을 담아서 높여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는 찬양과 말씀, 기도가 주 핵심요소이다. 가정 예배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제리 마르첼리노(Jerry Marcellino)는 성경(Scripture), 간구(Supplication), 노래(Song)라는, 3S 를 이용하여 가정 예배시간에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²¹³ 밀러(R.C. Miller)는 “가정 예배에 대하여 가정에 따라 약간의 특색이 있을 수 있으나 예배 순서의 중요부분을 삭제하거나 생략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였다.²¹⁴

현재 각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빠지지 않는 요소가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 찬양이다. 가정 예배에서도 이 3 가지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진행된다면 예배를 드리는 점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주된 통로이며,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응답의 주된 수단이다.²¹⁵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로 인해 우리에게서 표현되는 응답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 예배인 것이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에 기초를 하되, 나머지 유익한 요소들은 가족들과 합의 하에 결정 내리면 된다.

특히 신형섭은 가정 예배를 디자인 할 때 엘리엇 아이즈너(Eliot Eisner)가 제안하는 3 가지 커리큘럼을 균형 있게 설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아이즈너는 교육적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커리큘럼을 구분하고

212) David G. Peterson, ‘Worship’,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Leicester: IVP, 2000), pp. 855-6. 김상훈, “성경에서 보는 가정 예배”, 『상당과 선교』, 36 권, 2002, 7 에서 재인용.

213) Jerry Marcellino, *Rediscovering the Lost Treasure of Family Worship* (Laurel, MS: Audubon Press, 1996).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가정 예배』, 58 에서 재인용.

214)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2009, 73.

215)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98.

그것을 명시적(explicit), 암묵적(implicit), 영적(null) 커리큘럼이라고 명명했다.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이 메시지는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성경책이나 성경 이야기나 간증 혹은 상징물과 같은 요소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의 분위기, 서로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 배경 음악, 촛불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도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정 예배 안에는 영적 요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요소란 소위 ‘신령한’(spiritual) 어떤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배제시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서의 ‘영적인’(null)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가정 예배 시간이 종종 자녀를 향한 훈계하는 시간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부모가 의도적으로 훈계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뜻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영적인 요소를 고려한 가정 예배의 디자인과 실행의 한 사례다.²¹⁶

예배에서 중요한 기본 요소들을 포함하되 각 가정에 맞는 예배 형식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족, 부모가 없이 조부모들과 자녀들만 있는 가족, 편부모 가족, 불신자가 포함된 가족, 시간 활동이 불규칙적인 가족 등 모든 가족들이 다양한 가족일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게 디자인하면 된다. 본인의 가족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며,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가족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다양한 제목들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로 능력 있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1) 성경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근원으로 삼는 계시 신앙이다. 성경 속에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분은 우

216) Eliot W. Eisner,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85), 74.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100에서 재인용.

리 안에 거하신다(요 1:14). 성경 말씀은 완전하여 지혜로움을 주시고(시 19:7),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허락하신다(시 46:1-3, 잠 16:9).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인간들의 품은 생각마저도 드러나게 하시고(히 4:12), 억눌리고 갇힌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신다(시 146:7).

시편 119 편 105 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포함하는 내용 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준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시 117:2).

메튜 헨리는 “성경은 당신의 집에 꼭 있어야 한다. 당신의 집에 성경책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빵이 없는 게 더 낫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안에 성경책이 있는데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율례와 복음을 집에 두고도 마치 케케묵은 골동품 취급을 한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이다.”²¹⁷라고 하면서 가정에서의 성경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의 편의에 따른 요구와 반복적인 가정 예배의 식상함 등으로 인해 성경 읽는 것을 지나쳐 버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된다. 가정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은 가장 기본이며,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읽음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벧전 2:2, 벧후 3:18).

디모데후서 3 장 15 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하신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죄성을 가진 연약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 말씀이 없는 가정 예배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빠져 버린 가족 친목 모임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매번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지 않아도 좋다.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순서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217) Matthew Henry,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40-1.

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오직 말씀이기에,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구조로 인하여 자녀들의 삶도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학교에서의 생활을 마친 후에도 성적 지향주의 구조에서 살아남고자 여전히 자녀들은 학원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밤 늦은 시간까지 학업에 매진하게 된다. 1 주일을 췌바퀴 돌 듯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정작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주일 예배 30 분에서 1 시간이 전부이다. 짧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임에도 성경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피곤에 지쳐 즐거나 스마트폰으로 여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접속하기만 한다. 자녀들에게 성경이 차지하는 시간은 거의 전무한 것이다. 또한 현대인들은 입으로 드러나게 가르치는 것보다 은연중에 가르치는 도덕적 감화를 더 신뢰하고 진리보다 인격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²¹⁸ 이러한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평생의 소중한 순간이 된다.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순응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읽은 말씀을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목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에베소서 6 장 4 절에서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다. 주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에(히 4:12)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육할 때에 자녀들의 영혼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 에버하르트 플라테(Eberhard Platte)의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율법과 역사에 대해 물어올 때 대답해야 했습니다.”²¹⁹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며 양육하는 것을 부모의 제일 귀중한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연구자도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가기 전, 가정 예배시간에 시편 23 편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218) James Smart,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239-40. 이정관, “현대 가정의 변화가 가정에서의 청소년 기독교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안”, 『신학과 실천』, 제 27 호, 2011, 287 에서 재인용.

219) Eberhard Platte, 「거룩한 부담, 자녀양육」, 184.

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시 23:1-3).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가는 여정 길목에 푸른 잔디가 펼쳐진 리조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멋진 리조트의 풍경을 가족 사진에 담고자 가족 모두가 차량에서 내려 사진을 찍을 때에, 자녀들이 입술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묵상하였던 시편 23 편의 말씀이 펼쳐진 것 같으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적용을 통한 훈육을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성인들이 신앙 생활을 하다가 훗날 죽음의 순간을 마주할 때까지 성경 66 권을 다 읽어본 사람이려면 참으로 복된 일이다. 성경책 순서대로 읽어도 좋다. 연대기로 읽어도 좋으며, 현대어로 이해하기 쉬운 글로 번역해 놓은 성경책으로 읽어도 좋다. 가족이 함께 성경 읽는 순서와 분량 등을 정하여서 읽기도 하며, 가족 중 한 사람이나 아니면 서로가 함께 읽어도 무방하다. 때로는 어린 자녀들이 서툴게 성경을 읽더라도 아낌없이 격려해 주며 가족간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도록 한다. 가정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읽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 된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때로는 성경을 가족이 함께 연구하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행전 17 장에 등장하는 베뢰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공부하였다고 한다(행 17:10-11). 물론, 목회자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할 시간이나 그에 따른 소양이나 지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몇 가지만 준비한다면, 말씀 나누는 시간이 더 풍성해 질 것이다.

먼저 부모들이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구절이나 단락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어떠한 배경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자 적용하고 고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나의 삶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회개와 감사, 깨달음에 따른 삶의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까지 나아간다면 매우 유익한 나눔이 된다.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나, 어

편 인물에 대한 칭찬, 어떠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성품과 놀랍고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고 나누어야 한다. 한 구절부터 시작해도 좋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 벗어나 좀더 깊은 성경 지식을 연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범사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다(엡 4:14-15).

또한, 성경 각 권을 정하여서 통독을 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함께 암송을 하여도 좋다. 여운학은 성경 암송에 대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나의 마음 판에 새기는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말씀이신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것”²²⁰이라고 하면서, 성경 암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 처해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나 어두운 곳에 있을 때나 두려울 때나 걱정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경책과 가르침을 받고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습관을 익히면 평생토록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며 자신감, 겸손함, 집중력, 감화력, 창의력,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넷째, 올바른 인격과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갖추므로 남을 돕는 자, 상담자, 지도자, 목회자의 자질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경 암송과 묵상으로 태교의 영향을 받은 아이는 심성이 평온하여 잘 웃고 낮을 가리지 않으며, 어쩌다 울음을 터뜨려도 금세 방긋 웃고 잠을 잘자는 것은 물론, 예배시간에는 우는 법 없이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여섯째, 주부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면 부부 관계가 원만해지며 그로 인해 화기애애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절로 너그러운 성품을 갖게 됩니다. 일곱째, 좋은 습관이 이어지면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으므로 성경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²²¹

주일 예배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각 개인이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나누어도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또는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각종 테블릿, 노트북 등에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경 듣기를 하는 것도 좋다.

신명기 6 장 4 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며

220) 여운학,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규장, 2006, 32.

221) Ibid, 33-4.

듣기를 강조하신다. 나의 관념과 사상과 상황에 골몰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 누가복음 8 장 18 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고 하시며, 잠언 15 장 31 절에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경청하며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훈련도 중요하다

(2) 찬양

시편 150 편 6 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하며, 이사야 43 장 21 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한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칭찬하고 존경하는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과 감사함, 흥분과 자랑스러움 등을 자연스럽게 올려드리는 인격적인 반응이다.

성경 곳곳에서는 찬양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 즐거울 때나 기쁨 때나(약 5:13), 슬플 때나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시 119:164, 행 16:25). 어떠한 상황이나 순간이라 할지라도 찬송 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다. 시편 22 편 3 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고 하신다. 우리들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 은혜를 가정 예배 가운데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드리는 찬양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임 시간의 찬양보다는 형식에 있어서 자유롭다. 단조롭기 그지없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 형식과는 달리,²²²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가족만이 누리는 편안함으로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주일 예배시간에 부르는 찬양은 다양한 악기의 반주에 맞춰 모든 회중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때로는 인도자에 따라서 부르기도 하

222) Robert J. Banks, 「1 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신현기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75.

며,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은 화려한 연주가 가능한 악기도 없으며, 아름다운 화음과 목소리로 높여드리는 찬양대도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교회의 회중들과 함께 드리는 것보다는 서로간의 친밀도는 높다.

주일 예배와는 달리 형식도 고정적이지 아니어도 무방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노래하여도 좋으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도 좋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한 절망 속에서도,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수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을 드린다.

가족들이 함께 즐겨 부르는 찬양도 좋다. 가족 구성원 중, 희망하는 찬양을 불러도 된다. 때로는 장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을, 때로는 어린 자녀가 출석하는 주일학교의 찬양들을 불러도 좋다. 서로가 돌아가며 찬양을 하기도 하며, 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깊이 묵상하여도 좋다. 어떠한 찬양을 부르더라도,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각자 믿음의 고백대로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합창을 함께 합창을 하거나, 독창을 하면서 다양한 형식을 구성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찬양 시간에 다양한 악기를 동원할 수만 있다면 좋다.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실력도 없고, 연주하지도 못하겠지만, 악기와 함께 찬양을 드린다면, 찬양 시간이 더 풍성해 질 것이다.

찬양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다른 교육의 수단이 된다. 때로는 찬양 가사에 따라 율동과 함께 하거나 수화로 찬양을 드리는 등 풍성한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다. 가정 예배시간에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의 입술의 열매를 가득 맺어지게 될 것이다(히 13:15).

(3)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자세와 간절함을 볼 수 있다.

리차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의 본향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다”²²³라고 하였다.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강조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를 함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고(마 4:1-11),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를 하셨다(눅 6:12-19).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도 기도를 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는 계속 이어졌다(요 17:1, 눅 23:34).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쉼 없이 기도하고 있으신다(히 7:25).

기도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호흡과도 같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듣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 않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미혹을 한다(엡 4:26-27). 기도를 강조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고단하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였지만 한 명도 깨어 있는 이가 없었다(마 26:40).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되고, 제자들의 삶은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다(행 2:1-13).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7 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쉬지 말고’는 ‘아디아레이프토스’(ἀδιαλείπτως)라는 단어로써 바울이 기도와 감사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교훈하는 문맥에서만 4 회 사용한 단어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함 없이, 극한상황에 이를 때에라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²⁴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이다.

로마서 12 장 12 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하셨는데, ‘프로스카르테레오’(προσκαρτερεω)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도 고수하거나 굴

223) Richard Foster, 「기도」, 송준인 역, 두란노, 1995, 14.

224)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데살로니가전후서·디도서·빌레몬서)」, 서울: 제자원, 2012, 301.

하지 않고 꾸준히, 또는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²²⁵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은혜이며 경건한 통로이다. 기도는 성도의 자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며 책임이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왕 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만남과 축복의 시간이다.

이 귀한 선물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순간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는 믿음을 부모들의 세대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부모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가족들을 온갖 해로부터 지켜 주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복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참으로 복되다.²²⁶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클리프트 리처드(Clift Richard)와 로이드 힐드브랜드(Lloyd Hildebran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도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신성한 에너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함께 전달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이다.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가 지적한 대로, “응답을 구하고 바라고 차는 중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온전케 된다. 예수님과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더 알고, 모든 주의 종들이 확신 있게 일하도록 힘을 실어주자.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것들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여 받도록 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사명이다.”²²⁷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훈육의 모습과 함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토케이어 마빈(Marvin Tokayer)은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 기도하는 장소는 결코 예배당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하기를 권면하고 있다:

225) James D. G. Dunn, 「WBC 성경주석: 로마서(하)」, 김철, 채천석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385.

226) Joel R. Beeke,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185.

227) Clift Richards, Lloyd Hildebrand, 「자녀의 미래를 여는 기도」, 14-5.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민 6:24-26).

‘여호와와는 그 얼굴에 네게로 향하여’라는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사시도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는 결코 예배당(회당)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기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성전보다는 자기 집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장소였다. 모든 축제일은 집안에서 제사 지내졌다. ‘가정이 매우 행복해지도록’이라는 기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가정의 평안을 받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당신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다. 영역으로는 마치 행복이 선반에서 떨어지는 식으로 라는 기도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역시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²²⁸

빌립보서 4장 6-7절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말씀은 어느 특정 세대에게만 전달하신 말씀이 아니다. 모든 순간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부모가 먼저 기도의 무릎을 가져야 한다(삿 13:8-14). 한나의 기도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삼상 1:1-3:21).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그들의 삶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려주게 된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통한 기도의 배움과 자녀들의 실천은 확장의 폭을 넓혀갈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가정 예배의 본질적인 지침이 된다.

자녀들이 학업을 비롯해 세상적인 문화에 환경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겨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 어떠한 문제 앞에 가로 막힐 때 기도가 아닌 자신의 실력이나 세상적 가치관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 9:29)는 말씀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워 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녀들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자아를 내려 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을 함께 배워야

228) Marvin Tokayer, 「탈무드 2: 탈무드와 모세오경」, 현용수 역, 동아일보, 2007, 249.

한다. 부모의 본을 삼아 자녀들도 스스로 기도할 용기와 지혜를 가지게 된다.

기도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가족 중 일원이 대표로 기도해도 된다.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도 된다. 예배를 마칠 때에도, 집안에 가장인 아버지가 마침 기도를 해도 좋으며, 가장인 아버지가 부재중이면 다른 가족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맡겨도 좋다. 혹이나, 자녀들이 대표기도를 하거나, 시작이나 마침 기도를 할 때에, 서툴고 민망해 하더라도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한다. 어른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웃음을 짓게 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며 고백하는 훈련을 심어주게 된다. 부모들이 사랑으로 기대하며 기다려주면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것처럼(출 33:11)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하고 모든 문제들을 내어 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시간이 된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임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녀들이 소리 내어 기도하는 법도 알려주어야 한다. 부모 앞에서 소리 내어 기도하는 훈련을 경험한 자녀들은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게 된다. 기도는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이다.

예배 중 기도 시간에, 가족들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해도 좋다.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알지 못했던 각자의 고민거리를 나눌 수 있으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형성됨을 가지게 된다.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 글로서 작성하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보여지게 된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욕망에 따른 나의 필요 때문인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또한, 성품이나 개인적 믿음 성향으로 인해 입으로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가족에게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배려가 된다.

이처럼, 가정 예배시간에 훈련되어진 기도는 SNS 로 확장해도 된다. 가족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내용부터 교회와 이웃, 나라와 세계 민족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의 기도문을 전송하면서 기도의 소중함과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가정 예배 기도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연령이 높은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 교육을 해 주는 것도 유익하다. 가정 예배 시간의 기도 교육에 대해서는 박종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한다:

“기도의 경우 주기도의 내용을 따라 소위 ACTS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 ACTS에서 A는 Adoration, 경배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C는 Confession, 고백이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T는 Thanksgiving, 감사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살전 5:18 새번역). S는 Supplication, 간구다.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빌 4:6 새번역).”²²⁹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기도에 대한 입문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와 함께 하는 기도를 통해 부모의 사랑이 전달되며,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다.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고 축복하는 기도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활에 확신과 위로가 되며,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한다.²³⁰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야 한다. 시편 102편 17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 듣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자녀들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가정 예배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다.

4. 가정 예배의 모델 - 하브루타

1) 하브루타

‘하브루타’(חֲבֵרָה, Havruta)는 동반자 또는 친구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하베르’(חבר)에서 파생된

229) 박상진 외 4인,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96-7.

230) 박원석, “자녀를 위한 성경적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 「신학지평」, 제 25집, 2012, 293-4.

말로, 학습 혹은 짝을 지어 공부하는 학습법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²³¹ 하브루타는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디베이트(debate, 토론)를 통해 결론에 이르는 것인데 이들은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듣고 나눔으로 서로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간다.²³² 이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오래된 공부 방법이며, 친구 또는 상대방과 함께 본문과 주제에 대하여 서로가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김지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브루타가 빛을 찾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갈 수 없으므로 친구와 함께 가는 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말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 있다. 하브루타의 성경적 배경 말씀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나라.” 잠언 27 장 17 절 말씀이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라고 말한다. 친구란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얻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관계이다. 유대인에게 친구란 신세를 지며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되돌려 주는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²³³라고 한다.

수세기 동안 전승된 하브루타는 유대인 학자들에게 고전적인 생활 양식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동일한 힘을 발휘하기에 유대인들은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하브루타라고 부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브루타는 교육법에 대해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가르침을 위한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는 학습법이라고 요약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엘리 홀저(Elie Holzer)와 오릿 켄트(Orit Kent)는 “효과적인 하브루타 학습법을 위해서는 이상적인 하브루타식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 질지와 하브루타 학습법에 필요한 대화의 기술과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⁴

전성수와 양동일은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파트너와 함께 토라와 탈무드를 연구했다. 두 사람은

231) Elie Holzer and Orit Kent,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15.

232) 유혜무 외 6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149.

233) 김지숙, 「하브루타(Havruta)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교육과 가정회복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18-9.

234) Elie Holzer and Orit Kent,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17.

함께 앉아서 본문을 큰 소리로 읽고 그것을 토론하고 분석한다. 또 다른 본문과의 관계를 살피고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그들의 삶과 관련 지어 생각한다.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자신들의 이유를 차근차근 제시한다.”²³⁵라며 유대인들의 방식을 알려준다.

사람들은 어떠한 주제와 본문을 동일하게 접하게 되어도 본인들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해석은 천차만별이 된다. 그 해석들을 가지고서 본인의 강요와 압박, 평가가 아닌 대화적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지숙은 하브루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브루타는 토라와 탈무드를 학습하는 것만이 하브루타가 아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에게 습관이고 문화며 생활이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로 동화를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는 것도 하브루타이다. 가족끼리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하루를 일상을 나누는 것도 하브루타요, 부모가 뭔가를 묻고 자녀들이 답변을 하며 시간을 나누는 것도 하브루타이다. 서로가 토론하는 것도 하브루타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하브루타이다. 텍스트를 놓고 열띤 토론과 논쟁을 나누는 것도 역시 하브루타이다. 파트너와 함께 책을 읽으면 도서 하브루타이고, 파트너와 함께 농구를 하면 농구 하브루타이며, 그림을 그리면 그림 하브루타, 수학을 하면 수학 하브루타이다. 파트너와 둘이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며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것이 다 하브루타이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종교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 상황과 가정 및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진다. 유대인에게 있어 하브루타는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것을 뛰어넘어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브루타라고 할 수 있다.²³⁶

대화에는 이야기 중심의 본문이 사용되어야 한다. 먼저 본인이 이야기 중심의 본문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구경꾼의 자세가 아닌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자세를 가질 때에 더 풍성한 답변을 도출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다양한 견해와 여러 가지 유형의 관점과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브루타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전성수는 하브루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브루타를 하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는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등 새롭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종합

235) 전성수, 양동일,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115.

236) 김지숙, 「하브루타(Havruta)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교육과 가정회복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21.

적 정신 능력이다”²³⁷라고 제시한다. 하브루타를 통해서 소통하며 경청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과 함께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효과적으로 길러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²³⁸

2) 성경 속의 하브루타

초월적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창 1:1). 온 우주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운행 되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자기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과 상호 교통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하나님이시다.²³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들과 상호 교통하시는 인격적인 성품을 보여주신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변론하자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이사야 1 장 8 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 장 26 절에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미가 6 장 2 절에서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

요한복음 1 장 1 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 한다. 세심하게 다듬어 만들어 낸 이 헬리어 문장은 아들(the Son)이 아버지(the Father)와 구별되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확인해 준다.²⁴⁰ 창조주이시며 인류에게 생명과 빛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은(요 1:4)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누셨으며, 대화하기를 쉬지 않으셨다.

237) 전성수, 「자녀교육 혁명 하브루타」, 159.

238) 조은영, 이신동, “하브루타 토론이 영재의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 38 권 1 호. 2019, 195.

239) John Alexander Motyer 외 3 인, 「IVP 성경주석」, 신현기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8, 18.

240) Mark Lehman Strauss, 「네 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 박규태 역,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7, 520.

유대인들 중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으며(출 23:14; 신 16:16), ‘율법의 아들’(Bar Mitzvah)이 되어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 탈무드나 미쉬나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1,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배웠다고 한다.²⁴¹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치르는 열두 살이 되던 해에,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서기관들과 토론을 했음을 보여 준다(눅 2:41-47).

예수님께서서는 사역 현장에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참된 진리와 복음의 은혜들을 전해주고자 하셨다.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부와 명예, 학식을 갖춘 니고데모와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다(요 3:1-21). 사마리아 수가에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과의 영생과 예배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하셨으며(요 4:1-26),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빌라도 와도 변론을 하신다(요 18:33-38).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는 자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심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요 21:1-23). 그 외 예수님은 성경 곳곳을 통하여 제자들과 토론을 하시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함께 논쟁도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마 9:9-13; 막 2:13-17; 눅 5:27-32), 안식일에 이삭을 먹은 것과 병을 고친 일(마 12:1-14; 막 2:23-28; 눅 6:1-5),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문제(마 15:1-11; 막 7:1-23)에 대하여, 이혼 문제(마 19:3-9; 막 10:1-12),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마 22:15-22; 막 12:13-17; 눅 20:20-26)등을 비롯하여 여러 많은 곳에서 대화와 토론, 논쟁을 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와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자 교묘한 방법으로 질문들을 이어갔으나 예수님께서서는 명쾌한 답변으로 그들을 제압하셨다. 성경 말씀을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셨으며(삼상 21:6; 시 8:2; 호 6:6), 이야기와 비유로 답변하기도 하셨다(마 21:23-32; 21:33-46; 22:1-14). 또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변하기도 하셨다(마 22:41-46).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굳이 대화와 토론을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신적 능력을 통하여

241)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누가복음 제 1-8 장)」, 서울: 제자원, 2012, 252-3.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과의 하브루타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고자 하셨다.

바울의 하브루타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성장하였다(행 22:3). 아테네와 고린도 등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와 논쟁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으며(행 17, 18), 두란노 서원에서는 헬라식 토론 방법으로 가르치기도 하였다(행 19).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행 23:1-6), 벨릭스 앞(행 24:10-21), 베스도 앞(행 25:8-11), 아그립바 2 세 앞에서(행 26:2-23)의 재판에 대하여 자신을 변론하기도 하였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논쟁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인정한 반면, 다툼을 일으키는 언쟁, 특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경건에 근거하지 않는 말다툼은 경계했다.²⁴²

3) 가정에서의 하브루타

전성수는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대인 교육의 중심에는 항상 가정이 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교감이 핵심이다. 가정은 유대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며 많은 가르침과 배움이 실행되는 곳이다”라고 한다.²⁴³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가정에서의 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점임을 말해주고 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브루타가 시작된다. ‘쉐마’에 뿌리를 둔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요람(搖籃, **cradle**)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며, 하루의 시작과 마침도 하브루타로 이루어진다. 성경에서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 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242) 전성수, 「자녀교육 혁명 하브루타」, 188.

243) Ibid., 155.

139:14-16)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태아의 형성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지기에 부모는 뱃속에 있는 태아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하브루타가 시작된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소위 ‘베갯머리(침대머리, Bedtime Story) 교육’을 통해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어른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선대의 지혜를 배운다. 성경을 함께 읽으며 본문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성경적인 삶으로 실천할 것인지 다짐하기도 한다. 특별히 토요일은 안식일로 정하여, 하루 종일을 자녀 교육하는 것에 시간을 쏟으며,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을 전수하고 있다. 이 시간의 교육 핵심은 바로 ‘질문하는 법’이다.

칭교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모가 질문을 자녀들에게 하고 자녀들은 대답하는 방식의 대화를 유도하여 자녀들이 교육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경 본문을 통해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대화하는 학습 형태를 가질 수가 있기에 하브루타 학습법을 가정 예배에 도입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 하브루타가 가정 예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김지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브루타 가정 예배는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가장 적절한 예배이다. 하브루타 가정 예배는 성경적 교육 방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다. 하브루타가 의미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다. 쉼 새가 없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이다.

하브루타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가족끼리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사이에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브루타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다.²⁴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부모가 일방적인 훈계나 권면으로만 구성되면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효과는 감소하게 되며, 자녀들은 고충의 시간이 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의견에 경청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설명하는 것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본문을 통한 각자의 해석의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다. 서로에게 본인의 지식과 가치관, 경험까지 포

244) 김지숙, 「하브루타(Havruta)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교육과 가정회복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80-1.

함하여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된다. 부모와 자녀간의 질문은 서로에게 본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도움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가 납득할 만한 해석에 도달하기까지 대화를 지속하게 된다. 이처럼 하브루타 학습을 통해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였던 관점과 대안들을 찾아가도록 도와준다. 이에 엘리 홀저와 오릿 켄트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함께 형성해 나간다고 설명하는 레프 비고츠키(Lev Vygotsky) 이론의 도움을 받아, 학습자들이 해석을 완성해가는 협력 과정을 하브루타 학습의 주요한 특징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²⁴⁵

또한, 하브루타 학습은 자녀 본인에게도 유익을 준다. 부모와 함께 대화를 통한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로 작용한다.²⁴⁶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 추측, 가정 등과 마주하면서 자아 성찰적 작용을 갖게 해 준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협력적 상호작용에도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다.²⁴⁷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하브루타 학습과 비슷한 형식의 학습을 해 본 경험이 없기에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처럼 특정한 규율에 따라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코치나 심판의 결정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역할도 없기에 자녀들은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다. 그러하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새로운 학습에 대한 습관을 기르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문에 대한 본인의 관념과 가치관 등을 비판적인 눈으로 되돌아보는 것과 함께 본인이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들의 학습에도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폐막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하나 드리고 싶다. 정말 훌륭한 개최국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며 질문을 요청하였다.

245) Ibid., 82.

246) Alex Gillespie, “The Social Basis of Self-Reflection”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Sociocultural Psychology*, edited by Jaan Valsiner and Alberto Rosa, 678-9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Elie Holzer, Orit Kent,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이은혜 역, D6 Korea House, 2018, 84에서 재인용.

247) 설진성 외 3인, “하브루타 기반 수업이 초등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교육학회」 제 73 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286.

한참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나 한국 기자 중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도 통역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배려해 주면서 질문해 줄 것을 재요청 하였으나, 끝내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이 해프닝은 질문하지 않는 한국 문화를 비꼬면서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²⁴⁸

가정 예배시간에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생각과 고민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형성에도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전수와 인격 형성, 학습 능력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좀더 나은 학습을 기대하며 최대한의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하브루타의 개방적인 특성 성향을 비추어 볼 때 부모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 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 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 부모들은 자녀들이 최대한 본인들의 생각과 해석을 드러내는 것에 자유함을 주고, 본문에 충실함으로 질문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불편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순간들이 있더라도 부모들이 먼저 열린 태도를 지니고 계속 대화하려는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브루타 토론은 자녀들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가족 모두에게 화목한 가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가정 예배의 뿌리는 ‘쉐마’이다. 하브루타 형식을 인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가족의 기쁨과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김난예는 가족의 풍성한 행복을 위해서 가정 하브루타에 대해 말한다:

가정 하브루타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예배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으나 식탁이나 차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는 것, 잠들기 전 베갯머리(Bedtime Story)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 집 문을 나서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주고 건네는 것 등 모두가 하브루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가정 신앙공동체들은 자녀들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브루타를 하며 가능하다면 일주일 중 한 날을 정하여 신앙과 성경과 각자의 삶 등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고 즐겁게 논쟁하며 예배해야 한다.²⁴⁹

248) EBS 다큐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제 5부 말문을 터라(2014. 01. 28. 방영), 김보경, “유대인 하브루타 학습의 이해와 정착을 위한 과제”, 「신앙과 학문」 제 21 권 1 호(통권 66 호), 216, 105-6에서 재인용.

249) 김난예, “질문생성 전략과 하브루타 신앙공동체 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 43 집, 2015, 191.

하브루타에 있는 모든 과정들이나 방법들을 동원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을 서로 축복하고, 성경 말씀의 하브루타와 일상 생활의 하브루타를 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안수 축복 기도는 꼭 시행하는 것을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²⁵⁰

가정 예배가 하브루타를 인용한 방법들로 시행됨에 따라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도 하브루타로 이어진다면 가족간의 관계는 더 큰 사랑으로 풍성해진다. 일상 생활에서 사소한 일까지도 가족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서로간의 고민과 마음들을 나눌 수 있다. 어린 자녀들일수록 부모의 돈과 능력보다는 부모들이 얼마나 자신들과 놀아주며, 자신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며 이해해 주는지를 바란다.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관계는 깊어진다.

전성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첫 출발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역시 첫 출발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²⁵¹라고 말한다. 황병준과 김지숙은 하브루타식 가정 예배에 대해서, “성경 하브루타 예배, 일상에서의 하브루타, 암송 하브루타, 베갯머리 하브루타 등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세대를 위해 준비시키는데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피곤한 일상에 지쳐 있는 부모들의 지속적인 결단과 자녀를 위한 헌신이 필요한 예배이다.”²⁵²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브루타를 통해 부모와 자녀간에 가족간의 소통과 화목함이 이루어지며, 양육에도 큰 유익을 안겨다 준다. 그리고 다음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신앙 전수가 형성되며,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

250) 전성수, “대를 잇는 신앙 부모가 만든다-하브루타가 가정을 살린다”, 「교육교회」, 2012, 27.

251) 전성수, 「자녀교육 혁명 하브루타」, 271.

252) 황병준, 김지숙, “하브루타를 활용한 한국적 하브루타 가정예배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제 54 집, 2018, 237.

5. 가정 예배가 다음세대에 미치는 영향

1) 다음세대

‘다음’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차례의 바로 뒤나 시간이 지난 뒤 또는 일이 끝난 뒤’를 의미한다.²⁵³ ‘세대’(世代, **Generation**)라는 단어는 ‘30 년을 한 구분으로 하는 연령층’을 의미한다.²⁵⁴ 그러나, 현 사회적 변화 현상을 볼 때에는 30 년을 한 구분으로 묶기에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것을 볼 수 있다. 5060 세대, 7080 세대 등 10 년의 단위로 한 세대를 묶기도 한다. ‘다음’과 ‘세대’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형성된 ‘다음세대’(Next-generation)라는 말은, 사회학적으로는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세대’라는 의미를 말한다.²⁵⁵ 성인 중심의 기성세대와는 차별적 성향을 나타내며 다가올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세대를 다음세대라고 볼 수 있다.

성경에서 다음세대를 말할 때에는, 어느 한 세대를 지명하기 보다는, 공통의 의식과 문화,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직계 가족(창 25:13)이나, 성향이 같은 사람들(시 14:5), 세상(롬 12:2)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성경에서는 다음세대들에게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2 장 10 절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세대가 아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매 순간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다음세대들에게 공유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로 인해 다음세대들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없는 세대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음세대에게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 모세는 출애굽 후, 이

253)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5, 805.

254) Ibid., 2058.

255) 파이디온 스퀘어 홈페이지 <http://paidionsquare.com/story/story1/view.php?bno=92>., 2020 년 11 월 13 일 접속.

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된다.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 말씀과 축복이 다음세대들에게 상속 될 수 있도록 전해주었다(출 24:5-11). ‘쉐마’를 통하여서는 다음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중요한 핵심임을 역설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인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위함이었다.

모세는 출애굽 후 광야 40 년간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를 토하는 듯 간절한 당부의 설교를 세 번하게 된다(신 6:4-9, 11:13-21, 민 15:37-41).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징표도 없이 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각 지파마다 돌을 가져오게 한 후 요단강에 기념물을 세우게 하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다음세대들이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교육적인 방법이었다(수 4:6-7).

에스겔에서는 선조들의 죄를 본받지 않는 후손인 다음세대들을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남겨두시겠다고 하신다(겔 18:18-24). 잠언서는 구약의 교육 집대성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로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준다(잠 1:5).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이전이었음에도 예수 를 잉태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의로움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다(눅 1:26-45). 이 부부의 신앙의 모습은 다음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눅 2:40-52).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의 모습을 가져야 하며, 자연과 이웃, 국가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자세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롬 8:19-25, 엡 6:1-9).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재물에 대한 마음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라면서 올바른 경제 관념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다(골 3:5, 딤후 6:10).

다음세대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화되어도 어느 민족에게나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 다음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부모들에게 사명으로 심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세대들에게 신앙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부모세대의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됴음을 강조하신다. 비록 기성세대와의 문화와 생활방식 등의 편차가 있다 할지라도 다음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전해주어야 한다(골 1:28-29).

2) 다음세대에게 왜 가정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다음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호수아 4 장 4-7 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기념비를 통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교육을 통한 배움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며,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 교육을 성경에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다. 가정에서부터 다음세대를 향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훈련과 양육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무색해진다.

사사기 2 장 10 절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세대가 아닌 부모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음을 전하고 있다. 부모님과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지켜왔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었다. 그것은 부모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다음세대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하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반증인 것이다.

사사기 2 장 10 절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역사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하는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종 노릇하는 다른 세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다음세대로 세워져야 한다(엡 6:19).

홀리 C. 알렌(Holly Catterton Allen)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기독교적 의례와 전통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전수되고, 형성되며 성장하고 자라는 신앙 형성 및 성장의 중요한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²⁵⁶ 가정 안에서 말씀을 먼저 맡은 부모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비단 성경과 교리를 지식적으로 전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난 구체적인 삶의 사건들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전수되어온 성경 말씀 성경적 가치, 우선순위,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반추하고,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응답하는가를 경험케 하는 책임감 있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포함한다.²⁵⁷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명령이며 축복의 현장이다. 자녀를 믿음의 다음세대로 세우는 것의 시작이 바로 가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조엘 비키(Joel R. Beeke)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의무이다”라고 하였다.²⁵⁸ 성경을 비롯해 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 주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한다. 부모에게 맡겨 주신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교회 주일학교로 넘겨서는 안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현 시대의 기독 가정들을 보면 마냥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정 예배를

256) Holly Catterton Allen, *Intergenerational Christian Formation: Bringing the Whole Church Together in Ministry, Community and Worship*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0), 130-31.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225에서 재인용.

257)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225.

258) Joel R. Beeke, *Family Worship*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2009), 7.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9에서 재인용.

드리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축복 속에서 성장하였음을 부인 할 수 없다.

(1) 경건한 후손을 이어가라는 성경적 명령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삿 2:10).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다음세대에게까지 잘 전승되기를 간곡히 소원하셨다. 부모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다음세대들에게 복음이 전승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 감당에 대해서는 상실 해 버린 것이다. 아니 어찌 보면 그것이 부모에게 맡겨 주신 사명인 줄도 모르고 있는 부모들이 부지기수 일 것이다. 학원에 보내어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듯이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서는 안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신앙 훈련을 시키지 않음으로 성인이 된 후 아이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²⁵⁹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재물을 물려주는 것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부모들은 힘써야 한다. 부모를 통해서 신앙 가르침과 지식 전달에 목적을 이루고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참된 양육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경적 양육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최초의 장소가 바로 가정 예배이다. 가정 예배는 복음 전승의 맥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 준다. 가정 예배로 인해 신앙의 계승과 발전이 더디 보일지는 모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물길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가정 예배는 후손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곳이다.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러하기에

259) 유희무 외 6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46-7.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예배가 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분주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이라 할지라도 가정 예배는 하루 중 실천해야 할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 초대 교회시대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노력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우리들 또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들의 후손들은 믿음의 계승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여러 가지 명령 가운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구전으로 신앙을 전승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²⁶⁰ 시편 78 편 1-8 절에서도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으로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조상을 통해 계승 받은 신앙을 다음세대에게도 전승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사야 59 장 21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신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문지방에 새기는 것이며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이다.²⁶¹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성장한 자녀들은 자연스

260)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96.

261) James W. Alexander,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51.

럽게 자신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게 된다. 그러하기에 자녀들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되고, 말씀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체득하게 된다. 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세상은 수 많은 가치관과 유혹들이 가득한 곳이다. 매 순간 치열한 경쟁 논리와 자본주의의 물질의 늪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다. 이러한 바람대로 자녀들의 성장하게 하는 첫걸음은 바로 가정 예배에서부터 시작인 것이다.

(2) 교회 주일학교의 현실적 어려움

한국 교회들은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종교 공동체이므로 한국 사회의 문제는 한국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²⁶²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종교 인구 조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교인의 수는 1990년대부터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²⁶³ 이것은 교회 주일학교의 현장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보다 급격한 속도로 교회 주일학교의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²⁶⁴ 이러한 교회 주일학교의 침체와 붕괴는 다음세대의 위기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된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교회 주일학교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출산율 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해법을 우리 손으로 찾아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에서 2014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8%이며, 78.5%는 영아부가 없다고 한다.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주일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1,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어린이 30.7%가 설교 시간이, 그리고 25.9%는 성경공부 시간이 싫다고 답을 함으로써,

262) 조성국, “가정교육을 위한 복음주의 기독교교육학의 과제”, 「복음과 교육」, 제 15집. 2014, 101.

263)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 2020년 10월 2일 접속.

264) 기독교신문 홈페이지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43>., 2020년 10월 2일 접속.

교회 학교의 가장 중요한 2 가지 핵심 사역을 아이들이 싫어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를 보여 주었다.²⁶⁵

교회 주일학교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와 부정적 현상으로 인해, 각 교단과 교회마다 다음세대를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 결과 많은 목회자들과 연구자들은 교회학교를 개선하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재정으로 지원해 주며, 다음세대만을 위한 다양한 놀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면 다음세대의 위기론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세대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과후 학교, 음악과 미술 등의 취미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교회 주일학교의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교회 주일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변화되지 않고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 크나 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들은 직시하여야 한다.

기독교 교육의 역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거쳐 초대교회 시대와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주일학교 시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일학교에 대해서 박상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780년 영국 글로체스터에서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에 의해서 시작된 주일학교가 하나의 기독교교육 패러다임으로서 지난 수 세기 동안 기능해 왔지만 작금에 이르러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면서 교회교육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대안적 패러다임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연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 이후의 기독교교육 패러다임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음세대의 위기는 단지 교회학교 학생 수의 감소라고 하는 양적인 위기의 측면만이 아니라 삶과 삶이 분리되고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육이라는 질적인 위기의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라고 하는 교육 패러다임이 지니는 한계와 관련되어 있다.

사실 로버트 레익스가 18 세기에 시작한 주일학교는 당시 산업혁명 직후의 영국의 방직 공장에서 과잉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주일(Sunday)에 소위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당시 주일학교에서는 읽고, 쓰고, 셈하는 3Rs와 함께 성경도 가르쳤지만 본질상 그 교육은 신앙교육이었다기보다는 일반 학교교육의 연속 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일학교는 출발부터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추구한 교육이 아니라 교과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앙교육을 할

265) 노컷뉴스 홈페이지 <https://www.nocutnews.co.kr/news/4589495>, 2020년 11월 26일 접속.

수 있는 교육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이 주일학교가 신앙교육의 기능까지 담당하여 오늘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²⁶⁶

주일학교는 또 하나의 학교 기관처럼 되어 버려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은 가르쳐 줄 수 있을
지 모르나 자녀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주기에는 많은 괴리감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대안책을 제시 받은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기에 당연히 가야 하는 관문처럼 여기고 있
는 것이 주일학교가 되어 버렸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본인들의 자녀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것으로
당연지사라 여기고 있다. 자녀들의 믿음 생활과 함께 인격의 변화와 성장, 비전을 향한 도전과 성취,
이성 문제 등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녀의 신앙에 기초한 모든 것을 양육해 주리라고 믿고 있다. 가정
에서 예배를 통하여 신앙교육하던 것이 멈추어지고 교회 주일학교에 자녀들의 신앙을 맡기는 현상이
되어 버렸다.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담당은 교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사유에 대해 신승범은 “한국 기독교에 전래된 미국 기독교의 영향으로 미국교회
의 주일학교 시스템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뿌리내린 주일학교 시스템은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동시에 주일학교만이 신앙교육의 ‘유일한’ 현상이라는
인식을 심어 놓았다.”²⁶⁷ 라고 말하고 있다.²⁶⁷ 엄예선에 의하면 “미국 교회는 교회교육만으로는 신앙적
및 인격적인 자녀들을 배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미 20세기 초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²⁶⁸ 고 한다.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장소가 가정에서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책임도
부모가 아닌 주일학교 담당 목사, 전도사에게로 전가되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가
정의 역할과 기능은 급속히 축소되어 버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대해 티모시 폴 존스(Timothy Paul Jones)는 “자녀의 신앙 훈련에 전문가들이 동역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평범

266) 박상진 외 4인,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229.

267) 유혜무 외 6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80.

268)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생명의 말씀사, 2007, 358.

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다. 자녀의 신앙 성장의 주된 책임은 전문가들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곧 부모의 일이다.”²⁶⁹라고 한다. 그동안 교회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교회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았고, 결국 가정을 해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교회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부모의 교육적 책임의 자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²⁷⁰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 별도로 정해진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켜주기에 충분하다.²⁷¹

자녀를 축복해 주는 좋은 신앙 전통도 사라지고 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신앙교육의 주요 현장이었던 가정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주일학교의 성장으로 인해 자녀들의 신앙교육 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교역자와 교사를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땀을 흘리며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내 자녀의 신앙 성장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회 주일학교에만 일임하고 맡겨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1 세까지 가정에서 거의 95%의 시간을 보내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일 경우 0.5%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5%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한다.²⁷² 주일학교에 일임하는 시간적 배분 만을 보아도 1 주일에 1 시간이 전부이다. 성적 지상주의의 교육의 현상으로 인해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비롯해 다양한 신앙 활동을 소망할지라도, 학원 스케줄이 자녀들의 인생에 우선순위이다. 어떤 아이들은 1 주일 1 시간을 보내는 교회 주일학교의 생활에서도 줄음이나 결석으로 보내게 된다. 수험생 학부모를 비롯해 어떤 학부모들은 1 주일에 적게는 1 시간에서 많게는 2 시간정도를 교회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것을 낭비라고 여기기도 한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학업 부진에 대한 부정적인 사유로 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는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일학교에만

269) Timothy Paul Jones,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 53.

270) 고용수, 「하나님나라와 교육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90.

271) 양주성,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방향”, 「효학연구」. 제 18 호. 2013, 92.

272)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07.

자녀들의 신앙을 맡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방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 주일학교가 목회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담임목사가 교회 주일학교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목회의 핵심 사역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²⁷³ 교회 주일학교는, 소속된 교회에서 떼내어서 독자적으로 행사와 교육을 주관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가 없다. 담당 교역자들의 권한과 책임은 제한적일 뿐이다. 그로 인해 교회의 목회적 패러다임에 의해 교회 주일학교도 함께 프로그램과 재정 등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지속적 교육의 단절과 장기적인 교육 철학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믿음이 아이들의 인생에 끼친 변화와 은혜들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원처럼 주입식으로 교리와 성경을 교육시키고 있다. 총회를 비롯한 각 노회, 교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들마저도 등수를 나열하고 순번을 정하여서 우월과 열등의 개념을 어린 아이들에게마저 심어주고 있다.

교회 외형적 성장주의 패러다임에 젖어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성도들의 가치관이다. 성도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보다는 숫자 제일주의가 팽배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할지 모르나 교회의 모든 사역은 자녀들이 아닌 장년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고, 시설을 사용하고, 목회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카테고리의 중심은 장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 주일학교에 소속된 자녀들의 신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많은 교회 프로그램 중 거의 모든 교회에서 주일성수를 강조하고 새벽 예배나 속회 예배, 철야 예배, 금식 기도 등을 강조하지만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거나 집중 사역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다.²⁷⁴

메튜 헨리는 “개혁은 다른 어느 곳에 앞서 바로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만 한다.”²⁷⁵라며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유해무는 “가정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전선 망대이다. 교회는

273) 박상진 외 4인,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55.

274)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27-8.

275) Matthew Henry,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13.

언약을 가르치고 언약에 기초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애써야 한다.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일차적 언약 공동체인 가정이며, 가정 예배는 언약의 첫 실천 현장이요 세칙이다.”²⁷⁶라고 한다. 찰스 셀(Charles M. Sell)은 교회가 가정에 무관심한 것은 교회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²⁷⁷ 호레스 부쉬넬(Horace Bushnell)에 의하면 가정은 단순히 자연적인 가치로만 형성된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으로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 그것은 아브라함과 신앙인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신앙과 성령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다.²⁷⁸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위기는 주일학교 내부의 요인보다는 가정(부모) 요인, 학교 요인 등이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단지 교회 주일학교만의 문제를 뛰어넘어 목회의 문제이며, 나아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가치관 등 기독교 교육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는 현시대의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²⁷⁹ 이 문제는 좁게는 개 교회의 문제점일 수 있겠으나 넓은 시각으로 볼 때에는 한국 기독교 교육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불교가 25%, 천주교가 18%에 이어 개신교는 10%의 낮은 수치의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²⁸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에서도 2020년 2월 7일에 ‘2020년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회’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민 1천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31.8%,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가 63.9%로 나타났다고 세미나를 통하여 발표하였다.²⁸¹ 이는 현재 한국 교회 위치가 사회에서 적대적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이다. 이제는 교회 밖의 믿음 없는

276) 유해무 외 6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38.

277) Charles M. Sell, *Family Ministry*, 2nd(ed.) (Grand Rapids: Zondervan, 1995), 14. 박행님, “현대 기독교 가정 회복을 위한 목회 패러다임과 기독교 가정 생활교육”, 「복음과 실천신학」, 제 23 권, 2011, 199에서 재인용.

278)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212.

279)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Toronto: Morehouse Publishing, 2000, 11). 박상진 외 4인,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51에서 재인용.

280) 한국갤럽 홈페이지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25>., 2020년 10월 3일 접속.

28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 <https://cemk.org/15848>., 2020년 10월 9일 접속.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하거나 반대(Anti) 성향의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것은 교회 주일학교만의 몫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피해로 전가될 것이다.

시대적 상황, 사회적 환경 요인, 교회 공동체의 주일학교를 위한 철학과 비전 상실 등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교회 주일학교로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한국 교회 주일학교에 당면한 어려움의 과제는 교회 주일학교에만 책임전가를 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님들을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전승에 주체로 세워서 부모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가정 예배를 통한 효과

i) 자녀들의 믿음 세우기

주일을 비롯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은 내용과 함께 형식에 맞추어 드리다 보니, 아무래도 공예배로서의 엄숙함과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된다. 그러나 가정 예배는 자녀들에게 공예배가 주는 무거움의 느낌보다는 친근감을 가져다 준다. 이는 예배에 대한 부담 없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며,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형식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안겨다 줄 수 있다. 특히 부모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부모에게서 전해지는 교육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교육적 의미에 대해 박진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정 예배는 그 자체가 신앙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예배의 삶이 가정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교육내용이며, 교육방법인 것이다. 예배는 가장 우선적인 신앙교육의 목적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으뜸가는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예배는 신앙교육의 내용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예배는 매우 효과적인 신앙교육의 방법인데, 그 이유는 가족들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예배 행위와 예배드리는 삶 자체를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기 때

문이다.”²⁸²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들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은 자연스레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물론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부모들의 신앙도 성장을 하게 된다. 믿음은 구체화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활동이 일어나기에 서로를 통하여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ii)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가정 예배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도 한다. 어른들은 일터에서, 자녀들은 학교로 인해 가정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하루에 10분도 채 되지 않는다. 자녀들이 청소년기, 청년기로 성장하면 할수록 모든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1주일에 한번도 겨우 있을 정도인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 가족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건물 아래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을 뿐 참된 가족이라는 모습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영적 권위와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이 힘들게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평안함과 참된 안식,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재충전의 기회를 주게 된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가족간의 깊은 사랑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에서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며 모난 성격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된다.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로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가 샘솟는 것이다.

농부가 과실수의 가지를 다듬고, 곡식을 위해 땅을 흘리듯이 자녀들을 위한 영적, 육적인 건강함을

282) 박진숙,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교육적 방안”, 2.

위한 부모들의 노력과 헌신은 성경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가정 예배를 통한 말씀과 기도, 찬양의 훈련과 습관을 쌓아간다면,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은 귀하게 성장할 것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들에게도 큰 기쁨이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전승되며, 인격을 비롯한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iii) 자녀와 가족과의 관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4-6).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함께 하신다. 단순히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정에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들은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서로의 기도제목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가족의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각 가족 구성원들의 삶과 신앙의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훈련들을 나눔으로써 가족간의 사랑과 화목은 더욱 짙어져 가게 된다. 개인주의 생활이 팽배해져 가는 현대 시대에 날마다 시행하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족구성원과의 하나됨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iv) 자녀와 교회와의 관계

가정 예배에서 함께 나누는 기도의 시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확장된다. 부모와 자녀들이 출석하는 교회에는 다양한 기도제목들이 있기 마련이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기도 제목도 다양하다. 가정 예배시간에 교회 공동체의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소속감과 공

동체성을 가지게 되며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된다. 가정 예배를 통한 기도제목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힘과 함께 교회의 변화도 경험하게 된다. 가정 예배는 더 이상 가정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교회를 위한 기도와 예배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거룩한 나라이자 구별된 백성이기에(벧전 2:9),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구성원으로 세워지게 되며,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교회 사랑과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녀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와 다른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v) 자녀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지역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웃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이것은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사명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나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며 신뢰도는 더 무너지게 된다.

이는 복음 전파에도 큰 장애물이 된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된 상황에서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웃과 지역 사회에 다가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대할 때에 복음전도 대상자로 여기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정 예배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러지는 가정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가정 예배시간을 통하여 자녀들의 친구 문제, 학교 문제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하는지를 가정 예배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나라는 그 관심이 우리 영혼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이르고 그 통치가 교회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와 온 우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²⁸³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신 5:20)라고 십계명에서도 이웃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 주셨다. 시편 15편 3절에서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신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자녀들은 지역 사회와 민족을 위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또한, 부모나 자녀들 주위에 믿음의 없는 자들이나, 가정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나의 가족이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 시간에 우연하게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분명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나 도전이 될 것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도 놀라움이 있겠지만, 가정 예배에 임하는 자녀들의 자세와 자녀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영혼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에 어느 누구에게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이다. 그 갈급함은 주일에 한번 드리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해 풍족히 채워지지 않은 경우도 다분하다.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나의 욕망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 은혜를 우리들의 안식처인 가정에서 경험해야 한다.

가정에서 채워진 자녀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이웃과 지역 사회,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지를, 가정에서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다. 세상에서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자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 연구자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 청년과 장년들이 연구자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모습과 찬양과 기도하는 짧은 시

283) 박상진 외 4인,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151.

간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들에게는 가정 예배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고백하였었다. 미혼이었던 청년들은 자신들도 결혼을 한 후 가정에서도 꼭 실천하고 싶다고 고백하였으며, 장년 성도들은 본인들의 집에서 꼭 가정 예배를 시행하고 싶다고 다짐을 하며 실천에 옮기기도 하였다. 고린도후서 2장 15 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셨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향기가 퍼지듯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나의 가정에서 드러지는 가정 예배가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과 신앙 각성에 효과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 가정이 다른 가정을 변화시키게 되며, 이는 모든 가정들의 변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의 가정 예배로 인하여 이웃과 지역사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어 가는 것이다.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이웃과 지역 사회를 향한 사랑과 복음 전파의 통로가 쓰임 받게 된다.

(4)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내용

i) 다양한 모델

가정 예배 프로그램은 가족들의 신앙과 삶을 위한 매개이지 메시지가 아니다.²⁸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들은千篇일률(monotony, 千篇一律)적이지 않다. 부부와 자녀의 구성, 신앙 연륜과 성숙, 연령별 구성, 문화적 구성, 지역적 특성 등 모두가 다양하며 각 가정마다 삶의 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 구성으로 인해 하나의 표준 형식의 가정 예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난해한 문제이다. 가정 예배에 기본적인 형식은 제시하되 각 가정과 상황과 문화에 맞게 적용하며 수정과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적 본질은 지키되 각 가정의 상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가정마다 형식은 다양성을 인정하되 형식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찬양-성경(본문) 읽기-말씀 나누기-기도와 도고-축복과 주기도문’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때로는 말씀 암송,

284) 임영택, “가정 예배 프로그램”, 「새가정」, 통권 348 호, 1985, 48.

감사와 축하 글 전달 등 가족 예배의 은혜가 더 풍성해 질 수 있는 순서들을 적용하면 된다.

ii) 인도자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아버지가 인도하는 것이 좋다. 아버지는 한 집안에 가장이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엇보다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이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 가정의 아버지들은 가정의 영적 책임자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날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단 순히 아버지는 가족들의 생계 부양을 책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며, 왕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사명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읽게 하거나, 대표 기도를 맡겨 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아버지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부재중인 가정에는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거나, 자녀들이 인도하여도 된다.

iii)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정하도록 한다. 구성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은 각 개인마다 다르다. 오전과 저녁 중 언제가 좋은지를 정해야 한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가 좋은지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지도 각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간을 정하되, 개인 삶의 스타일만 고집하여서는 안된다. 가족들이 암묵적으로 자주 모이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유익하며, 가정 예배 시간을 위해서 각 개인의 일상생활 중 특별한 시간을 헌신하는 것도 섬김의 모습이다.

복잡한 사회 여건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겐하드(Gebhard)는, “시간적인 여유를 찾을 수 없는 가정은 식구들 각자의 스케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풍요로운 삶을 빼앗아 가는 외부적인 압력 요소나 생활상의 요구 조건이 무엇

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삶 자체는 항상 유지되어야 할 일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²⁸⁵라며 제안하였다. 가정 예배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함께하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임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점이 중요한 요소이다.

예배 드리는 전체 소요 시간도 정해 두어야 한다. 가정 예배에 임하는 은혜와 각 개인의 당일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정해둔 소요 시간만큼만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가정 예배는 한번 드리고 관두는 것이 아니다. 매번 꾸준히 드려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iv) 횟수

매일마다 드리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1 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을 선호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한 달에 1 회 모임을 희망하기도 할 것이다. 횟수도 정해두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매일,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장한다. 가정 예배의 습관화를 위해서라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익하다. 5 분이라도 매일마다 꾸준히 성실히 하는 것이 가족 모두의 믿음과 성품에 더 큰 유익을 안겨다 주기 때문이다.

임경근은 가정 예배 드리는 횟수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일주일에 한번 가정 예배를 하는 것은 매일 한 번 가정 예배를 하는 것보다 7 배나 어렵다고 말한다. 한 달에 한번 가정 예배를 하는 것은 매일 가정 예배를 하는 것보다 30 배나 어렵다고 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⁸⁶

v) 장소

출애굽기 29 장 43 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고 하신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은

285) Anna and Edward Gebhard, *Guidposts to Creative Family worship* (New York: Abingdon Press, 1953), p. 28. 김남식, “기독교 가정에서의 영성 훈련”, 「상당과 선교」, 2 권 2 호, 2003, 64 에서 재인용.

286) 유희무 외 6 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66.

장소보다도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만남의 사건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장소를 지칭하는 성막(a holy place)을 회막(a meeting place)이라고 바꾸어서 부르신다.²⁸⁷ 우리 가정이 예배 드리는 곳은 세속적이 인간들의 모임 장소가 아니다. 우리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배를 통하여 만남을 가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집안 공간 중 어떠한 곳이던지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집중이 되며, 은혜를 나누는 것에 방해 받지 않는 곳이면 좋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장소에 설치된 여러 가구나 소품들도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익하다.

vi) 방해 요소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방해요소가 되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부모가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다시 한 번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모들에게 맡겨 주신 사명들을 점검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거나, 성경 한 장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형식도 좋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소망하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가정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1시간 정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기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집중도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녀들과 함께 상의하여 시간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방해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은 가족 회의를 통하여 미리 차단해 두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미디어 기기들은 전원을 끄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한다.

각 교회력에 따른 절기나 가족들의 기념일인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상징적인 행위들을 예배에 포함시켜도 된다. 예를 들면,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 나무에 못을 박

287)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226-7.

고, 그 못에다 각 개인들의 죄를 적은 종이를 꽂아보는 것도 유익하다. 부활절에는 삶은 계란을 함께 먹여주는 시간도 가져보며 또는 가족 중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축복 기도를 하거나, 세족식도 할 수 있다. 출산, 입학과 졸업, 군입대와 제대, 직장 취업, 부모님 은퇴 등 가족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하면서도 특별한 상황들을 가정 예배에 반영함으로써 온 가족이 가족의 역사를 오랫동안 추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신앙고백을 드릴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잔소리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모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말씀이 살아서 다음세대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기대를 하여야 한다(히 4:12).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 놓아야 한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알려주는 부모에게 감사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엡 6:1-3).

가정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다 보면, 가끔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연구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마음은 가족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때에 찾아온다. 가족들이 가정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참석 인원 수가 줄어들더라도 의기소침 할 필요가 없다. 가정 예배는 한두 번 드리고 그치는 게 아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영원히 드리는 예배이다. 가정 예배 시간에 부모만 참석하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참석하여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 가족이 혼자이거나, 자녀가 없기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18 장 20 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룻기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도 두 식구였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룻 1:8-18).

vii)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할 것들

임경근은 가정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팁 20 개를 소개해 주면서 가정마다 잃어버린 보물인 가정 예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한다.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하고 동의를 구한다.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이 가능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남편과 아버지가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제사장 된 권위를 인정한다. 가정 예배와 관련해 남편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이들 앞에서 가정 예배 인도와 관련해 남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남편이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위임을 받아 아내가 인도한다. 너무 딱딱하고 지겹게 인도하지 않는다. 짧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순서와 내용은 자유롭게 하되 말씀, 기도, 찬송, 나눔의 요소가 가능한 포함되도록 한다. 가정 예배의 순서와 형식은 가정마다 독특성을 살린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서를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 다양한 가정 예배를 개발한다. 아이들이 가정 예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는 촛불을 켜면 도움이 된다.

성경이나 혹은 이야기 성경을 읽고 반드시 아이들에게 질문한다. 설교를 하지 말라. 성경을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질문이 있을 때는 친절히 설명하되 모르는 것은 다음에 알려 준다. 기도를 길게 하지 않는다. 기도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목으로 한다. 한 가지 노래를 일주일, 한 달, 두 달 반복하는 것도 좋다. 모르는 찬송이나 복음 찬송을 배우는 것도 권한다.²⁸⁸

신형섭은 가정 예배를 디자인 할 때에 고려할 것으로는 “가정 예배를 보다 ‘온전하고 적극적이고 인식적이고 참여적인 예배’(full, active, conscious, and participatory worship)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가족 구성원의 연령, 신앙, 상황적인 요소들을 늘 주목하고, 이를 가정 예배의 내용과 방법과 환경에 늘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제안한다.²⁸⁹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부모세대가 아닌 자녀 세대에서 부정적인 관점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하여 신형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필자는 신학교에서 가정 예배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지난 몇 년간 현재 청년 세대가 가정 예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청년들이 가정 예배에 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참여해왔던 가정 예배의 경험이었다. 그들에게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함께 기억하고 만나고 응답하는 영적이고 역동적인 신앙-형성적 사건으로 경험되었기 보다는 엄격한 규율과 의무 아래서 그 자리를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던 교리-형식적 행위로서의 예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가정을 갖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물었던 질문에 대부분이 드리지 않겠다고 답하였다.”²⁹⁰

288) 유혜무 외 6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74-5.

289)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80.

290) Ibid., 149-50.

신형섭이 제시하는 내용이 모든 청년들과 다음세대들의 의견에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음세대들의 가정 예배에 대한 단면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정 예배를 디자인 할 때에 형식적인 행위가 되는 시간들보다는 신앙과 성품이 형성되며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간다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은혜는 더 풍성해 질 것이다.

6. 소결론

가정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과 위치가 중요하다. 가정 예배를 시행하기 위해 부모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며, 부모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해야 한다. 자녀들이 믿음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만의 잘못만은 아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부모의 역할이 부재하였으며,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신앙은 누구에게 맡겨 버리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주어질 첫 번째 사명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의 역할을 회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함으로써 잃어버린 다음세대가 아닌 경건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도록 부모들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 가정 예배가 활성화될수록 자녀들은 건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가정 예배 활성화에 대한 설문 분석을 통하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장

가정 예배 활성화에 대한 설문 연구

1.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교회 내 가정 예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정 예배의 중요도에 맞춰 동일하게 가정 예배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에 대한 시행 여부와 가정 예배가 자녀들의 신앙 전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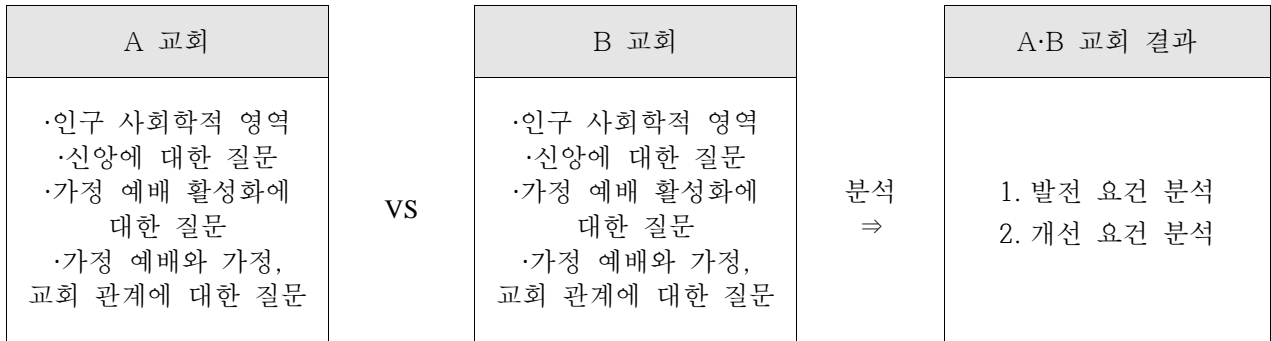
2) 연구 대상

본 설문은 한국 교회 중에서 가정 예배 활성화를 잘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는 몇 개 교회를 선정하였고, 이 교회들의 가정 예배 활성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가 사역하였던 교회의 가정 예배 활성화를 비교연구하여 개선 요건과 발전 요건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설문을 시행한 교회는 가정 예배 활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교회의 중요 사역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 교회들은 가정 예배 활성화에 대한 표준이 되기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3 개 교회에 설문 조사를 요청했으며,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에 참여한 3 개 교회 중 2 개 교회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지역간에 거리와 규모 면에서 교회 성도들의 인원, 물리적 크기, 교회 설립 연도 등의 편차가 심한 관계로 인해 연구 대상기관에서는 제외시켰다. 선정한 교회 중 설문에 응답한 1 개 교회와 연구자가 사역하는 1 개 교회를 포함하여 총 2 개 교회가 설문에 응답을 하였다.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A·B 교회에 연구 모형을 통해 비교분석을 하였다. 연구 표본은 A·B 교회 전체 성도들 중에서 50 명을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논문 설계 모형도



<표 2> 설문 문항 구성

순번	구분	세부내역	문항수	문항번호
1	일반적 질문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신앙년수, 직분, 자녀 수	7	1-5
2	신앙에 대한 질문	구원 확인 여부	2	8-9
		생활속의 신앙 생활	4	10-13
3	가정 예배 활성화에 대한 질문	가정 예배 확인	2	14-15
		가정 예배에 대한 견해	3	16-18
		자녀 신앙 전승	1	19
		가정 예배 활성화	4	20-23
		가정 예배에 대한 교회 지원	2	24-25
		가정의 행복에 대한 견해	2	26-27

3) 설문 절차와 방법

연구자는 설문 전에 리버티 대학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해 승인된 (IRB 승인번호: IRB-FY19-20-217) 설문 동의서를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킨 후,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에 설문 조사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설문은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직접적인 만남을 25분간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에게 설문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인쇄된 설문지에 무기명으로 기술하는 자기입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2개 교회는 담임목사님을 통해 설문 동의를 인지시키고, 참여의사를 확인한 자들 대상으로 메일과 메시지를 통한 비대면 접촉 형식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2. 신뢰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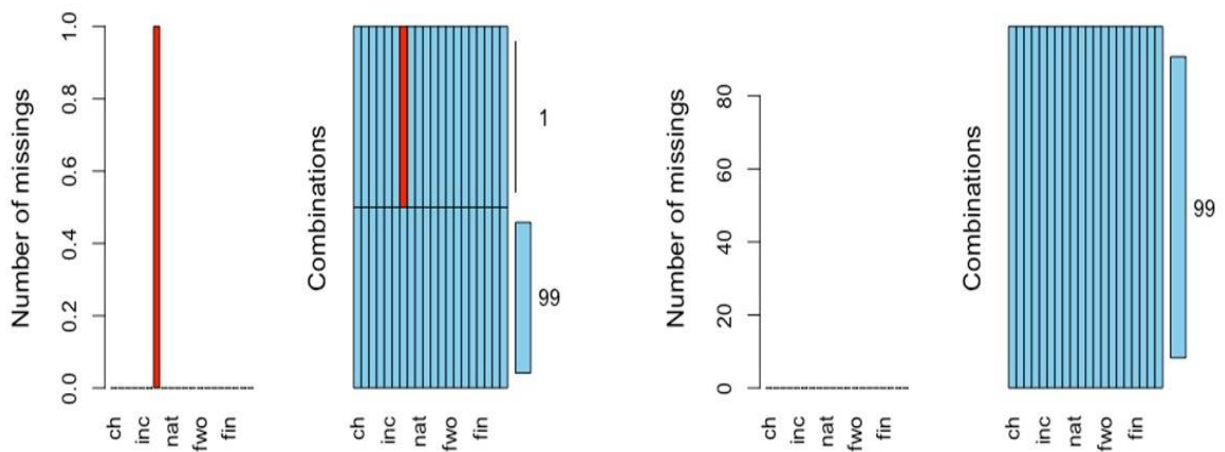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여 가정 예배 활성화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과 가정 예배 시행 여부에 대한 문항들이 잘 구성되었는지 문항 구성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문항 구성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 척도를 살펴보았다.

<표 3> 신뢰도 분석

순번	분류	Cronbach's alpha 값
1	신앙에 대한 질문	0.72
2	가정 예배 대한 질문	0.33

교회 구분에 따른 각 변수 별 차이는 설문을 두 교회로 나눈 상태에서 각 교회 별로 각 설문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여 유의수준(p-value)이 0.05 보다 이하 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파악하였다. 연구 설문 결과 중에 전체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었다. 이 부분은 전체 데이터 중 결측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e-04}\%$ 수준이었으며, 설문 결과에서 총 1 개의 결측치가 있었다. 전체 데이터 중 결측치를 아래 그림과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표 4> 다중대체 설문 응답 값



이를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완전제거법 대신에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 M.I.)을 사용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무응답 결측 처리를 시행하였는데, 결측률이 30% 이하인 경우 통계적 편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인용, 동 조사분석을 위해 다중대체법으로 설문결과를 분석하게 되었다.

3. 설문 결과 분석

연구자는 R 통계(R-Statistics)를 통하여 얻은 설문 결과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으로 진행하여 표로 표기하였다. 유의미한 결과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빈도분석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성별, 연령,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영역에 따른 가정 예배 참여에 대한 인식은 교차분석의 X^2 검증 방법(유의 확률 0.05 양측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에 응답한 두 교회 중 한 곳은 A 교회로 표기하며 또 다른 한 곳의 분석결과를 B 로 표기하였다. 두 교회를 A 와 B 로 나누어 선정하게 된 것은 두 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수 많은 교단 중 동일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에 소속되어 있으며, 성도 수와 평균 연령, 설립 년도가 비슷하다. 또한 지역사회에 서로 근접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기에, 설문대상자들의 삶의 문화 수준과 생활 양식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며, 무엇보다 선정 이유로는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한 다음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하고자 매진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1) 인구사회학적 분석

(1) A, B 교회 분석

<표 5> 인구사회학적 영역

구분	A 교회	B 교회
----	------	------

사례내용/소계		전체(빈도수(N))	백분율(%)	전체(빈도수(N))	백분율(%)
		50	100.0%	50	100.0%
성별	남	14	28.0%	9	18.0%
	여	36	72.0%	41	82.0%
	소계	50	100.0%	50	100.0%
나이	20-29세	3	6.0%	1	2.0%
	30-39세	11	22.0%	13	26.0%
	40-49세	16	32.0%	12	24.0%
	50세 이상	20	40.0%	24	48.0%
	소계	50	100.0%	50	10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0	0.0%	1	2.0%
	고등학교 졸업	18	36.0%	14	28.0%
	대학교 졸업	32	64.0%	28	56.0%
	대학원 졸업	0	0.0%	7	14.0%
	소계	50	100.0%	50	100.0%
한달 평균 가구 총소득	100-199만원	2	4.0%	2	4.0%
	200-299만원	7	14.0%	12	24.0%
	300-399만원	20	40.0%	21	42.0%
	400만원 이상	21	42.0%	15	30.0%
	소계	50	100.0%	50	100.0%
신앙생활 년수	0-5년	0	0.0%	0	0.0%
	6-10년	0	0.0%	2	4.0%
	11-15년	6	12.0%	8	16.0%
	16년 이상	44	88.0%	40	80.0%
	소계	50	100.0%	50	100.0%
직분	평신도	8	16.0%	7	14.0%
	집사	27	54.0%	29	58.0%
	권사	12	24.0%	12	24.0%
	장로	2	4.0%	2	4.0%
	소계	50	100.0%	50	100.0%
자녀 수	0명	8	16.0%	1	2.0%
	1명	4	8.0%	8	16.0%
	2명	29	58.0%	30	60.0%
	3명 이상	9	18.0%	11	22.0%
	소계	50	100.0%	50	100.0%

설문에 응답한 두 교회의 인구사회학적 영역을 보면, A 교회는 남성이 28.0%, 여성이 72.0%이고,

B 교회는 남성이 18.0%, 여성이 82.0%로 응답자들 중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A 교회**는 20-29 세 6.0%, 30-39 세 22.0%, 40-49 세 32.0%, 50 세 이상이 40.0%이다. **B 교회**는 20-29 세 2.0%, 30-39 세 26.0%, 40-49 세 24.0%, 50 세 이상 48.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자녀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30 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설문 응답에 높은 비율을 볼 수 있으며, **A 교회**는 40.0%, **B 교회**는 48.0%가 50 세 이상에서 설문 응답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종 학력은 **A 교회**는 고등학교 졸업 36.0%, 대학교 졸업 32%이고, **B 교회**는 중학교 졸업 2.0%, 고등학교 졸업 28.0%, 대학교 졸업 56.0%, 대학원 졸업 14.0%이다.

한달 평균 가구 총소득은 **A 교회**는 100-199 만원 4.0%, 200-299 만원 14.0%, 300-399 만원 40.0%, 400 만원 이상은 42.0%이고, **B 교회**는 100-199 만원 4.0%, 200-299 만원 24.0%, 300-399 만원 42.0%, 400 만원 이상 30.0%이다.

신앙 생활 년수와 직분을 나눈 이유는 신앙의 년수와 직분에 따라 자녀 교육을 위한 가정 예배에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하였다. 신앙 생활 년수는, **A 교회**는 11-15 년 12.0%, 16 년 이상 88.0%이고, **B 교회**는 6-10 년 4.0%, 11-15 년 16.0%, 16 년 이상 8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신앙 생활 년수가 11 년 이상이 설문 응답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직분은 **A 교회**가 평신도 16.0%, 집사 54.0%, 권사 24.0%, 장로 4.0%이고, **B 교회**는 평신도 14.0%, 집사 58.0%, 권사 24.0%, 장로 4.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 교회** 54.0%, **B 교회** 58.0%의 집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 수는 **A 교회**는 0 명 16.0%, 1 명 8.0%, 2 명 58.0%, 3 명 이상이 18.0% 이고, **B 교회**는 0 명 2.0%, 1 명 16.0%, 2 명 60.0%, 3 명 22.0%로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1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하고 있다.

<표 6>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구원관

구분	A 교회	B 교회
----	------	------

사례내용/소계		전체(빈도수(N))	백분율(%)	전체(빈도수(N))	백분율(%)
		50	100.0%	50	100.0%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	믿는다	50	100.0%	50	100.0%
	믿지 않는다	0	0.0%	0	0.0%
	소계	50	100.0%	50	100.0%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구원관에 대한 물음에 A·B 교회 모두 100.0%(50명)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7> 생활 속에서의 신앙 생활

구분 사례내용/소계		A 교회		B 교회	
		전체(빈도수(N))	백분율(%)	전체(빈도수(N))	백분율(%)
		50	100.0%	50	100.0%
교회 예배나 모임 참석 횟수	1주일에 1회	30	60.0%	12	24.0%
	1주일에 2회	12	24.0%	15	30.0%
	1주일에 3회	6	12.0%	12	24.0%
	1주일에 4회	2	4.0%	11	22.0%
	소계	50	100.0%	50	100.0%
성경을 읽는 횟수	하루에 한번	20	40.0%	35	70.0%
	일주일에 한번	27	54.0%	15	30.0%
	한 달에 한번	3	6.0%	0	0.0%
	소계	50	100.0%	50	100.0%
기도를 하는 횟수	하루에 한번	44	88.0%	45	90.0%
	일주일에 한번	3	6.0%	5	10.0%
	한 달에 한번	3	6.0%	0	0.0%
	소계	50	100.0%	50	100.0%

생활 속에서의 신앙생활에 질문 중, 교회 예배나 모임 참석 횟수는 A 교회가 1주일에 1회 60.0%, 1주일에 2회 24.0%, 1주일에 3회 12.0%, 1주일에 4회 4.0%이고, B 교회는 1주일에 1회 24.0%, 1주일에 2회 30.0%, 1주일에 3회 24.0%, 1주일에 4회 22.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 교회는 1주일에 1회가 60.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B 교회보다 참석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성경을 읽는 횟수는 A 교회는 하루에 한번 40.0%, 일주일에 한번 54.0%, 한 달에 한번 6.0%이고, B 교회는 하루에 한번 70.0%, 일주일에 한번 30.0%이다. 기도를 하는 횟수는 A 교회는 하루에 한번 88.0%, 일주일에 한번 6.0%, 한 달에 한번 6.0%이고, B 교회는 하루에 한번 90.0%, 일주일에 한번 10.0%이다.

<표 8>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의 영향력

구분		A 교회		B 교회	
사례내용/소계		전체(빈도수(N))	백분율(%)	전체(빈도수(N))	백분율(%)
		50	100.0%	50	100.0%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의 영향력	매우 큰 영향을 준다	23	46.0%	25	50.0%
	많은 영향을 준다	27	54.0%	25	50.0%
	약간의 영향을 준다	0	0.0%	0	0.0%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0	0.0%	0	0.0%
	소계	50	100%	50	100%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의 영향력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A 교회는 매우 큰 영향을 준다 46.0%, 많은 영향을 준다 54.0%이고, B 교회는 매우 큰 영향을 준다 50.0%, 많은 영향을 준다 5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에 신앙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9> 가정 예배 실천과 그에 대한 이유

구분		A 교회		B 교회	
사례내용/소계		전체(빈도수(N))	백분율(%)	전체(빈도수(N))	백분율(%)
		50	100.0%	50	100.0%
가정 예배	드린다	12	24.0%	25	50.0%
	드리지 않는다	38	76.0%	25	50.0%
	소계	50	100.0%	50	100.0%
일주일에 가정 예배	1회	5	41.6%	18	72.0%
	2회	3	25.0%	2	8.0%

드리는 횟수	3회	2	16.7%	0	0.0%
	4회	2	16.7%	5	20.0%
	소계	12	100.0%	25	100.0%
가정 예배에 대한 생각	매우 필요하다	10	20.0%	18	36.0%
	필요하다	36	72.0%	31	62.0%
	필요하지 않다	4	8.0%	1	2.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0	0.0%
	소계	50	100.0%	50	100.0%
가정 예배 드리는 이유	가족간의 신앙 진수	18	90.0%	35	80.5%
	가족간의 친목 도모	1	5.0%	3	8.0%
	교회에서의 프로그램	1	5.0%	4	9.2%
	모르겠다	0	0.0%	1	2.3%
	소계	20	100.0%	43	100.0%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	가족간 예배 시간 맞추기 어려움	17	37.0%	12	35.0%
	가족간의 비협조	21	46.0%	18	53.0%
	가정 예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7	15.0%	3	9.1%
	가정 예배 인도의 부담감	1	2.0%	1	2.9%
	소계	46	100.0%	50	100.0%

가정 예배 실천과 그에 대한 이유의 물음에는 A 교회는 드린다 24.0%, 드리지 않는다 76.0%이고, B 교회는 드린다 50.0%, 드리지 않는다 5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드린다는 차이는 B 교회가 26.0% 높으며, 드리지 않는다는 차이는 26.0%로 A 교회가 높다. B 교회가 A 교회보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 준다.

일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횟수는 A 교회는 1 회 41.6%, 2 회 25.0%, 3 회 16.7%, 4 회 16.7%이고, B 교회는 1 회 72.0%, 2 회 8.0%, 4 회 20.0%이다. A 교회보다 B 교회가 가정 예배를 더 자주 드리고 있는 비율을 볼 수 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생각은 A 교회는 매우 필요하다 20.0%, 필요하다 72.0%, 필요하지 않다 8.0%이고, B 교회는 매우 필요하다 36.0%, 필요하다 62.0%, 필요하지 않다 2.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 교회는 매우 필요하다 20.0%, 필요하다 72.0%, B 교회는 매우 필요하다 36.0%, 필요하다 62.0%로서, A·B 교회 둘 다 가정 예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A 교회는 가족간의 신앙 전수 90.0%, 가족간의 친목 도모 5.0%, 교회에서의 프로그램 5.0%이고, B 교회는 가족간의 신앙 전수 80.5%, 가족간의 친목 도모 8.0%, 교회에서의 프로그램 9.2%, 모르겠다 2.3%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B 교회 둘 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가족간의 신앙 전수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A 교회가 가족간 예배 시간 맞추기 어려움 37.0%, 가족간의 비협조 46.0%, 가정 예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5.0%, 가정 예배 인도의 부담감 2.0%이고, B 교회는 가족간 예배 시간 맞추기 어려움 35.0%, 가족간의 비협조 53.0%, 가정 예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9.1%, 가정 예배 인도의 부담감 2.9%이다. A·B 교회 둘 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가족간의 비협조가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표 10> 가정 예배 활성화로 인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

구분		A 교회		B 교회	
사례내용/소계		전체(빈도수(N))	백분율(%)	전체(빈도수(N))	백분율(%)
		50	100.0%	50	100.0%
가정 예배가 자녀들 신앙 전수에 대한 생각	반드시 필요하다	18	36.0%	21	42.0%
	필요하다	29	58.0%	28	56.0%
	필요하지 않다	3	6.0%	1	2.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0	0.0%
	소계	50	100.0%	50	100.0%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가정	43	86.0%	45	90.0%
	교회	7	14.0%	5	10.0%
	학교	0	0.0%	0	0.0%
	소계	50	100.0%	50	100.0%
가정 예배	본인의 결단과	19	38.0%	28	56.0%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시행				
	교회의 교육과 홍보	31	62.0%	18	36.0%
	가정 예배 안내서 제작	0	0.0%	0	0.0%
	시간적 배려	0	0.0%	4	8.0%
	소계	50	100.0%	50	100.0%

가정 예배 활성화로 인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에 대한 물음에, 가정 예배가 자녀들의 신앙 전수에 A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36.0%, 필요하다 58.0%, 필요하지 않다 6.0%이고, B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42.0%, 필요하다 56.0%, 필요하지 않다 2.0%이다.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A·B 교회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 양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물음에는, A 교회는 가정 86.0%, 교회 14.0%이고, B 교회는 가정 90.0%, 교회 1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가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 자녀들을 위한 신앙 전수와 양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A 교회는 본인의 결단과 시행 38.0%, 교회의 교육과 홍보 62.0%이고, B 교회는 본인의 결단과 시행 56.0%, 교회의 교육과 홍보 36.0%, 시간적 배려 4.0%이다. A 교회는 교회의 교육과 홍보가 62.0%로서 B 교회보다 26.0% 높은 비율을 보여 주며, B 교회는 본인의 결단과 시행이 56.0%로 A 교회보다 18.0%의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표 11> 가정 예배 드리는 형식

구분		A 교회		B 교회	
		전체(빈도수(N))	백분율(%)	전체(빈도수(N))	백분율(%)
사례내용/소계		50	100.0%	50	100.0%
가정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진행 방법	교회에서 배부한 예배 순서지에 따라 진행	11	22.0%	10	20.0%
	부모가 일방적 진행	0	0.0%	0	0.0%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눔	39	78.0%	40	80.0%
	모르겠다	0	0.0%	0	0.0%
	소계	50	100.0%	50	100.0%
가정 예배를 자녀와 함께 대화와 토론하는 것	좋다	40	80.0%	48	96.0%
	나쁘다	0	0.0%	0	0.0%
	모르겠다	10	20.0%	1	2.0%
	소계	50	100.0%	49	100.0%

가정 예배 드리는 형식의 물음 중, 가정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진행 방법에 대해 A 교회는 교회에서 배부한 예배 순서지에 따라 진행 22.0%,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눔이 78.0%이고, B 교회는 교회에서 배부한 예배 순서지에 따라 진행 20.0%,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눔 8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정 예배 드리는 형식은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눔이 A 교회는 78.0%, B 교회는 80.0%로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가정 예배를 자녀와 함께 대화와 함께 토론하는 것에 대해 A 교회는 좋다 80.0%, 모르겠다 20.0%이고, B 교회는 좋다 96.0%, 모르겠다 2.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정 예배를 자녀와 함께 대화와 토론하는 것이 A 교회는 80.0%, B 교회는 96.0%로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가정 예배는 교회의 전통 예배 형식보다 자녀들과 함께 삶과 말씀을 대화로 나누는 것이 더 좋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2> 가정 예배에 대한 교회의 지원과 가족의 행복감

구분		A 교회		B 교회	
사례내용/소계		전체(빈도수(N))	백분율(%)	전체(빈도수(N))	백분율(%)
		50	100.0%	50	100.0%
교회가 가정 예배에 대처하는 방안	매우 강조한다	8	16.0%	11	22.0%
	강조한다	36	72.0%	38	76.0%
	강조하지 않는다	6	12.0%	1	2.0%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	0	0.0%	0	0.0%
	소계	50	100.0%	50	100.0%

가정 예배 실천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에 참여 여부	있다	40	80.0%	40	80.0%
	없다	0	0.0%	4	8.0%
	모르겠다	10	20.0%	6	12.0%
	소계	50	100.0%	50	100.0%
행복한 가정을 위해 중요한 것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	45	90.0%	46	92.0%
	가족의 경제적 여유	0	0.0%	1	2.0%
	가족 개개인의 행복	5	10.0%	3	6.0%
	가족 개개인의 자유 보장	0	0.0%	0	0.0%
	소계	50	100.0%	50	100.0%
가정 예배로 인한 가족의 행복감	비례한다	41	82.0%	42	84.0%
	반비례한다	0	0.0%	1	2.0%
	모르겠다	9	18.0%	7	14.0%
	소계	50	100.0%	50	100.0%

가정 예배에 대한 교회의 지원과 가족의 행복감에 대한 물음 중, 교회가 가정 예배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A 교회는 매우 강조한다 16.0%, 강조한다 72.0%, 강조하지 않는다 12.0%이고, B 교회는 매우 강조한다 22.0%, 강조한다 76.0%, 강조하지 않는다 2.0%이다. A 교회와 B 교회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임을 알 수 있다.

가정 예배 실천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참여 여부는 A 교회는 있다 80.0%, 모르겠다 20.0%이고, B 교회는 있다 80.0%, 없다 8.0%, 모르겠다 12.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정 예배 실천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에 참여에 대한 의사가 A·B 교회 80.0%가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가정 예배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A 교회는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 90.0%, 가족 개개인의 행복 10.0%, B 교회는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 92.0%, 가족의 경제적 여유 2.0%, 가족 개개인의 행복 6.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이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가정 예배로 인한 가족의 행복감은 A 교회가 비례한다 82.0%, 모르겠다 18.0%이고, B 교회는 비례한다 84.0%, 반비례하다 2.0%, 모르겠다 14.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정 예배로 인해 가족의 행복감은 A 교회는 82.0%, B 교회는 84.0%가 비례하는 것에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가족의 행복감과 연결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3> 교회 구분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

구분 사례내용/소계		A 교회		B 교회	
		전체 (빈도수(N))	백분율 (%)	전체 (빈도수(N))	백분율 (%)
		50	100.0%	50	10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0	0.0%	1	2.0%
	고등학교 졸업	18	36.0%	14	28.0%
	대학교 졸업	32	64.0%	28	56.0%
	대학원 졸업	0	0.0%	7	14.0%
	소계	50	100.0%	50	100.0%
성경을 읽는 횟수	하루에 한번	20	40.0%	35	70.0%
	일주일에 한번	27	54.0%	15	30.0%
	한 달에 한번	3	6.0%	0	0.0%
	거의 읽지 않는다	0	0.0%	0	0.0%
	소계	50	100.0%	50	100.0%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본인의 결단과 시행	19	38.0%	28	56.0%
	교회의 교육과 홍보	31	62.0%	18	36.0%
	가정 예배 안내서 제작	0	0.0%	0	0.0%
	가정 예배를 위한 시간적 배려	0	0.0%	4	8.0%
	소계	50	100.0%	50	100.0%

교회 구분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 중, 최종 학력은 A 교회는 고등학교 졸업 36.0%, 대학교 졸업 64.0%이고, B 교회는 중학교 졸업 2.0%, 고등학교 졸업 28.0%, 대학교 졸업 56.0%, 대학원 졸업 14.0%이다.

성경을 읽는 횟수는 A 교회는 하루에 한번 40.0%, 일주일에 한번 54.0%, 한 달에 한번 6.0%이고,

B 교회는 하루에 한번 70.0%, 일주일에 한번 30.0%이다. 하루에 한번 성경을 읽는 것의 차이는, B 교회가 A 교회보다 30.0%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B 교회가 A 교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A 교회는 본인의 결단과 시행 38.0%, 교회의 교육과 홍보 62.0%이고, B 교회는 본인의 결단과 시행 56.0%, 교회의 교육과 홍보 36.0%, 가정 예배를 위한 시간적 배려 8.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는 A 교회는 B 교회보다 26.0% 차이를 보여주면서 교회의 교육과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B 교회는 A 교회보다 18.0% 차이로 본인의 결단과 시행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을 보여 주었다.

<표 14> 의사결정에 신앙의 영향력 여부가 가정 예배 필요성에 대한 생각 여부

구분		A 교회		B 교회	
사례내용/소계		전체(빈도수(N))	백분율(%)	전체(빈도수(N))	백분율(%)
		48	100%	52	100%
가정 예배에 대한 생각	매우 필요하다	22	45.8%	6	11.5%
	필요하다	25	52.1%	42	80.8%
	필요하지 않다	1	2.1%	4	7.7%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0	0.0%

의사결정에 신앙의 영향력 여부가 가정 예배 필요성에 대한 생각 여부의 물음에는 A 교회는 매우 필요하다 45.8%, 필요하다 52.1%, 필요하지 않다 2.1%이고, B 교회는 매우 필요하다 11.5%, 필요하다 80.0%, 필요하지 않다 7.7%이다.

<표 15> 가정 예배 드리는 그룹 여부가 가정 예배 필요성에 대한 생각 여부

구분		A 교회		B 교회	
사례내용/소계		전체(빈도수(N))	백분율(%)	전체(빈도수(N))	백분율(%)
		37	100%	63	100%
가정 예배에 대한 생각	매우 필요하다	23	62.2%	5	7.9%
	필요하다	14	37.8%	53	84.1%
	필요하지 않다	0	0.0%	5	7.9%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0	0.0%
--	------------	---	------	---	------

가정예배 드리는 그룹 여부가 가정예배 필요성에 대한 생각 여부의 물음에는 A 교회는 매우 필요하다 62.2%, 필요하다 37.8%이고, B 교회는 매우 필요하다 7.9%, 필요하다 84.1%, 필요하지 않다 7.9%이다. A·B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그룹은 가정 예배의 필요성이 높은 응답으로 나오고 있다.

(2) A, B 교회와 성별 분석

<표 16> 교회에서의 직분과 자녀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 양육 장소 여부

구분		A 교회				B 교회			
		남		여		남		여	
사례내용/소계		전체 (빈도 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 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 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 수 (N))	백분율 (%)
				14	100.0%	36	100.0%	9	100.0%
교회에서 의 직분	평신도	4	28.6%	4	12.0%	0	0.0%	7	17.0%
	집사	8	57.1%	19	54.0%	7	77.8%	22	53.7%
	권사	0	0.0%	12	34.0%	0	22.2%	12	29.3%
	장로	2	14.3%	0	0.0%	2	4.0%	0	0.0%
	소계	14	100.0%	36	100%	9	100.0%	41	100.0%
자녀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 양육 장소	가정	12	85.7%	31	86.1%	6	66.7%	39	95.1%
	교회	2	14.3%	5	13.9%	3	33.3%	2	4.9%
	학교	0	0.0%	0	0.0%	0	0.0%	0	0.0%
	모르겠다	0	0.0%	0	0.0%	0	0.0%	0	0.0%
	소계	14	100.0%	36	100.0%	9	100.0%	41	100%

교회에서의 직분에 대한 물음에 A 교회는 남자 평신도 28.6%, 집사 57.1%, 장로 14.3%이고, 여자 평신도 12.0%, 집사 54.0%, 권사 34.0%이다. B 교회는 남자 집사 77.8%, 장로 4%, 여자 평신도 17%, 집사 53.7%, 권사 29.3%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집사들의 비율이 A·B

교회의 응답자 중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녀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 양육 장소에 대한 물음에 대해 A 교회의 남자 가정 85.7%, 교회 14.3%이고, 여자 가정 86.1%, 교회 13.9%이다. B 교회도 남자 가정 66.7%, 교회 33.3%이고, 여자 가정 95.1%, 교회 4.9%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녀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 양육의 장소는 가정이 높은 비율로 보여 준다.

<표 17> 성경을 읽는 횟수

구분		A 교회				B 교회			
		남		여		남		여	
사례내용/소계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23	100.0%	27	100.0%	25	100.0%
성경을 읽는 횟수	하루에 한번	16	69.6%	4	14.8%	23	92%	12	48%
	일주일에 한번	7	30.4%	20	74.1%	2	8%	13	52%
	한 달에 한번	0	0.0%	3	11.1%	0	0.0%	0	0.0%
	거의 읽지 않는다	0	0.0%	0	0.0%	0	0.0%	0	0.0%

성경을 읽는 횟수는 A 교회는 남자 하루에 한번 69.6%, 일주일에 한번 30.4%이고, 여자 하루에 한번 14.8%, 일주일에 한번 74.1%, 한 달에 한번 11.1%이다. B 교회는 남자 하루에 한번 92.0%, 일주일에 한번 8.0%이고, 여자 하루에 한번 48.0%, 일주일에 한번 52.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B 교회의 남자들이 성경을 읽는 횟수가 여자들보다 더 자주 읽고 있음을 비율로 보여주며, A 교회보다는 B 교회의 남자들이 더 자주 읽고 있는 것으로 비율을 나타낸다.

<표 18> 가정 예배 생각에 대한 여부

구분	A 교회		B 교회	
	남	여	남	여

사례내용/소계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23	100.0%	27	100.0%	25	100.0%	25	100.0%
가정 예배에 대한 생각	매우 필요하다	8	34.8%	2	7.4%	14	56%	4	16.0%
	필요하다	14	60.9%	22	81.5%	11	44%	20	80.0%
	필요하지 않다	1	4.3%	3	11.1%	0	0.0%	1	4.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0	0.0%	0	0.0%	0	0.0%

가정 예배에 대한 생각은 A 교회는 남자 매우 필요하다 34.8%, 필요하다 60.9%, 필요하지 않다 4.3%이고, 여자 매우 필요하다 7.4%, 필요하다 81.5%, 필요하지 않다 11.1%이다. B 교회는 남자 매우 필요하다 56.0%, 필요하다 44.0%이고, 여자 매우 필요하다 16.0%, 필요하다 80.0%, 필요하지 않다 4.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두 교회 모두 남녀 상관없이 가정 예배는 필요하다 응답에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9>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구분		A 교회				B 교회			
		남		여		남		여	
사례내용/소계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23	100.0%	27	100.0%	25	100.0%	25	100.0%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본인의 결단과 시행	12	52.2%	7	25.9%	19	76.0%	9	36.0%
	교회의 교육과 홍보	11	47.8%	20	74.1%	3	12.0%	15	60.0%
	가정 예배 안내서 제작	0	0.0%	0	0.0%	0	0.0%	0	0.0%

	시간적 배려	0	0.0%	0	0.0%	3	12.0%	1	4.0%
--	--------	---	------	---	------	---	-------	---	------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A 교회는 남자 본인의 결단과 시행 52.2%, 교회의 교육과 홍보 47.8%이고, 여자 본인의 결단과 시행 25.9%, 교회의 교육과 홍보 74.1%이다. B 교회는 남자 본인의 결단과 시행 76.0%, 교회의 교육과 홍보 12.0%, 시간적 배려 12.0%이고, 여자 본인의 결단과 시행 36.0%, 교회의 교육과 홍보 60.0%, 시간적 배려 4.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B 교회의 남자들은 각각 52.2%, 76.0%로서 본인의 결단과 시행에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여자들은 각각 74.1%, 60.0%로서 교회의 교육과 홍보에 더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 남자들은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까지의 본인의 결단이 시행이 요구되며, 여자들은 교회 차원에서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0> 교회가 가정 예배에 대처하는 방안

구분		A 교회				B 교회			
		남		여		남		여	
사례내용/소계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23	100.0%	27	100.0%	25	100.0%
교회가 가정 예배에 대처하는 방안	매우 강조한다	7	30.4%	1	3.7%	10	40%	1	4.0%
	강조한다	15	65.3%	21	77.8%	14	56%	24	96%
	강조하지 않는다	1	4.3%	5	18.5%	1	4.0%	0	0.0%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	0	0.0%	0	0.0%	0	0.0%	0	0.0%

교회가 가정 예배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A 교회는 남자 매우 강조한다 30.4%, 강조한다 65.3%, 강조하지 않는다 4.3%이고, 여자 매우 강조한다 3.7%, 강조한다 77.8%, 강조하지 않는다 18.5%이

다. B 교회도 남자 매우 강조한다 40.0%, 강조한다 56.0%, 강조하지 않는다 4.0%이고, 여자 매우 강조한다 4.0%, 강조한다 96.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B 교회는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있음을 비율로 알 수 있다. 강조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A 교회의 남자 4.3%, 여자 18.5%이며, B 교회의 남자 4.9%로 응답했다.

2) 신앙에 대한 분석

<표 21> 기도를 하는 횟수

구분		A 교회				B 교회			
		남		여		남		여	
사례내용/소계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43	100.0%	7	100.0%	45	100.0%	5	100.0%
기도를 하는 횟수	하루에 한번	40	93.0%	4	57.1%	42	93.3%	3	60.0%
	일주일에 한번	1	2.3%	2	28.6%	3	6.7%	2	40.0%
	한 달에 한번	2	4.7%	1	14.3%	0	0.0%	0	0.0%
	거의 하지 않는다	0	0.0%	0	0.0%	0	0.0%	0	0.0%

기도를 하는 횟수는 A 교회는 남자 하루에 한번 93.0%, 일주일에 한번 2.3%, 한 달에 한번 4.7%이고, 여자 하루에 한번 57.1%, 일주일에 한번 28.6%, 한 달에 한번 14.3%이다. B 교회는 남자 하루에 한번 93.3%, 일주일에 한번 6.7%이고, 여자 하루에 한번 60.0%, 일주일에 한번 4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B 교회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기도하는 횟수가 높음을 비율로 통해 알 수 있다.

<표 22>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의 영향력 여부

구분	A 교회	B 교회
----	------	------

사례내용/소계		남		여		남		여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43	100.0%	7	100.0%	42	100.0%	5	100.0%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의 영향력	매우 큰 영향을 준다	22	51.2%	1	14.3%	22	52.0%	0	0.0%
	많은 영향을 준다	21	48.8%	6	85.7%	20	48.0%	5	100.0%
	약간의 영향을 준다	0	0.0%	0	0.0%	0	0.0%	0	0.0%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0	0.0%	0	0.0%	0	0.0%	0	0.0%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앙의 영향력은 A 교회는 남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51.2%, 많은 영향을 준다 48.8%이고, 여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14.3%, 많은 영향을 준다 85.7%이다. B 교회는 남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52.0%, 많은 영향을 준다 48.0%이고, 여자 많은 영향을 준다 10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B 교회 남녀 모두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신앙의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됨을 보여 준다.

3) 가정 예배 사역에 대한 분석

<표 23> 가정 예배 시행 여부

구분		A 교회				B 교회			
		남		여		남		여	
사례내용/소계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43	100.0%	7	100.0%	45	100.0%	5	100.0%
가정 예배 시행 여부	드린다	12	27.9%	0	0.0%	24	53.3%	1	20.0%
	드리지 않는다	31	72.1%	7	100.0%	21	46.7%	4	80.0%

가정 예배 시행 여부는 A 교회는 남자 드린다 27.9%, 드리지 않는다 72.1%이고, 여자 드리지 않는다 100.0%이다. B 교회는 남자 드린다 53.3%, 드리지 않는다 46.7%이고, 여자 드린다 20.0%, 드리지 않는다 8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 교회가 남자가 B 교회 남자보다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25.4%, A 교회 여자가 B 교회 여자보다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20.0% 차이가 난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비율은 A 교회 남자가 B 교회 남자에게 25.4%의 차이가 나며, A 교회 여자는 B 교회 여자보다 20.0%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 준다. A 교회가 남녀가 B 교회 남녀보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표 24> 가정 예배에 대한 생각 여부

구분		A 교회				B 교회			
		남		여		남		여	
사례내용/소계		전체 (빈도 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 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 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 수 (N))	백분율 (%)
				43	100.0%	7	100.0%	45	100.0%
가정 예배에 대한 생각	매우 필요하다	10	23.3%	0	0.0%	17	37.8%	1	20.0%
	필요하다	33	76.7%	3	42.9%	28	62.2%	3	60.0%
	필요하지 않다	0	0.0%	4	57.1%	0	0.0%	1	2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0	0.0%	0	0.0%	0	0.0%

가정 예배에 대한 생각은 A 교회는 남자 매우 필요하다 23.3%, 필요하다 76.7%이고, 여자 필요하다 42.9%, 필요하지 않다 57.1%이다. B 교회는 남자 매우 필요하다 37.8%, 필요하다 62.2%이고, 여자 매우 필요하다 20.0%, 필요하다 60.0%, 필요하지 않다 2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B 교회 남녀 모두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교육으로 가정 예배는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가정 예배의 필요도는 남자들이 더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A 교회 여자 57.1%, B

교회 여자 20.0%는 가정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25> 가정 예배가 자녀들 신앙 전수에 대한 생각 여부

구분		A 교회				B 교회			
		남		여		남		여	
사례내용/소계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43	100.0%	7	100.0%	45	100.0%	5	100.0%
가정 예배가 자녀들 신앙 전수에 대한 생각	반드시 필요하다	18	41.9%	0	0.0%	20	44.4%	1	20.0%
	필요하다	25	58.1%	4	57.1%	25	55.6%	3	60.0%
	필요하지 않다	0	0.0%	3	42.9%	0	0.0%	1	2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0	0.0%	0	0.0%	0	0.0%

가정 예배가 자녀들 신앙 전수에 대한 생각은 A 교회는 남자 반드시 필요하다 41.9%, 필요하다 58.1%이고, 여자 필요하다 57.1%, 필요하지 않다 42.9%이다. B 교회는 남자 반드시 필요하다 44.4%, 필요하다 55.6%이고, 여자 반드시 필요하다 20.0%, 필요하다 6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B 교회 남녀는 가정 예배가 자녀들 신앙 전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B 교회 여자 20.0%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26> 가정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진행 방법

구분		A 교회				B 교회			
		남		여		남		여	
사례내용/소계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43	100%	7	100%	45	100%	5	100%

가정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진행 방법	교회에서 배부한 예배 순서지에 따라 진행	6	14.0%	5	71.4%	7	15.6%	3	60.0%
	부모가 일방적 진행	0	0.0%	0	0.0%	0	0.0%	0	0.0%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눔	37	86%	2	28.6%	38	84.4%	2	40.0%

가정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진행 방법은 생각은 A 교회는 남자 교회에서 배부한 예배 순서지에 따라 진행 14.0%,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눔 86.0%이다. 여자 교회에서 배부한 예배 순서지에 따라 진행 71.4%,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눔 28.6%이다. B 교회는 남자 교회에서 배부한 예배 순서지에 따라 진행 15.6%,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눔 84.4%이다. 여자 교회에서 배부한 예배 순서지에 따라 진행 60.0%,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눔 4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정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진행 방법 중 A·B 교회 남자 A 교회 86.0%, B 교회 84.4%로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눔의 비율이 높았으며, 여자 A 교회 71.4%, B 교회 60.0%로 교회에서 배부한 예배 순서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더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7> 교회가 가정 예배에 대처하는 방안

구분	A 교회				B 교회				
	남		여		남		여		
사례내용/소계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43	100.0%	7	100.0%	45	100.0%	5	100%	
교회가 가정 예배에	매우 강조한다	8	18.6%	0	0.0%	11	24.4%	0	0.0%
	강조한다	34	79.1%	2	28.6%	33	73.3%	5	100%

대처하는 방안	강조하지 않는다	1	2.3%	5	71.4%	1	2.2%	0	0%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	0	0.0%	0	0.0%	0	0.0%	0	0.0%

교회가 가정 예배에 대처하는 방안은 A 교회는 남자 매우 강조한다 18.6%, 강조한다 79.1%, 강조하지 않는다 2.3%이고, 여자 강조한다 28.6%, 강조하지 않는다 71.4%이다. B 교회는 남자 매우 강조한다 24.4%, 강조한다 73.3%, 강조하지 않는다 2.2%이고, 여자 강조한다 1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B 교회에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높은 비율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A 교회의 여자들은 강조하지 않는다 71.4%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 미흡함을 비율로 보여주고 있다.

<표 28> 행복한 가정을 위해 중요한 것

구분	A 교회				B 교회				
	남		여		남		여		
사례내용/소계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전체 (빈도수 (N))	백분율 (%)	
	43	100.0%	7	100.0%	45	100.0%	5	100.0%	
행복한 가정을 위해 중요한 것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	42	97.7%	3	42.9%	43	95.6%	3	60.0%
	가족의 경제적 여유	0	0.0%	0	0.0%	0	0.0%	1	20.0%
	가족 개개인의 행복	1	2.3%	4	57.1%	2	4.4%	1	20.0%
	가족 개개인의 자유 보장	0	0.0%	0	0.0%	0	0.0%	0	0.0%

행복한 가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A 교회는 남자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 97.9%, 가족 개개인의 행복

2.3%이고, 여자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 42.9%, 가족 개개인의 행복 57%이다. B 교회는 남자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 95.6%, 가족 개개인의 행복 4.4%이고, 여자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 60.0%, 가족의 경제적 여유 20.0%, 가족 개개인의 행복 20.0%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A·B 교회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고 응답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A·B 교회 남자들이 각각 97.7%, 95.6%로, 여자들이 각각 42.9%, 60.0%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9> 신앙 전수를 위한 가정 예배 필요성

구분		A 교회		B 교회	
		전체(빈도수(N))	백분율(%)	전체(빈도수(N))	백분율(%)
사례내용/소계		88	100.0%	12	100.0%
가정 예배에 대한 생각	매우 필요하다	27	30.7%	1	8.3%
	필요하다	61	69.3%	6	50.0%
	필요하지 않다	0	0.0%	5	41.7%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0	0.0%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교육을 위한 가정 예배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A 교회는 매우 필요하다 30.7%, 필요하다 69.3%이고, B 교회는 매우 필요하다 8.3%, 필요하다 50.0%, 필요하지 않다 41.7%이다. A·B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면 B 교회보다 A 교회가 신앙 전수를 위해 가정 예배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차지 하고 있다.

4) 교차 분석

빈도 분석 시행 후 가정 예배 활성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연령 구분과 교육 구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피어슨(Pearson)의 카이 제곱 통계량을 통해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연령과 교육 구분에 따라 신앙 생활과 가정 예배 활성화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카이 제곱 통계량을 도출하고, 유의수준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1) 연령 구분에 따른 관계성

연령 구분에 따라 가정 예배의 인식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설을 세운 후 도출된 피어슨(Pearson)의 카이 제곱 통계량의 유의수준이 0.05 보다 작게 나타나면 교회 예배나 모임 참석 횟수, 성경을 읽는 횟수, 기도하는 횟수에 따라 가정 예배의 활성화의 응답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설에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지니게 된다.

<표 30> 연령 구분에 따른 교회 예배나 모임 참석 횟수의 관계성

교회 예배나 모임 참석 횟수	연령 구분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소계
	빈도	4	24	28	44	100
	전체%	4.0%	24.0%	28.0%	44.0%	100.0%
1주일에 1회	빈도	3	15	16	8	42
	전체%	3.0%	15.0%	16.0%	8.0%	42.0%
1주일에 2회	빈도	1	5	6	15	27
	전체%	1.0%	5.0%	6.0%	15.0%	27.0%
1주일에 3회	빈도	0	1	3	14	18
	전체%	0.0%	1.0%	3.0%	14.0%	18.0%
1주일에 4회	빈도	0	3	3	7	13
	전체%	0.0%	3.0%	3.0%	7.0%	13.0%

* p-value 0.009

분석 결과 교회 예배나 모임 참석 횟수의 유의수준이 0.00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연령 구분은 20-29 세 4.0%, 30-39 세 24.0%, 40-49 세 28.0%, 50 세 이상 44.0%로 응답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100 명이다.

교회 예배나 모임 참석 횟수는 1 주일에 1 회 42.0%, 1 주일에 2 회 27.0%, 1 주일에 3 회 18.0%, 1 주일에 4 회 13.0%이다. 1 주일에 1 회 참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교회 예배나 모임에

참석 횟수는 40 세 이상이 72.0%로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부모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회 모임에 대한 참석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며, 1 주일에 참석하는 횟수도 높아짐을 보여 준다.

<표 31> 연령 구분에 따른 성경을 읽는 횟수 관계성

성경을 읽는 횟수	연령 구분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소계
	빈도	4	24	28	44	100
전체%	4.0%	24.0%	28.0%	44.0%	100.0%	
하루에 한번	빈도	0	13	10	32	55
	전체%	0.0%	13.0%	10.0%	32.0%	55.0%
일주일에 한번	빈도	1	11	18	12	42
	전체%	1.0%	11.0%	18.0%	12.0%	42.0%
한 달에 한번	빈도	3	0	0	0	3
	전체%	3.0%	0.0%	0.0%	0.0%	3.0%

* p-value 0.0001

분석 결과 교회 성경을 읽는 횟수의 유의수준이 0.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성경을 읽는 횟수가 하루에 한번 55.0%, 일주일에 한번 42.0%, 한 달에 한번 3.0%이다. 성경을 읽는 횟수는 40 세 이상이 72.0%로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2> 연령 구분에 따른 기도하는 횟수 관계성

기도하는 횟수	연령 구분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소계
	빈도	4	24	28	44	100
전체%	4.0%	24.0%	28.0%	44.0%	100.0%	
하루에 한번	빈도	1	22	24	42	89

	전체%	1.0%	22.0%	24.0%	42.0%	89.0%
일주일에 한번	빈도	0	2	4	2	8
	전체%	0.0%	2.0%	4.0%	2.0%	8.0%
한 달에 한번	빈도	3	0	0	0	3
	전체%	3.0%	0.0%	0.0%	0.0%	3.0%

* p-value 0.0001

분석 결과 성경을 읽는 횟수의 유의수준이 0.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기도하는 횟수가 하루에 한번 89.0%, 일주일에 한번 8.0%, 한 달에 한번 3.0%이다. 기도를 하는 횟수는 40세 이상이 72.0%로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2) 교육 구분에 따른 관계성

교육 구분에 따라 가정 예배의 인식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설을 세운 후 도출된 피어슨(Pearson)의 카이 제곱 통계량의 유의수준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면 신앙 생활 년수, 교회에서의 직분, 가정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면 더 은혜로울 것인지에 따라 가정 예배의 활성화의 응답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설에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지니게 된다.

<표 33> 교육 구분에 따른 신앙 생활 년수 관계성

신앙 생활 년수	최종 학력 구분					소계
	구분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빈도	1	32	60	7	100
	전체%	1.0%	32.0%	60.0%	7.0%	100.0%
6-10년	빈도	0	0	2	0	2
	전체%	0.0%	0.0%	2.0%	0.0%	2.0%
11-15년	빈도	0	0	14	0	14
	전체%	0.0%	0.0%	14.0%	0.0%	14.0%

16년 이상	빈도	1	32	44	7	84
	전체%	1.0%	32.0%	44.0%	7.0%	84.0%

* p-value 0.048

분석 결과 신앙 생활 년수의 유의수준이 0.048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최종 학력 구분은 중학교 졸업 1.0%, 고등학교 졸업 32.0%, 대학교 졸업 60.0%, 대학원 졸업 7.0%로 응답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100 명이다.

신앙 생활 년수는 6-10 년 2.0%, 11-15 년 14.0%, 16 년 이상 84.0%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99.9%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4> 교육 구분에 따른 교회에서의 직분 관계성

교회에서의 직분	최종 학력 구분					소계
	구분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빈도	1	32	60	7	100
	전체%	1.0%	32.0%	60.0%	7.0%	100.0%
평신도	빈도	0	2	13	1	16
	전체%	0.0%	2.0%	13.0%	1.0%	16.0%
집사	빈도	0	9	44	3	56
	전체%	0.0%	9.0%	44.0%	3.0%	56.0%
권사	빈도	1	19	3	1	24
	전체%	1.0%	19.0%	3.0%	1.0%	24.0%
장로	빈도	0	2	0	2	4
	전체%	0.0%	2.0%	0.0%	2.0%	4.0%

* p-value 0.0001

분석 결과 교회에서의 직분의 유의수준이 0.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평신도 16.0%, 집사 56.0%, 권사 24.0%, 장로 4.0%이다.

<표 35> 교육 구분에 따른 가정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면 더 은혜로울 것인가에 대한 관계성

가정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면 더 은혜로울 것인가	최종 학력 구분					소계
	구분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가정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면 더 은혜로울 것인가	빈도	1	32	60	7	100
	전체%	1.0%	32.0%	60.0%	7.0%	100.0%
교회에서 배부한 순서지대로 진행	빈도	0	12	9	0	21
	전체%	0.0%	12.0%	9.0%	0.0%	21.0%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의 나눔	빈도	1	20	51	7	79
	전체%	1.0%	20.0%	51.0%	7.0%	79.0%

* p-value 0.034

분석 결과 가정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면 더 은혜로울 것인가의 유의수준이 0.03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면 더 은혜로울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교회에서 배부한 순서지대로 진행 21.0%,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의 나눔 79.0%이다. 가정 예배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높은 비율로 보여 주고 있다.

4. 소결론

본 설문은 A 교회와 B 교회의 가정 예배 활성화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과 가정 예배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설문의 대상이 교회 전체 성도들 중에서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기에 교회 전체 성도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설문에 참가한 성도들의 가정 예배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며, 특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분석은 긍정적이며, 다음세대들의 신앙을 위한 가정 예배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 필요성에 대한 공유도 잘 되어 있다.

가정 예배가 자녀들의 신앙 전수에 필요함이 A 교회에서의 94%, B 교회에서의 98%의 이상이 보여 주듯이 가정 예배가 자녀들의 신앙 계승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가정 예배의 활성화를 통해 자녀들은 신앙의 기쁨을 세워 가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가족들간의 행복감으로 연결되어 준다.

다음세대들을 위한 신앙 양육과 전수하는 장소로는 가정이며, 각 가정에서의 드리는 가정 예배는 다음세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부모들의 신앙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볼 때에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 전수는 다음세대의 신앙과 인생의 모든 부분에 중요한 모습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 예배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만큼 많은 가정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 예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인들의 시행과 결단을 위해 교회에서의 교육과 홍보, 권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예배 행함이 아닌 자녀와 함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축복하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정 예배는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제 5 장

가정 예배 시행하는 교회의 사례

1. 전통교회에서의 가정 예배 상황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다. 가정 예배가 활성화 된 구성원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스레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며,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파된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가정 예배를 상실하고 있으며 기독교가 유입된 지 100년이 지난 한국 교회에서도 가정 예배는 퇴색된 프로그램처럼 자리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은 유명무실 되어가고 있으며, 교회는 장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어 가기만 한다. 이러한 한국 교회 상황에서 적은 수의 교회들이지만 가정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힘쓰고 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가정의 제단을 회복하고, 특별히 다음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대길교회에서,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역에 가정 예배를 위한 다양한 접목들을 실행해 보았다. 가정 예배를 시행하기 전,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가정 예배에 대한 비전(vision)과 중요성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게끔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 예배 실천에 대해 강조하며 시행에 옮기기에는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시행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처음부터 많은 성도들을 변화시키기에는 교회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으로 각인될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적은 숫자의 성도들부터라도 시작하여 조금씩, 천천히 변화와 도전을 심어주고자 계획하였다.

물론, 이 모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음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한 가정 예배에 활성화에 대해 함께 공감해 주신 대길교회 박현식 담임목사(2020년 11월, 대길교회 원로목사로 추대)의

지원과 배려와 함께 본 교회에서 동역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들의 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된 마음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부교역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배려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 그것도 담임목사의 철학이 맞물릴 때나 가능한 특별한 케이스다. 본 연구자는 그러한 수혜를 입은 자로서 다음세대를 위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교회 교육과 셀(cell)사역의 현장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접목해 올 수 있었다. 5 장은 그러한 배경과 함께, 본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 리서치를 바탕으로 본 교회에 가정 예배가 보다 잘 실행되기 위해 실제적인 제언을 할 것이다

연구자는 본 교회에 부임한(2011년)이후, 현재까지 셀사역위원회 디렉터(Director of Cell Ministry)와 교육위원회 디렉터(Director of the Board of Education)로 섬기고 있다. 셀사역위원회는 교회 전체 교구 관리와 셀 리더 양육을 비롯해 성도들이 소속되어 있는 셀이 예수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역하는 위원회이다. 교육위원회는 본 교회의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주일학교 모든 부서를 감독, 관리를 비롯해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 철학과 정책, 각 부서간 사역들의 연계성을 조율하여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고자 진행하였던 모든 사역들과 그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가정 예배를 시행하고자 하는 교회에 모델이 되어 주고자 한다.

2. 대길교회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한 사역들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 상황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전통교회이다. 1956년에 설립된 이후 64년간 서울 영등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형교회로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사회복지사업에 힘쓰고 있는 교회이다. 주일 예배에 장년 800여명, 주일학교 250여명이 출석하였으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인해 주일 예배 출석율은 급감한 상태이다.

본 교회가 위치 한 곳은 주거환경과 함께 상업 및 가게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최근에는 신도

시 개발에 의해 주거환경들이 개선되고 있다. 주택지 중심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내 사회복지재단²⁹¹으로 인해 정신건강, 노인복지, 지역복지, 아동 청소년 교육 사업 등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회이다. ‘다음세대, 지역사회, 세계선교를 위하여’라는 3대 표어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인도(India)를 비롯해 7개 국가를 위한 선교 사역과 탈북민을 위한 사역으로도 섬기고 있다.

연구자가 본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에는 장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신앙 훈련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많은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다. 교회 목회 비전으로는 셀 목회를 도입하여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며 셀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초기 시기였기에 ‘가정 셀’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도 있었지만, 가족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닌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주중 모임을 하는 조직적인 성격을 띠는 셀이었다.

교회 주일학교는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역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매년 감소되는 출산율과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 출석율도 감소되고 있었다. 모든 부서들이 열심으로 전도 사역에 매진 하였으나, 여러 학원 일정 시간에 쫓기듯이 내 몰리는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일학교 각 부서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해 재정을 비롯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으나, 그에 따른 효과들은 잠깐의 긍정적인 효과만 보여 주었을 뿐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지속성은 감소되고 있었다. 주일날 1시간의 예배와 반별 모임만으로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교역자와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들에게는 가정 예배라는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축복 기도 받는 아이들의 숫자도 미흡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를 보여 주듯이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역자들도 많은 업무와 늦은 귀가로 인해 자녀들을 돌보지 못함과 자녀들의 신앙에 부모들이 직접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절박함들이 있었다.

특히 30, 40대 부모들에게는 육아와 자녀 교육이 중요 관심사였다. 자녀들을 위한 학업 진로를

291) 대길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daegilwelfare.com.>, 2020년 11월 15일 접속.

위해서 우수한 학원 주변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교회를 선택을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동안 본 교회는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사회복지를 통하여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가정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요구에도 호응해야 할 모습도 필요하였다. 교회적으로는 70 주년을 향해 가고 있다. 오래된 역사가 이어져 온 것 만큼 좋은 전통도 있지만 변화해야 할 모습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마 16:16-20)이 변질되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면서 변화할 것을 바꾸어 나가야 할 때이다.

가정 예배 시행에 대한 한국 교회의 상황들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신앙의 구원관에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 예배에 대한 교육과 성도들에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채, 가정 예배 정착이라는 사역적인 성과를 빠른 시일에 요구함으로 인해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감과 상실감으로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본 교회에서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성급하게 시행하기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성도들에게 천천히 가정 예배 철학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본 교회에서 섬기는 주일학교 목회자들과 함께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에 좀더 집중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교회 내 모든 사역들의 프로그램을 가정 예배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으며, 다음세대들의 신앙 전수가 교회에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먼저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할 부모들을 위한 신앙 훈련과 양육하는 사역에 매진하였다. 그 사역의 실패들을 몇 가지 예로 들고자 한다.

1) 남성 셀(Cell) 단합회

첫번째 남성 셀 단합회는 2005년 3월 9일 주일 오후예배 후부터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은 본 교회의 모든 남성 성도인데 이날 50여명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나에 대

한 소개, 공동체 훈련, 성경적 남성애 대한 강의, 소그룹 나눔 및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은 가정과 교회에서 남성에게 주어진 영적 리더십(Leadership)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남성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가정 예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성경적 남편과 아빠로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빠로서 영적 가장의 위치와 사명을 고취함과 함께, 대화와 토론하는 문화를 가짐으로써 차후 가정 예배 시간에 자녀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 예배를 시행하는 것에 혼자가 아닌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격려와 축복의 시간을 통해 가정과 교회에서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교회 내 프로그램 중 남성만을 위한 행사들은 미비하였기에 이 행사에 대한 호응도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남성들의 사회적 위치와 직업으로 인해 매회마다 1박 2일의 시간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2) 셀(Cell) 양육 세미나

셀(Cell) 양육 세미나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봄·가을 1회씩, 봄에는 1단계 과정(5주), 가을에는 2단계 과정(8주)으로 주일 오후예배 후 진행되고 있다. 대상은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본 교회 성도라면 어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강의, 소그룹 나눔 및 발표, 서로를 위한 기도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가정은 하나의 작은 셀이다. 셀 구성원은 가족들이며, 가족을 섬기며 이끌어 갈 사람은 부모이다. 부모가 가정의 셀 리더로 세워지도록 2007년부터 매년 1-2회씩 개최하였다. 성경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자신을 적용하여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함께 남편과 아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하는 시간이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가정 예배의 연관성이 모호하게 보일 수 있겠으나, 설문 조사에서 보았듯이 가정 예배는 인도자 한 사람만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을 통한 삶 속에서의 은혜와 결단, 고민과 기도제목 등을 함께 나누고 경청하는 시간

일수록 다음세대들의 신앙 전수에는 효과적이다.

셀 양육 세미나는 강의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5-30 분의 강의와 함께, 5-6 명이 소 그룹으로 모여서 삶 속에서의 은혜와 죄의 고백, 결단에 대한 경청과 나눔의 시간을 가진다. 매주 모임을 갖는 세미나의 특징으로는 서로에 대한 경청과 나눔(Sharing)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가정도 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에, 가정 예배로 모이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 서로 간에 대한 경청과 나눔이 중요하다.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누는 가정 예배는 전통 예배 형식보다 더 좋은 유익이 있기에, 세미나를 통해 훈련과 도전을 받은 부모들이 가족과의 셀 모임으로도 이어지며 그 시간이 가정 예배로써 잘 정착되기를 기대하였다.

<표 36 - 양육 1단계>

목차	내용
1과. 아버지의 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님의 자녀 2. 성경의 핵심 3. 아버지의 사랑 4. 아버지의 마음 5. 상처와 용서 6. 풍성한 삶 7. 해결책
2과. 십자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자의 길 2. 십자가의 은혜 3. 십자가의 본질 4. 십자가와 공동체 5.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6. 생명을 누림 7. 해결책
3과. 하나님의 음성듣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원의 과거와 현재 2. 주님처럼 기록해지려면 3.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4.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 5.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사역

4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 인생의 가치 2. 예수님짜리 3. 우리에게 주어진 복 4. 진정한 자유 5. 사탄의 전략 6. 견고한 진 7. 해결책
5과. 공동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2. 창조부터 설계된 공동체 3. 교회 공동체 4. 공동체 중심의 삶 5. 성령중심의 공동체 6. 공동체의 완성 7. 공동체의 유익

〈표 37 - 양육 2단계〉

목차	내용
1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2. 승리하는 삶과 믿음의 성장은 정비례 3. 승리와 성장을 위한 실천
2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님의 음성 듣기 2. 들은 대로 실천 하기 3. 셀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 4. 셀 라이프 5. 대화식 기도
3과. 신앙인의 기본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배 2. 찬양 3. 주일 생활 4. 헌금 5. 봉사 6. 전도
4과. 그리스도인의 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리스도의 몸 2.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3.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 4.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 5.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를 통해서 본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5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소통-DISC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SC란? 2. 왜 DISC를 합니까? 3. DISC 특징
6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소통의 실제-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체에서 대화 지수는? 2. 좋은 대화의 위력 3. 대화의 종류 4. 대화의 실제
7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덕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납과 인정 2. 섬김 3. 사랑 4. 태도 5. 오래 참음
8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인 교회 공동체 2.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 3. 쉼 교회의 8가지 핵심 가치

3) 자녀 교육 세미나(가정 선교 세미나)

자녀 교육 세미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회씩, 주일 오후예배 후 진행되고 있다. 30-40대로 구성된 기혼 청년부에서 주관하며, 대상은 본 교회 모든 성도들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경적 자녀로 양육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강사를 초빙하여 부부 관계, 자녀 교육, 다음세대 신앙 전수 등의 강의와 소그룹 나눔, 함께 기도하기 시간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으로 학업을 지도하며 성공을 도모하는 부모가 아닌 성경적 방법에서의 신앙 양육에 우선 순위를 두고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 가도록 도움이 되어 주는 부모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강의를 비롯해 직접 강사 가족이 출연하여 가정 예배를 실행하는 시연도 보여 주었으며, 유대인들이 드리는 가정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가정 예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였다.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통하여 믿음이 전수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을 도전 받는 시간이다.

4) 마더 와이즈(Mother Wise)

마더 와이즈(Mother Wise)는 2015년-2018년까지 매년 1회씩 진행되었으며,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에 진행되었다. 현재는 좀더 은혜로운 프로그램이 되고자 보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대상은 본 교회의 성경적 아내를 소망하는 성도들이었으며 외부 교회 성도들도 수강생으로 참석 가능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유, 지혜, 회복’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공부 교재를 통한 강의와 소그룹 나눔, 함께 기도하기, 개인별 과제 등으로 진행되었다.

마더 와이즈는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성과 어머니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회복을 도와주며 자녀 양육 방법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부관계, 부모역할,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역할 등을 성경적인 방법들을 대화와 기도를 통해 함께 나눔으로써 특별히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역 목적을 두고 있다.

마더 와이즈를 수료한 어머니들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다음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 부부가 함께 결단하여 현재까지 가정 예배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어머니들의 호응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8 - 마더 와이즈(Mother Wise) 자유>

목차	내용
WEEK 1. 포도나무의 원리 : 생명	DAY 1. 사랑의 양동이 DAY 2. 사랑의 원천 DAY 3. 사랑의 직선 DAY 4. 사랑의 메시지 DAY 5. 사랑의 생명
WEEK 2. 가지의 원리 : 문제의 뿌리	DAY 1. 새 부대 DAY 2. 욕신 DAY 3. 거절 DAY 4. 통제하려는 욕신 DAY 5. 욕신의 해부
WEEK 3. 가지의 원리	DAY 1.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욕신 DAY 2. 수동적인 욕신 DAY 3. 종교적인 욕신 DAY 4.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욕신 DAY 5. 자기중심적인 욕신

WEEK 4. 가지치기의 원리 :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 막을 때	DAY 1. 십자가의 원리 DAY 2. 십자가의 탁월함 DAY 3. 십자가의 자리 DAY 4. 십자가의 기도 DAY 5. 십자가의 실천
WEEK 5. 가지치기의 원리 : 잘라내기	DAY 1. 십자가의 형상 DAY 2. 십자가의 개인적 부르심 DAY 3. 십자가의 증거 DAY 4. 십자가의 능력 DAY 5. 십자가의 열매
WEEK 6. 새싹의 원리 : 포도나무에 접붙이기	DAY 1. 새 생명 DAY 2. 새로운 마음 DAY 3. 새로운 능력 DAY 4. 새로운 장소 DAY 5. 새로운 생각
WEEK 7. 새싹의 원리 : 새로운 성장	DAY 1. 새로운 목적 DAY 2. 새로운 소유 DAY 3. 자리에 앉기 DAY 4. 위의 것을 찾고 집중하기 DAY 5. 개인적 간증
WEEK 8. 열매의 원리 : 성숙을 향해 익어감	DAY 1. 굳게 서기 DAY 2. 순복하기 DAY 3. 영적 무기 DAY 4. 사랑으로의 부르심 DAY 5. 피할 수 없는 사랑

<표 39 - 마더 와이즈(Mother Wise) 지혜>

목차	내용
WEEK 1. 하나님과의 관계 I	DAY 1. 생명을 받아들이기 DAY 2. 반석 DAY 3. 등불 DAY 4. 날 선 검 DAY 5. 말씀
WEEK 2. 하나님과의 관계 II	DAY 1. 온 맘 다해 DAY 2. 나의 피난처 DAY 3. 엘 샤다이(EL Shadadai: 전능하신 하나님) DAY 4.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DAY 5. 주만 바라보기
WEEK 3. 나 자신과의 관계	DAY 1. 나의 진정한 가치 DAY 2. 나의 새로운 정체성 DAY 3. 나의 은사 DAY 4. 자신의 한계 안에서 균형 잡기

	DAY 5.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기
WEEK 4. 남편과의 관계 I	DAY 1. 아내의 목표 DAY 2. 아내의 언약(1) DAY 3. 아내의 언약(2) DAY 4. 아내의 언약(3) DAY 5. 아내의 역할
WEEK 5. 남편과의 관계 II	DAY 1. 아내의 임무 DAY 2. 아내의 섬김 DAY 3. 아내의 의사소통 DAY 4. 아내의 메시지 DAY 5. 소망과 화해 그리고 용서
WEEK 6. 자녀와의 관계 I	DAY 1. 어머니의 소망 DAY 2. 어머니의 헌신 DAY 3. 어머니의 비전 DAY 4. 어머니의 정체성 DAY 5. 어머니의 사역
WEEK 7. 자녀와의 관계 II	DAY 1. 어머니의 선물 DAY 2. 어머니의 의무 DAY 3. 어머니의 임무 DAY 4. 어머니의 훈련 DAY 5. 어머니의 증언
WEEK 8. 세상과의 관계	DAY 1. 여성의 일(1) DAY 2. 여성의 일(2) DAY 3. 여성의 사역(1) 비전, DAY 4. 여성의 사역 (2) 목표, DAY 5. 사역에서 여성의 역할

<표 40 - 마더 와이즈(Mother Wise) 회복>

목차
1. 당신을 택하신 주님
2.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3.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4.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
5. 당신을 기뻐하시는 주님
6. 당신을 꾸며주시는 주님

5) 교사 아카데미(교사 세미나)

교사 아카데미(교사 세미나)는 본 교회 주일학교 설립과 함께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매년 진행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세미나의 내용들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다. 대상은 본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이었으며, 주일학교 각 부서의 1년 사역을 회고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10월중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해 오던 교사 세미나는 교사들의 신앙 자질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지도와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6년부터 시행된 교사 세미나는 다음세대들의 신앙 전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다음세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교육함으로써 교사가 부모들에게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사들부터 먼저 가정 예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부모와 교사가 연계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가정과 교회 주일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 다음세대들을 위한 신앙 전수를 위해 함께 고민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며 다음세대의 신앙 성장에는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큐티(Q.T.- Quiet Time), 성경공부, 하브루타, 경청과 질문, 성품학교 등 매회 시행되는 교사 세미나에서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교사들을 위한 자질 함양에도 아끼지 않는 지원을 하였다.

6) 젊은 아빠들 셀(Cell) 모임

젊은 아빠들 셀(cell) 모임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주일 오전예배 후, 오후 1시 2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되었다. 대상은 본 교회 30-40대 기혼 남성들이었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성경공부와 소그룹 나눔 및 기도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의 30, 40대 남성들은 사회에서 분주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퇴근하여 가정으로 귀가하면 일명 '육아 전쟁'이 시작된다. 주말에도 쉴 틈이 없으며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본인의 신앙을 위한 시간보다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느라 분주하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남성들은 자녀 양육의 시기는 지났으며 사회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연령대이기에 중년들의 모임은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

나, 어린 자녀들의 육아를 하고 있는 젊은 아빠들은 직업과 양육으로 인한 피로도와 분주함으로 인해 본인들의 신앙을 유지해 가기도 힘들어하는 실정이었다. 가정과 교회에서 영적 리더로 세워져야 할 젊은 남성들의 고충을 위로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며 격려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젊은 아빠들의 모임을 가졌다.

성경공부 교재, 또는 교회에서 매주 제공되는 셀 교안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며, 삶을 나누면서 함께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모임에 결석자가 없을 만큼 매주 모임에 대한 기대와 호응도는 높았으며 차후에는 교회의 여러 행사 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하며, 또래 연령의 불참자들을 모임에 권면하며 영혼을 돌볼 정도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문제도 모두에게 큰 고민과 어려움이었으나, 다음세대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 아버지들이 본이 되어야 함을 직시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도 하였다.

가정 예배를 시행하기에는,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시작하기까지의 망설임과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회에서 시행하는 가정의 행사들에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도 있었다. 물론 젊은 아빠들이 건강하게 영적 아빠와 남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내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젊은 아빠들의 셀 모임을 진행하는 시간에는 아내들이 자녀들의 육아를 담당해 주었으며, 성경적 남편과 아빠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와 행정적인 편의들을 제공해 주는 섬김이 있었다.

<표 41 - 젊은 아빠들 셀(Cell) 모임(교재: 풍성한 삶의 기초)>

목차	내용
I.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첫 번째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두 번째 만남: 성경적 믿음의 원리
II.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세 번째 만남: 하나님 알아가기 네 번째 만남: 하나님 사랑하기
III.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기 사랑	다섯 번째 만남: 참된 자기 사랑 여섯 번째 만남: 성령을 따라 사는 삶
IV.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일곱 번째 만남: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여덟 번째 만남: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V.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살이	아홉 번째 만남: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 열 번째 만남: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
VI.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열한 번째 만남: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열두 번째 만남: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7) 특별 양육 강좌

특별 양육 강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셀 방학이 시작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 30분 중 선택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대상은 본 교회 모든 성도들이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큐티 세미나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별 양육 강좌는, 교회의 중요 사역인 셀 모임이 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에 셀 과 교회 년중 사역이 쉬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있는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성경에 대한 개론과 이해, 문화적 배경과 성경적 원리를 함께 공부하면서 부모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대화와 소통을 하다 보면 자녀들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질문, 인생에서 어려움을 신앙으로 풀어나갈 지혜 등 여러 질문들을 받게 된다. 이 특별 양육 강좌를 통하여 부모들이 성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길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강좌를 개설할 때마다 80%이상의 셀 리더들이 참석하고 있다. 부모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이었으나 이후에는 자녀들도 참석하여서 방학 중 성경을 함께 배워가고 있다.

<표 42 - 성경 파노라마>

목차	내용
PART 1. 성경의 골격 파노라마	CHAPTER 01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성경의 세 골격
	CHAPTER 02 여덟 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여덟 골격
PART 2. 구약성경 파노라마	CHAPTER 03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구약성경의 열두 시대

	CHAPTER 04 지도로 보면 구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지도로 보는 구약성경
	CHAPTER 05 구약 드라마 속 줄거리의 핵심을 잡는다, 구약성경 각 권의 핵심 주제
	CHAPTER 06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꾼다, 구약성경의 생활 원리 1
	CHAPTER 07 구약의 드라마로 최고의 인생을 배운다, 구약성경의 생활 원리 2
PART 3. 신구약 중간기 파노라마	CHAPTER 08 침묵에도 뜻이 있다, 신구약과 그 중간기
PART 4. 신약성경 파노라마	CHAPTER 09 신약 시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다, 신약성경의 열두 시대
	CHAPTER 10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지도로 보는 사복음서
	CHAPTER 11 교회 시대를 지도로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지도로 보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CHAPTER 12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신약성경 각 권의 핵심 주제

8) 온세대 예배

온세대 예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매년 부활 주일, 추수감사 주일, 성탄 주일, 송구영신예배에는 본 교회의 모든 성도와 자녀들인 온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음세대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전수되어야 하며, 부모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것을 설교와 세미나,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로 교육을 하였으나 많은 부모들에게는 여전히 가정 예배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본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하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형식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구성하였다.

성도들은 교회 성전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흩어져서 앉지 않고 아빠와 엄마 사이에 자녀들을 앉도록 하였다. 부모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주일학교 각반 담임선생님이 본인의 가정에 입양을 하듯 담임선생님의 자녀들과 함께 앉도록 하였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신

양이 전수되듯이 비록 장소는 교회이지만 양쪽에 앉아있는 부모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며 예배 자로서의 자세를 배우게 되며, 옆에 앉아있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형식을 몸으로 자연스럽게 먼저 익히도록 하였다.

온세대 예배는 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세대간의 간격도 좁혀주며, 다음세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 자녀들과 함께하는 부모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부터는 2/4 분기와 4/4 분기에는 주일 오후예배를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비롯해 모든 예배 순서와 내용을 주일학교 각 부서가 순차적으로 담당, 기획하도록 하며, 장년들이 다음세대를 섬기며 축복하는 예배로 드리고자 계획 중이다.

9) 주일학교 공과 교재 통합

주일학교 공과 교재 통합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대상은 본 교회 주일학교 모든 부서이다.

본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큐티 교재(매일 성경-성서유니온)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큐티 교재를 통해서 모든 장년 성도들이 함께 공통된 본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한다. 개인이 묵상하고 적용한 것들을 주일학교와 각 전도회, 직분자들이 속한 SNS 에서 함께 공유도 한다.

장년들의 신앙이 다음세대에게 전수되고 가정 예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일학교 부서의 공과 교재를 큐티 교재로 과감히 전환하였다. 장년들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묵상하는 교재를 주일학교용 공과 교재로 채택하여 각 부서 반별 모임 시간(분반공부)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큐티 교재를 주일학교 공과 교재로 선정한 이유는 반별 모임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 지식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서로가 함께 묵상한 말씀과 삶에 적용한 것을 나누는 쌍방향 소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1 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가지는 반별 모임 시간은 20-25 분 정도로서, 그 시간에 출석 확인도 하며 말씀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주일학교 모든 부서의 대부분 아이들은 주일학교용 공과 교재를 가정이 아닌 교회에 비치 해 두고 다녔기에, 주일학교 학생들은 평일에 가정에서 공과 교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공과 교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여야만 볼 수 있었으며, 공과 교재를 각 가정에서 비치하여도 아이들은 학교 생활과 함께 바쁜 학원 일정으로 인하여 1주일 동안 공과 교재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큐티 교재의 활용도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큐티 세미나를 비롯하여 큐티하는 방법들을 교육하였으며, 어느 곳에서라도 하루에 5분씩 큐티 교재를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교육하였다. 그리고 반별 모임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대화와 소통을 하며 말씀과 삶을 나누는 시간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반별 모임 시간에 공부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의 본문으로 통합되게 되었다.

10) 온세대 말씀 통합

온세대 말씀 통합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매주 주일예배 성인 예배와 주일학교 각 부서 모든 자녀들이 동일한 성경 본문을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가정 예배의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의 성경 본문의 말씀들을 동일한 본문으로 통일하였다.

영아부부터 장년예배에 이르기까지 주일 오전예배를 동일한 본문으로 구성함으로써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장년 예배 시간에 부모들이 들은 말씀을 주일 저녁이나 주중에 자녀들과 언제든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부모들과 자녀들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서로가 받은 은혜들과 생각, 고민, 결단 등을 함께 대화와 토론으로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듣게 된 말씀이 가정 예배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 예배 교안’을 작성해서 교회 주보에 첨부하였다. 적은 수의 가정이지만 주보에 게재된 교안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가 시행되었으며 어린 자녀들까지 본문 말씀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풍성한 가정 예배가 되었다는 간증

도 있었다.

<사진 1 - 주보에 첨부된 가정 예배 순서지 ①>

DaeGil Presbyterian Church 3

셀교안 Cell **가장 큰 축복 / (시편 32:1-7)**

- **Welcome 환영합니다**♡
건강하거나 불안할 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나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Worship 찬양합니다**♡
268장 /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 **Word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32:1-7)
시편32편은 다윗의 시로 7개의 회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1-2절은 죄를 용서받은 자의 확신을, 3-4절은 죄를 자책하지 않았을 때의 고백을, 5절은 죄 고백을 통해 얻게 된 용서를 다룹니다. 6-7절은 경건한 자에게 회개의 기도를 권하는 내용을, 8-11절은 다윗의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 이전과 이후의 결과를 보여 주며 실절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책하기 이전의 영적 상태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진액(기운, 힘)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고름스럽습니다(3-4절). 그러나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아뢰면 죄 사함을 받고(5절) 주의 보호와 구원의 복을 얻게 됩니다(7, 10절).
- 1. 한 주간 동안, 예배와 개인묵상을 통하여 받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은혜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경우, 또는 일상 속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짧게 나누어 보십시오.
- 2.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을 살펴보고 그 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5-7, 10b절)
- 3. 회개하기 전과 후, 다윗의 대조적인 상태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1-5절)
- 4.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게 될 정도였고, 여름 가뭄에 땅이 마르는 것처럼 몸의 진액이 빠져나갔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느낀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죄 때문에 비슷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 5. 죄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가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6절).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Work 말씀대로 삼시다**♡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진 2 - 주보에 첨부된 가정 예배 순서지 ②>

■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 예배 (2017.5.7)**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과 죽음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 200장), 나는 예배자입니다.(복음성가)

[기도]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ord _ [가족이 함께 읽는 하나님 말씀 - 열왕기상 2장 1-4절]
다윗은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2절에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라본 죽음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똑같이 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성경은 잘사는 길을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잘되는 삶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잘사는 길이고 어떻게 잘되는 삶인지 항상 먼저 가르칩니다. 잘살고 잘되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길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은 불변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세상과 부딪힌다는 뜻이고 거스른다는 말이고 고난을 자초한다는 얘깁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그 기준을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되는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중요하게 선포되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3절)"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4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후손들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 나누기, 축복하기
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② 깨달게 된 것, ③ 결단할 것을 나누어 봅니다. 자녀의 이름을 넣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000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함께 기도해요.
"주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많은 염려와 걱정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당목사님의 축복기도문

주기도문

<사진 3 - 주보에 첨부된 가정 예배 순서지 ③>

**징계하되,
진멸하지는않으시고**

<9월 넷째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예배

함께 기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찬양 드려요-
찬송가 :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찬사를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리다
3. 주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없고 구속한 주안 보이리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리다 아멘


복음송가 :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몸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귀한 말씀을 읽어요- 예배매야 5:10-19 (• 뒷면 참조)
- 남쪽 유다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쁜 죄를 짓게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내고자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견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쪽 유다백성들을 혼을 내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 우리 가정과 대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 영송 구절 :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18)

서로에게 축복을 나누어요-
1. 말씀을 읽으며 서로가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서로의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000 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한 담임목사님의 축복기도문 (자녀들의 여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대길교회의 모든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영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길교회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10절-19절

<개역개정>
10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깎아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닐이 나라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밋혀하였느니라
12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할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13 선지자들은 비방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내가 당하리라 하느니라
14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1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만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16 그 화살통은 열린 두덩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17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갈로 파멸하리라
1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19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우리말성경>
10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1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나를 완전히 배반하였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12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불행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할이나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13 예언자들도 비방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와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예언한 바로 그 재앙이 그들 자신에게 미칠 것이다.'
14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였으므로 내가 네 입에 있는 내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을 태워 버릴 것이다.
15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먼 곳에서 너희를 칠 나라를 불러들이겠다. 그 나라는 역사가 깊고 막강한 나라이다. 너희는 그 나라 말을 알지 못하고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6 그들의 궁수방들은 무자비하게 죽이는 용감한 군인들이다.
17 그들은 너희가 추수한 농작물과 양식을 삼킬 것이며 너희 아들 딸들을 죽이고 또 너희 양떼와 소 떼를 삼키며 너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해치고 너희가 의지하는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18 그러나 그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19 그들이 만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째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가?'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제 너희가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11) 꽃 주일-부모 초청 예배

꽃 주일 예배는, 매년 5월 첫째 주일(어린이주일)의 2부 오전 예배시간에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영아부부터 초등부(초등학생 4학년-6학년)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찬양과 율동, 기도와 촛극(寸劇, a skit) 등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는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담당한다. 대상은 본 교회에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다. 자녀들과 함께 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부모 초청 예배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아버지주일)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을 주일학교 각 부서로 초대하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자녀들이 찬양 인도와 대표 기도를 하며, 설

교, 부모님에게 전하는 말,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축복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부모들로 인한 신앙 전수가 자녀들에게 전해지도록 교회 내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12) 가정 예배 활성화

본 교회의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장년 성도들과 다음세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모세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전수되고 다음세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대길교회 주일학교 목회자들은 각 부서 사역에서 씩씩이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노력으로 인해, 가정 예배를 시행하고 있는 가정들의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부모들과 자녀들이 속한 가정 뿐만 아니라, 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도 있음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 서울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 중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의 출석율은 큰 급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한 교육으로 인하여 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가 어렵지 않게 정착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여전히 가정 예배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성도들은 전해주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가정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 모으는 점에는 앞으로 본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 4 - 가정 예배 모습>





이상으로 본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장점으로 가정 예배에 대한 교회적 홍보가 강도 높게 전달되지 않아도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 양육을 가정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공유된다는 것이다. 본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하였기에, 각 주일학교 부서를 비롯해 성인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가정 예배를 시행하고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는 점이다. 가정 예배 만을 강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가정 예배에 대한 지속성이 약화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본 교회에서도 시행하고자 준비 중인, ‘가정 예배 학교’라는 훈련학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교회를 비롯해 지역교회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 가정 예배 학교(와와캠프(Wa Wa Camp)-아빠와 엄마와 함께 캠프 가요!)

‘가정 예배 학교’는, 매년 5월에 10-20가정을 신청을 받아 주일 오후 예배 후, 총 4주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대상은 본 교회 모든 가정들이다.

가정 예배의 본질과 가정 예배에 필요한 요소, 성경적 부모의 사명과 역할, 가정 예배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에 대해서 배운 뒤,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가족들이 함께 야외에서 캠핑(Camping)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캠핑에서는 가족들간의 협력과 하나됨을 위한 공동체 훈련(Recreation), 대화와 소통의 시간,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시간 등을 가지면서 가정 예배를 시연 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표 43 - 가정 예배 학교>

구분	강의	내용
1주차	가정 예배, 무엇일까요?	가정 예배에 대한 성경적 이해 가정 예배의 필요성과 유익
2주차	가정 예배, 아빠 엄마가 시작해 주세요.	부모의 사명과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
3주차	가정 예배, 어렵지 않아요.	가정 예배를 위한 시간과 장소 가정 예배를 위한 형식과 방법
4주차	와와 캠프!	아빠 엄마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공동체 훈련(Recreation) 서로에게 편지 쓰기 아빠, 엄마에게 영상 메시지 아빠, 엄마가 자녀에게 영상 메시지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 받기

1 주차 교육에는, 가정 예배에 대한 이해를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기관의 의미와 목적, 가정에서 드러지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성경에 나타난 가정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성경적 의미를 알아가며, 교회사 속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이어온 가정 예배를 배움으로써, 다음세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에 대한 고민과 도전을 나누는 시간이다.

2 주차 교육에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가며,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자녀들의 신앙 전수는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배우며, 다음세대 신앙을 위해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성경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3 주차 교육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알아본다. 가정 예배를 시행하기 위한 가족 구성원들의 헌신과 약속을 나누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알아본다.

4 주차 교육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1박 2일의 일정으로 야외로 캠핑을 떠난다. 가족 캠핑의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4 - 와와 캠프(Wa Wa Camp) 첫째 날 일정 개요>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저녁 7:00	도착	캠프 장소에 도착	캠프 가운데는 장작 모형 설치, 무대 앞 '와와 캠프' 스티로폼 조 형물, 음향 설치, 장작 모형물 주변으로 가족별 텐 트 설치
7:00-8:00	환영, 소개하기	가족 소개, 공동체 훈련(Recreation)	가족 소개, 간단한 공동체 훈련 (Recreation)
8:00-9:30	저녁 식사	바베큐 파티	삼겹살, 불판, 식사 준비
9:30-10:00	찬양, 메시지 선포	말씀 선포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 선포
10:00-10:30	영상 메시지	영상 메시지 보기① 영상 메시지 보기②	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전하는 영상메시지 ②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하는 영상메시지
10:30-10:50	편지 쓰기	서로에게 편지 쓰기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담아 편지 작성
10:50-11:10	축복 기도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축복 기도 하는 시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 가족들의 포옹
11:10-12:00	가족 사명 선언문	가족 선언문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시간	가족 2행시, 가정 예배 4행시, 가훈, 사명 선언문 등 작성하여 발표
12:00	취침		가족간 추억을 나누며 취침

<표 45 - 와와 캠프(Wa Wa Camp) 둘째 날 일정 개요>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오전 7:30-8:00	기상, 산책	가족과 함께 산책	캠핑 장소 주변을 가족들과 산책
8:00-9:00	아침 식사	아빠가 준비하는 아침 식사	아빠가 준비하는 샌드위치(sandwich) 아침 식사
9:00-10:00	미션 장소 이동	장소로 이동	박물관, 선교 유적지 등의 장소로 이동
10:00-12:00	미션 수행	다양한 미션 수행	각 코너별 미션 수행하기 (퀴즈, 보물찾기 등)
12:00	집으로 귀가	마지막 집결지에 모여서 귀가	가족사진, 단체사진 촬영 후 귀가

가족 캠핑(와와 캠프(Wa Wa Camp)) 첫째 날의 일정은, 캠핑 참석 가족들의 장소 집결 후 공동체 훈련으로 시작한다.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 캠핑 참가 목적과 기대 등을 나눈다.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서로 간의 하나됨과 화목된 시간을 가진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각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가정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보며, 상대방이 간직하고 있던 마음 속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 서로에게 엮서 또는 편지를 쓰는 시간을 통하여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였고, 전하기에 어색하였던 감정들을 글로 전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안아주며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부모들의 사명과 역할이 회복되며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위한 가정 예배의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2 행시, ‘가정 예배’라는 제목으로 4 행시, 가훈, 가족 사명 선언문 등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한다.

둘째 날 일정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캠핑 장소 주변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아빠가 만들어주는 샌드위치(Sandwich)로 아침 식사를 한 후, 미션(mission) 장소로 이동한다. 미션 장소로는, 박물관, 선교 유적지 등 대한민국 역사 또는 기독교 선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정하는 것이 유익하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선조들의 정신, 기독교 역사에 대해 배워가며, 각 코너마다 퀴즈(Quiz) 풀기, 보물찾기 등의 미션을 수행한다. 모든 미션을 수행한 후, 최종 장소에 집결한 가족에게는 기념 선물을 증정한다. 단체 사진을 비롯한 가족 사진과 개인 사진 등의 사진 촬영 후 각 가정으로 귀가한다.

1박 2일의 가족 캠핑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간의 사랑과 추억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자연스럽게 시연해 볼 수 있다는 유익함이 있다. 가정 예배를 시행하고 싶으나, 언제쯤이면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시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움이 모든 가족들에게 존재할 것이다.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족 캠프에 참석함으로써 모든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에, 각 가정에서 시행할 때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 캠핑이 각 가정들의 가정 예배가 회복하는데 큰 밑거

름이 되길 바란다.

4. 소결론

본 교회에서의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역 등으로 노력한 시간과 열정들을 볼 때에 가정 예배의 정착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본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적인 상황일 것으로 충분히 유추 할 수 있다. 가정 예배 학교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도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것을 돕는 것에 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림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들을 위한 부모들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세대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뜨거운 열심만큼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세대의 신앙 전수에 모든 사랑과 열정을 쏟아야 한다.

‘가정 예배 학교’를 통하여 부모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녀들의 신앙 전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으며 각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가정 예배가 다음세대의 대안이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성장한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제 6 장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가정 예배가 성경적, 신학적,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면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가정 예배를 통한 다음세대들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음세대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행복감을 가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가정 예배가 정착된 가정일수록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부모들은 구원관이 뚜렷한 그리스도인이기에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실제로는 가정 예배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설문 연구를 통해 볼 때 가정 예배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A 교회 92.0%, B 교회 98.0%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정 예배 드리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는 A 교회 90.0%, B 교회 80.5%가 ‘가족간의 신앙 전수’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정 예배가 자녀들 신앙 전수에 대한 물음에는 A 교회 94.0%, B 교회 98.0%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물음에는 A 교회 86.0%, B 교회 90.0%가 ‘가정’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A 교회 24.0%, B 교회 50.0%만이 ‘드리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는 A 교회 62.0%가 ‘교회의 교육과 홍보’라고 응답한 반면, B 교회는 56.0%가 ‘본인의 결단과 시행’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세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부모세대들의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함께 교회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세대의 신앙을 위해 가정 예배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가정 예배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보았다. 다음세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가정 예배가 활성화 되기 위해 부모들에게 가정 예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다음세대들의 신앙을 위해 부모들은 가정 예배를 시행하고자 결단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다음세대들이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와 타인들에게 신앙 훈련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신앙 계승과 믿음 생활, 성경적 양육 등 다음세대를 위한 양육의 계획들을 태초부터 준비해 놓으셨다. 그 놀라운 사랑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뿐이다.

가정 예배의 활성화가 될 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그 결과 다음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부모들에게 주신 신앙전수의 사명이 회복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시행하고자 결단과 실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자녀들의 신앙에는 부모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보아왔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인생에는, 부모 및 가정에서 경험한 신앙적 모든 행위로부터 큰 영향력을 받고 성장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신앙의 형성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하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 여정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이다. 부모를 통하여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 건강한 가정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다음세대가 회복될 것이고, 한국교회 미래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가정 예배를 통해 세워진 다음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다음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 가정 예배만이 진정한 다음세대의 대안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을 통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은 가정 예배의 필요성과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정 예배의 방식은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나 전통적

예배 형식보다는 부모와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삶을 나누고 적용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 원리가 교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부부와 자녀를 위한 ‘가정 예배 학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같은 가정 예배의 원리의 중요성을 상실하지 않고 모든 가정마다 결단과 적용을 한다면 다음세대는 다른세대가 아닌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세대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 전체 성도들 중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한 교회 성도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전통적인 한국 교회 상황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가정 예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접목으로 변화를 이끌어 보았다. 다음세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 고심하는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본 연구는 본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한국 교회 전체 표본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며 지역과 교단의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 교계 전체에 적용될 수는 없다. 차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연구자가 이 논문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하브루타 가정 예배의 실재’, 또는 ‘주일학교와 가정의 협력’, 그리고 ‘목회 구조를 부모와 연계하는 신앙 전수 체제로의 전환’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깊은 연구를 시행한다면 무너진 한국 교회의 신앙 전수가 회복되는데 이바지하는 연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APPENDIX A 부록 A

설문동의서(한글)

가정예배 활성화를 통한 다음세대 대안: 대길교회를 중심으로

차은직

리버티대학교, 신학대학원

귀하를 연구자의 연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대길교회 교인으로서 가정예배 활성화를 통한 다음세대 대안(대길교회를 중심으로)에 초대되었습니다. 귀하는 대길교회 교인으로서 대길교회 주일학교 상황을 잘 알고 또한 그 해결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참여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본 동의 문서를 잘 읽으시고 문의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해 주세요.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의 신학대학원(School of Divinity)에 소속된 박사과정 중에 있는 차은직(EUNJICK CHA)은 본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경설명: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하여 다음세대 대안을 내 놓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 주일학교 사역과 다음세대의 신앙 전승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구진행과정: 만일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 하신다면, 다음의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1시간의 시간과 무기명 설문 조사를 당신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위험요소(Risk): 본 연구를 통해 발생될 위험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발생할 위험요소는 극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문참여자가 매일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위험요소와 같은 정도입니다.

혜택: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직접적인 혜택들은 없을 것입니다.

보상: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비밀유지: 본 연구의 기록들은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제가 게시 할 수 있는 보고서의 어떤 종류에서, 저는 그것이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기록들은 안전하게 저장되며, 단지 연구자만 기록들에 접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의 어떠한 형태의 출판으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가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료들은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컴퓨터에 보관될 것이며 향후 연구발표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자료들은 삼년 후에 삭제될 것입니다. 설문참여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그룹 밖의 사람들과 그룹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해의 충돌 고지(告知): 해당사항 없음

자발성에 입각한 연구: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의 가부가 귀하의 현재와 미래의 리버티 대학교, 대길교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신 뒤에도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참여 중단이 위의 관계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를 중단하는 방법: 귀하가 연구참여중단을 원하실 경우 귀하의 설문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연구자에게 연구 참여를 중단할 의사를 밝히세요. 귀하의 응답들은 기록되거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자 연락처, 질문: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차은직(EUNJICK CHA)입니다. 지금 바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체 말고 82-10-8722-3649/ echa1@liberty.edu으로 연락하십시오. 본 연구자의 지도교수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정 교수: 82-01-2031-2985 yjlee@liberty.edu.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나 염려가 있고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경우 지체없이 International Review Board로 연락을 하십시오: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APPENDIX B**부록 B**설문동의서(영어)
CONSENT FORM**A STUDY ON ALTERNATIVES FOR NEXT GENERATION THROUGH VITALIZING FAMILY WORSHIP: THE CASE OF DAEGIL CHURCH**

EUNJICK CHA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You are invited to be in *A Study on Alternatives for Next Generation through Vitalizing Family Worship: The Case of Daegil Church*. You were selected as a possible participant because you are a member of Daegil Church and can give aid to planning for settling family worship through family worship training. Please read this form and ask any questions you may have before agreeing to be in the study.

EunJick Cha, a doctoral candidate in the School of Divinity at Liberty University, is conducting this study.

Background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for the next generation through the vitalizing of family worship. Therefore, it is the purpose of providing help for the ministry of the Sunday School of the Korean Church and the transmission of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Procedures If you agree to be in this study, I would ask you to do the following things:

1. Complete and answer a 1-hour long survey.

Risks: The risks involved in this study are minimal, which means they are equal to the risks you would encounter in everyday life.

Benefits: Participants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direct benefit from taking part in this study as following

Compensation: Participants will not be compensated for participating in this study.

Confidentiality: The records of this study will be kept private. In any sort of report I might publish, I will not include any information that will make it possible to identify a subject. Research records will be stored securely, and only the researcher will have access to the records. Participants will be assigned a pseudonym. Data will be stored on a password locked computer and may be used in future presentations. After three years, all electronic records will be deleted, and all paper documents will be shredded. I cannot assure participants that other members of the focus group will not share what was discussed with persons outside of the group.

Voluntary Nature of the Study: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voluntary. Your decision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will not affect your current or future relations with Liberty University or Daegil church. If you decide to participate, you are free to not answer any question or withdraw at any time prior to submitting the survey without affecting those relationships.

How to Withdraw from the Study:

If you choose to withdraw from the study, please inform the researcher that you wish to discontinue your participation prior to submitting your study materials. Your responses will not be recorded or included in the study.

Contacts and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ing this study is EUNJICK CHA. You may ask any questions you have now. If you have questions lat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him at 82-10-8722-3649/echa1@liberty.edu. You may also contact the researcher's faculty chair, Yoojung Lee, at 82-01-2031-9985/ yjlee@liberty.edu.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this study and would like to talk to someone other than the research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APPENDIX C
부록 C

Survey (Korean)
설문지(한글)

가정 예배에 관한 설문지

본 설문지는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한 다음세대 대안”이라는 논문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기타 다른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응답된 설문 내용은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각의 질문마다 해당하는 문항에 동그라미(○)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개인적인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몇세입니까?

- ① 20 세-29 세 ② 30 세-39 세 ③ 40 세-49 세 ④ 50 세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한달 평균 가구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100 만원-199 만원 ② 200 만원-299 만원 ③ 300 만원-399 만원 ④ 400 만원 이상

5. 귀하의 신앙생활 년수는 몇 년입니까?

- ① 0 년-5 년 ② 6 년-10 년 ③ 11 년-15 년 ④ 16 년 이상

6. 교회에서의 귀하 직분은 무엇입니까?

- ① 평신도 ② 집사 ③ 권사 ④ 장로

7. 귀하의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B. 신앙에 대한 질문

8. 당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 ① 믿는다 ② 믿지 않는다

9.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 ① 확신한다 ② 확신하지 않는다

10. 1주일 중, 교회 예배나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 ① 1주일에 1회 ② 1주일에 2회 ③ 1주일에 3회 ④ 1주일에 4회

11. 당신이 성경을 읽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 ① 하루에 한번 ② 일주일에 한번 ③ 한 달에 한번 ④ 거의 읽지 않는다

12. 당신이 기도를 하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 ① 하루에 한번 ② 일주일에 한번 ③ 한 달에 한번 ④ 거의 하지 않는다

13.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의 영향력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큰 영향을 준다 ② 많은 영향을 준다 ③ 약간의 영향을 준다 ④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C. 가정 예배에 대한 질문

14. 귀하의 가정은 가정예배를 _____

- ① 드린다 ② 드리지 않는다

15. 귀하의 가정은 일주일에 몇 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16. 귀하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7.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족간의 신앙 전수 ② 가족간의 친목 도모 ③ 교회에서의 프로그램 ④ 모르겠다

18.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족 구성원들간의 예배시간을 맞추기 어려움 ② 가족 구성원들의 협조가 힘들

③ 가정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④ 가정 예배 인도의 부담감

19. 가정 예배가 자녀들의 신앙 전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 귀하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 양육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정 ② 교회 ③ 학교 ④ 모르겠다

21. 가정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정 예배에 대한 본인의 결단과 시행 ② 가정 예배를 위한 교회의 교육과 홍보

③ 가정 예배 안내서 제작 ④ 가정 예배를 위한 시간적 배려

22.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진행되면 더 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회에서 배부한 예배 순서지대로 진행한다 ② 부모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③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말씀과 삶의 나눔을 한다 ④ 모르겠다

23.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자녀들과 함께 대화와 토론을 나누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좋다 ② 나쁘다 ③ 모르겠다

24. 귀하의 교회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강조한다 ② 강조한다 ③ 강조하지 않는다 ④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

25. 귀하의 가정 예배 실천을 위해 교회에서 교육 및 세미나를 시행한다면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26.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 ② 가족의 경제적 여유

③ 가족 개개인의 행복 ④ 가족 개개인의 자유 보장

27. 가정 예배로 인한 가족의 행복감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례한다 ② 반비례한다 ③ 모르겠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PPENDIX D**부록 D**

Survey Questions

This survey is designed for a dissertation titled “*A Study on Alternatives for Next Generation through Vitalizing Family Worship: The Case of Daegil Church*” It does not have its purpose on collecting other data. The contents of the survey responded are strictly guaranteed to be confidential to the respondents and wi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statistical purposes. After listening to the explanations of the questions below, please answer the question with a circle (○) for each question. Thank you.

[A. Personal Questions]

1. What is your gender?

- ① Male ② Female

2. Which age group do you fit in?

- ① 20-29 ② 30-39 ③ 40-49 ④ more than 50

3. What is your final education level?

- ① middle School graduation ② high school graduation
③ University graduation ④ Graduate graduation

4. What is your average household income per month?

- ① 1 million to 1.99 million won ② 2 million to 2.99 million won
③ 3 million to 3.99 million won ④ more than 4 million won

5. How many generations does your legacy in faith go up to?

- ① 0 to 5 years ② 6-10 years ③ 11-15 years ④ more than 16 years

6. What is your position in the church?

- ① Layman ② Deacon ③ Senior Deaconess ④ Elder

7. How many children are your children?

- ① 0 people ② 1 person ③ 2 person ④ more than 3 person

[B. Questions on Faith]

8. Do you believe that God lives?

- ① Believe ② Do not believe

9. Are you sure that you are saved?

- ① I'm sure ② Not sure

10. During the week, how many times do you attend church services or meetings?

- ① Once a week ② Twice a week ③ 3 times a week ④ 4 times a week

11. How many times do you read the Bible?

- ① once a day ② Once a week ③ Once a month ④ Hardly read

12. How many times do you pray?

- ① once a day ② Once a week ③ Once a month ④ do not do very often

13. What is the influence of faith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in your life?

- ① Has a very big impact ② Has a lot of influence
③ Has a small effect ④ Has no effect

[C. Questions on Family Worship]

14. Your family family worship _____.

- ① I give ② Do not give

15. How many times a week does your family have family worship services?

- ① once ② twice ③ third time ④ More than four times

16. What do you think of family worship?

- ① Very necessary ② need ③ It is not necessary ④ Not required at all

17. Why do you have family worship?

- ① Transfer of faith between families ② Fostering family friendship
③ Program in the Church ④ I do not know

18. Why not do family worship?

- ① Difficulty keeping family worship hours ② Difficulty keeping family worship hours
③ Do not feel the need for family worship ④ The burden that guides family worship

19. Through family worship training, did you come to recognize the main cause of hindering family worship?

- ① Absolutely necessary ② need ③ It is not necessary ④ Not required at all

20. Where do you think nurturing the faith for the transmission of the faith of your children should take place?

- ① Home ② Church ③ School ④ I do not know

21. What do you think is needed to Vitalizing family worship?

- ① My determination and practice in family worship
② Church education and promotion for family worship
③ Create a family worship guide
④ Consideration of time for family worship

22. How do you think it is more gracious to offer family worship?

- ① Proceed in the order of worship provided by the church ② Parents proceed unilaterally
③ Share the word and life through dialogue with children ④ I do not know

23. How do you feel about conducting family worship while having conversations and discussions with your children?

- ① good ② bad ③ I do not know

24. How is your church coping with family worship?

- ① Very emphasizing ② Emphasize
③ Do not emphasize ④ Do not emphasize at all

25. Are you willing to participate if your church conducts training and seminars to practice your family worship?

- ① Yes ② No ③ I do not know

26.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happy family?

- ① Faith of family members ② Family financial margin
③ Happiness of each family member ④ Ensuring individual family freedom

27. How do you feel about family happiness from family worship?

- ① Proportional ② Inversely proportional ③ I do not know

Thank you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 고용수. 「하나님나라와 교육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 교회개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성도의 신앙생활」. 서울: 도서출판 교회개신연구소, 2012.
- 김광덕. 「숨겨진 보화: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KMC, 2009.
- 김득룡. 「현대 교회 예배학신강」.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85.
- 김만형. 「SS 혁신 보고서」.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김홍전. 「혼인, 가정과 교회」. 성약출판사, 1994.
- 박상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18.
- 박상진 외 4인.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 신용주, 김혜수. 「다음세대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2017.
-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생명의 말씀사, 2007.
- 여운학.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규장, 2006.
- 오인숙.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규장, 2010.
-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이유정. 「성령의 지배를 받는 40일 예배훈련」. 도서출판 좋은나라, 2016.
- 유희무 외 5인.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생명의 양식, 2018.
- 장대선. 「교회를 세우는 가정 예배」. 고백과 문답, 2017.
- 전성수.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위즈덤하우스, 2012.
- 전성수. 「자녀교육 혁명 하브루타」. 두란노, 2012.

- 전성수, 양동일.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라이온북스, 2014.
- 주준태 외 6인. 「야곱의 식탁」. 도서출판 생명의 양식, 2018.
- 현용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쉼마 1」. 도서출판 쉼마, 2009.
- _____.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쉼마 2」. 도서출판 쉼마, 2009.
- _____.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쉼마 3」. 도서출판 쉼마, 2009.
- Boys, C. Mary.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 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Chambers, Oswald.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스테반 황 역, 토기장이, 2009.
- Christenson, Larry. 「크리스천의 가정 생활」. 김용순 역, 서울: 보이즈사, 1982.
- Diamant, Anita and Kushner, J. Karen. 「유대인의 자녀 양육법」. 도서출판 동연, 2018.
- Foster, J. Richard. 「기도」. 송준인 역, 두란노, 1995.
- George M. Marsden. 「조나단 에드워즈 평전」. 한동수 역, 부흥과개혁사, 2006.
- Henry, Matthew.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이영자 역,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15.
- Hess, S. Richard and Carroll R. M. Daniel. 「성경 속의 가정」. 차명호 역,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14.
- Hodge, A. Archibald.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김종률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Holmen, A. Mark.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김진선 역, 도서출판 토기장이, 2018.
- Holzer, Elie and Kent, Orit.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이은혜 역, D6 Korea House, 2018.
- Hunter Jr., Ron. 「D6 DNA」. 박금주, 김치남 역, 서울: D6 Korea House, 2017.
- Icenogle, W. Gareth.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SFC 출판부, 2007.
- James, W. Alexander.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9.
- Jimjon, Wolfgang. 「가정 교회」. 황진기 역, 국제제자훈련원, 2013.
- Joel, R. Beeke. 「가정 예배」. 김준범 역, 고려서원, 2012.

- _____.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조계광 역, 서울: 지평서원, 2012.
- Jones, Paul Timothy.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 엄선문, 박정민 역, 생명의 말씀사, 2014.
- Marvin, Tokayer. 「탈무드 2: 탈무드와 모세오경」. 현용수 역, 동아일보, 2007.
- Maston, B. Thomas.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Pateck, Kerry. 「아버지는 가정 목회자」. 김시완, 윤혜란 역,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3.
- Platte, Eberhard. 「거룩한 부담, 자녀양육」. 강미경 역, 아가페북스, 2012.
- Reid, Garnett. 「D6 언약도」. 황 스테반 역, D6 Korea House, 2018.
- Richards, Clift and Hildebrand, Lloyd. 「자녀의 미래를 여는 기도」. 정진우 역, 도서출판 NCD, 2011.
- Robert, J. Banks.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신현기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 Strauss, L. Mark. 「네 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 박규태 역,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7.
- Stott, R. W. John. 「제자도」. 김명희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 Tripp, David Paul. 「완벽한 부모는 없다」. 김윤희 역, 생명의 말씀사, 2019.
- Westerhoff III, H. John. 「기독교 신앙과 자녀 양육」. 이숙종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Whitney, S. Donald. 「오늘부터, 가정 예배」. 윤종석 역,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7.
- Wood, J. Leon. 「이스라엘의 역사」. 김의원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2. 영서

- Dallimore, A. Arnold. *Spurgeon: A New Biograph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5).
- Francis Brown. Samuel Rolles Driver. Charles Augustus Briggs. *Gesenius Hebrew-English Lexicon*, AMG Publishers, 1979. 635
- George, M. Marsden, *Jonathan Edwards: A Lif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3).
- Hammond, Payson Edward. *The Conversion of Children* (London: Morgan and Scott, n, d.)

Jones, Paul Timothy, *Perspectives on Family Ministry: Three Views Paperback* (2009, 98).

3. 정기간행물

- 구재익. “기독교가정교육 실제로서의 가정 예배”. 「신학지평」. 제28집. 2015년 12월.
- 구현정.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가정 내 대화법”. 「국립연구원」. 2014년 12월.
- 권도윤, 유진은. “하브루타 수업의 예비부모교육 효과: 혼합방법연구 기법의 적용”. 「열린교육연구」. 제25권 제1호. 2017년 2월.
- 김경례. “기독교 가정교육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지평」. 제23집. 2호. 2010년 11월.
- 김난예. “질문생성 전략과 하브루타 신앙공동체 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43집. 2015년 9월.
- 김남식. “기독교 가정에서의 영성 훈련”. 「상담과 선교」. 2 권. 2 호. 2003 년 7 월.
- 김득룡. “가정 예배의 원리와 실제”. 「상담과 선교」. 36 권. 2002 년 6 월.
- 김보경. “유대인 하브루타 학습의 이해와 정착을 위한 과제”. 「신앙과 학문」. 제21권. 1호. 2016년 3월.
- 김상훈. “성경에서 보는 가정 예배”. 「상담과 선교」. 36권. 2002년 6월.
- 나삼진. “교육공동체로서의 가정과 그 교육적 역할 증진 방안”. 「복음과 교육」. 제2집. 2005년.
- 박도훈. “예배를 통한 가정의 회복”. 「활천」. 774권. 5호. 2018년 5월.
- 박원석. “자녀를 위한 성경적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 「신학지평」. 제25집. 2012년 10월.
- 박진숙.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교육적 방안”. 「성경과 신학」. 68권. 2013년 10월.
- 박행남. “현대 기독교 가정 회복을 위한 목회 패러다임과 기독교 가정 생활교육”. 「복음과 실천신학」. 제23권. 2011년. 봄호.
- 백성재. “가정 예배를 통한 기독교 교육의 가치실현을 위한 연구”. 「신학지평」. 제23집. 2호. 2010년 11월.
- 백홍영. “교육으로 만나는 목회: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 부모교육의 실제 01 가정예배가 살아야 한다!”. 「교육교회」. 제430권. 2014년.

- 설진성 외 3인. “하브루타 기반 수업이 초등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회교육학회」. 제73차 춘계학술대회. 2018년 5월.
- 신형섭. “가정 예배 세우기 1단계: 가정 예배 터 닦기”. 「교육교회」. 457권. 2016년 9월.
- 신형섭. “가정 예배 세우기 2단계: 가정 예배 기둥 세우기”. 「교육교회」. 458권. 2016년 10월.
- 양주성.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방향”. 「효학연구」. 제18호. 2013년 12월.
- 오정호. “인재양성 미래 전략: 교회가 키워야 할 미래형 인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 2017년 8월.
- 이광주. “가정 사역에 있어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38집. 2000년.
- 이정관. “현대 가정의 변화가 가정에서의 청소년 기독교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안”. 「신학과 실천」. 제27호. 2011년. 5월.
- 이향숙. “가정 예배가 가족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심리상담」. 제1권. 2009년 11월.
- 임영택. “가정 예배 프로그램”. 「새가정」. 통권348호. 1985년 6월.
- 장화선. “가정 세움을 위한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성경과 신학」. 제71권. 2014년 9월.
- 전성수. “대를 잇는 신앙 부모가 만든다-하브루타가 가정을 살린다”. 「교육교회」. 2012년 5월.
- 전한중. “기독교 가정의 영적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기독교 교육연구」. 1993년 12월.
- 정명자.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아버지 역할”. 「광신논단」. 11권. 2002년.
- 조성국. “가정교육을 위한 복음주의 기독교교육학의 과제”. 「복음과 교육」. 제15집. 2014년 6월.
- 조성돈. “청소년, 그들의 신앙과 세계”. 기독교연합신문 창간 26주년 기념 2014 중고등학생종교의식 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한국교회 10년을 준비한다 미래 교회의 희망, 청소년」. 2014년 6월.
- 조은영, 이신동. “하브루타 토론이 영재의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8권. 1호. 2019년 3월.
- 주선애. “가정 예배는 어떻게”. 「새가정」. 통권245권. 1976년 2월.
- 황병준, 김지숙. “하브루타를 활용한 한국적 하브루타 가정예배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제54집. 2018년 6월.

4. 사전 및 주석류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5.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창세기 제1-11장)」. 제자원, 2011.

_____.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누가복음 제1-8장)」. 제자원, 2012.

_____.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데살로니가전후서·디도서·빌레몬서)」. 제자원, 2012.

_____.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마태복음 제1-11a장)」. 제자원, 2012.

_____.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스바냐·학개·말라기)」. 제자원, 2012.

_____.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요한복음 제1-6장)」. 제자원, 2012.

Calvin, John. 「칼빈 성경 주석 10 (히브리서·베드로전서·베드로후서·골로새서·빌레몬서)」. 존 칼빈 성경 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연구원, 2012.

Dunn, D. G. James. 「WBC 성경주석: 로마서(하)」. 김철, 채천석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5.

Motyer, Alexander John 외 3인. 「IVP 성경주석」. 신현기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8.

Henry, Matthew. 「성서주석 시리즈 (신명기)」. 박근용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9.

Walton, H. John. 「NIV 적용주석, 창세기」. 김일우, 전광규 역,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New Bible Dictionary. 「새성경사전」. 김의원,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5. 학위논문

김지숙. “하브루타(Havruta)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교육과 가정회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17.

김제희. “세대 간 신앙 전승 경험 네러티브를 통한 교회로서의 가정 선교 모델 연구”. 실천신학 박사학위 논문,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2018.

김호경. “목회비전과 가정예배를 연계한 신앙교육”.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7.

- 방미석. “부모와 자녀간의 신앙 계승을 위한 효과적인 사역 방법”. 박사학위 논문, 침례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 2017.
- 양창국. “개혁 신학의 관점에서 본 가정사역에 관한 연구: 성경적 가정사역 정착을 중심으로”. 철학박사학위 논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2017.
- 엄승용. “가정사역의 성경적 기초”. 박사학위 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8.
- 이선재. “신앙 전승을 위해 기획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연구: 동신교회를 중심으로”. 철학박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4.
- 정준. “가정 예배 활성화를 통한 신앙의 질적 성장 연구: 무교회회 30-40대 가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3.
- 지원규. “가정 예배 정착을 위한 가정 예배 훈련에 관한 연구: 논산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리버티대학교, 2020.
- 홍성범. “신앙전승운동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익산모산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7.

6. 온라인 자료

- 국민일보, “교회가 늙어간다 떠나는 젊은이를 붙잡아라” [온라인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36978>., 2020년 11월 9일 접속.
-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온라인 자료]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2020년 6월 24일 접속.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온라인 자료]
<https://cemk.org/15848>., 2020년 10월 9일 접속.
- 기독신문, “신년 기획 2020, 리포트 ③2040 미래 리포트” [온라인 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43>., 2020년 10월 2일 접속.
- 노컷뉴스, “주일학교의 위기..원인과 대책은?” [온라인 자료]
<https://www.nocutnews.co.kr/news/4589495>., 2020년 11월 26일 접속.
- 대길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daegilwelfare.com>., 2020년 11월 15일 접속.
-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COVID-19) 대유행” [온라인 자료]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2020년 6월 24일 접속.

세계일보 홈페이지, “코로나 시대 더욱 강조되는 집의 의미...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모습일까?”
[온라인 자료]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12507844?OutUrl=daum.>, 2020년 6월 23일 접속.

아이굿뉴스 기독교연합신문 홈페이지, “교회학교 위기, 해답은 부모에게 있다” [온라인 자료]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638.>, 2020년 11월 26일 접속.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과우치, 코로나 백신, 내년 말에나 대량 접종” [온라인 자료]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026000700640.>, 2020년 11월 9일 접속.

온누리신문 홈페이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 한국 교회 가정예배 역사” [온라인 자료]
http://news.onnuri.org/m/board/board_view.php?Mode=I&BoardID=12&BoardSeqNo=16445&FileSeqNo=&FileNme=&ViewType=T&page=1&search_what=&keyword=&pagesize=undefined&SortOrder=Asc&mnuBookNumber=0., 2020년 11월 8일 접속.

인도 레디언트 라이프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cafe.daum.net/india971/S3K/1.>, 2020년 11월 6일 접속.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온라인 자료]
<http://ncov.mohw.go.kr.>, 2020년 6월 24일 접속.

통계청 홈페이지,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OECD)” [온라인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14_OECD., 2020년 10월 1일 접속.

_____, “성별/연령별/종교별/ 인구-시 군 구” [온라인 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 2020년 10월 2일 접속.

파이드온 스퀘어 홈페이지, “다음세대는 한국 교회의 희망입니다” [온라인 자료]
<http://paidionsquare.com/story/story1/view.php?bno=92.>, 2020년 11월 13일 접속.

한국 갤럽 홈페이지,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1) 종교 실태” [온라인 자료]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25.>, 2020년 10월 3일 접속.

GOSPEL TODAY, “미전도종족 다음세대, 가정에서 교육해야” [온라인 자료]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1.>, 2020년 11월 9일 접속.

IRB A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March 26, 2020

Eunjick Cha
YooJung Lee

Re: IRB Exemption - IRB-FY19-20-217 A Study on Alternatives for Next Generation through Vitalizing Family Worship

Dear Eunjick Cha, YooJung Lee: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the following exemption category,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
101(b):

Category 2.(i). Research that only includes interactions involving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including visual or auditory recording).

The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by the investigator in such a manner that the identity of the human subjects cannot readily be ascertain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Your stamped consent form can be found under the Attachments tab within the Submission Details section of your study on Cayuse IRB. This form should be copied and used to gain the consent of your research participants. If you plan to provide your consent information electronically, the contents of the attached consent document should be made available without alteration.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modification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Universi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completing a modification submission through your Cayuse IRB account.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modification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Research Ethics Office

LIBERTY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 Training Champions for Christ since 1971